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대입 특별전형 중국어 특기자의 학습 생애 연구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손예초 (孙睿超)

대입 특별전형 중국어 특기자의 학습 생애 연구

지도교수 조용환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손예초 (孙睿超)

손예초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위 원 장 우용제 (인)

부위원장 소경희 (인)

위 원 조용환 (인)

초록

이 연구는 대입 특별전형 중국어 특기자의 학습 생애에 관한 질적 연구이다. 이 연구는 하나의 답을 도출하기보다는 중국어 특기자들의 교육, 삶과 문화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습 과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실천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에 있는 중국어 특기자들이 어떻게 중국어 특기를 종적적으로 향상시켰는지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가 중국어 특기자가 되기까지의 배경요인은 무엇이며, 중국어 특기자가 된 이후의 학습과 문화, 그리고 그들이 중국어 특기자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중국어 특기자의 자기 정체성 형성 과정을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보고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더불어 중국어 특기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그들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 자신의 생활과 행동을 규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내적 기제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국어 특기자들이 학습 과정을 거치면서 겪게 되는 자기 정체성 형성 과정이 현재 중국어 특기자들의 학습 생애와 비슷한 경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어 특기 능력이 계발되는 각 시점에서 교육은 자신만의 서사 형성과 정체성 확립, 특기를 발전시켜 자신감을 높여 주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 문제는 다음 세 가지였다. 첫째, 중국어 특기자가 된 배경과 학습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중국어 특기자 학습생애의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중국어 특기자들의 생애와 학습은 어떤 교육인류학적 의미를 가지는가? 나는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대입 특별전형 중국어 특기자의 학습 생애를 밝혀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중국어 특기자 전형을 지원하는 학습자의 관점에서 중국어 학습 생애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학습과 성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음은 연구의 내용이다.

첫째, Ⅲ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생애의 맥락 안에서 그들의 중국어 학습과정의 양상에 대해 질적으로 기술하였다. 특기가 중국어로 된 이유는 정말 중국어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기 의지로 결정하기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계발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남들보다 중국어를 좀 더 일찍 접했거나 중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다는 것이 특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나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떤 시기에 어떠한 결정적 계기가 있었는지, 이 시기에 중국어가 특기로 된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했다.

중국어 특기자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마다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공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량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정해진 기간 안에 높은 성적이 나와야 한다는 압박감, 주변의 기대와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내가 할 수 있을까'하는 자신에 대한 불신,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불안 등 다양한 감정들을 겪게 되는데 이들이 학습 과정에서 어떠한 성장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울러 중국어 특기자들은 중국어 특기자 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후,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며, 특기 활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생활과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와 함께 중국어 특기가 특기자들에게 정체성 확립과 인생의 기회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았다.

둘째, Ⅳ장에서는 중국어 학습의 경험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무엇인지 고찰해 보았다. 중국어 특기자들이 중국어 학습 과정에서 어떤 학습생애 특징이 있어서 중국어 실력이 향상했는지를 알기 위해 중국어 특기자 학습생애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중국어 특기자가 중국어를 공부하는 과정에 어떠한 인적 지원과 중국어 학습과정을 통해 학습의 내적 동기의 중요성은 다루었다. 또 중국어 특기자들이 중국어 학습과정에 만난 실패와 역경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통해 학습 중에 역경이 학습에 어떤 영향과 효과가 있는지 분석했다.

셋째, 중국어 학습생애를 바탕으로, Ⅴ장에서는 연구자인 내가

문화의 눈으로 본 중국어 학습은 무엇인지, 교육의 눈으로 본 중국어 학습은 무엇인지 탐구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대입 특별전형 중 중국어 특기자라는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집단에서 그들의 삶과 문화와 교육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중국어 특기자가 중국어를 통해 중국어학습을 심화하고 특히 중국어 특기자 전형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변화를 교육인류학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주요어 : 중국어 특기자, 학습, 생애, 질적 연구
학 번 : 2019-23246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문제 ····· 4
3. 연구방법과 절차 ····· 6
4. 연구의 범위와 한계 ····· 15

Ⅱ. 이론적 배경 ····· 17
1. 중국어 특기자 제도 ····· 17
2. 중국어특기자의 중국어 학습 경로 ····· 19
3. 선행연구 개관 ····· 26

Ⅲ. 중국어 특기자의 삶과 중국어 학습 ····· 32
1. 가훈: 중국어는 나의 “새로운 기회”이다. ····· 32
2. 나경: 중국어는 나의 “애증”이다. ····· 41
3. 다은: 중국어는 나의 “디딤돌”이다. ····· 50
4. 라희: 중국어는 나의 “도피처”이다. ····· 60

Ⅳ. 중국어 특기자의 학습 생애 특징 ····· 71
1. 인적 지지와 학습 ····· 71
2. 동기와 학습 ····· 88
3. 역경, 성공, 실패와 학습 ····· 97

Ⅴ. 해석 및 논의 ····· 104
1. 문화의 눈으로 본 중국어 학습생애 ····· 104

2. 교육의 눈으로 본 중국어 학습생애 ····· 117

Ⅵ. 요약 및 결론 ····· 126

1. 요약 ····· 126

2. 결론 ····· 129

참고문헌 ····· 133

Abstract ····· 139

표 목 차

[표 1] ····· 9
[표 2] ····· 11
[표 3] ····· 20

그 림 목 차

[그림 1] ····· 37
[그림 2] ····· 49
[그림 3] ····· 58
[그림 4] ····· 67
[그림 5] ····· 97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세기를 맞이하여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면서 개개인의 지적 능력과 창의력이 중요시됨에 따라 대학입학전형도 달라져 왔다. 특히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보면 특기자를 “특정과목에서 뛰어난 학생”으로 규정하여 각 대학에서는 다양한 재능과 적성을 갖춘 학생을 발굴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여러 형태의 대학 입학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춘 중국어 특기자 전형은 중국어에 흥미와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중국어 실력만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전의 입시제도에서는 외국어에만 집중하고 다른 분야에 관심을 두지 못한 학생은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하지만 특별전형이 확대되면서 모든 과목에서 뛰어날 필요 없이 외국어 실력만으로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어 특기자 입시전형은 중국어를 특기로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들의 특기를 바탕으로 각종 공인어학 시험과 대회를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입시전형이다. 따라서 중국어 특기자 전형의 경우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수능과는 완전히 다르고 소수의 인원을 모집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기자 전형은 국영수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과목에 집중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비해 쉽게 대학에 진학한다는 편견을 갖게 했다. 또한 학교에서 진행되는 정규 중국어 수업으로는 전형 대비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어 특기자 입시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국어 특기자들 역시 수능 시

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만큼, 혹은 그보다 더 심한 경쟁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어 특기자들을 돕기 위해 나는 중국어 학원에서 대입 특별전형 중국어 특기자 대비반 수업을 18년째 하고 있다. 17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중국어 특기자' 학생과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특기자 전형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시과정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기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는 첫째, 공인 어학 성적이 필요하다. HSK 6급의 경우 통과 점수는 취득하기 쉽지만, 같은 6급에서도 고득점을 받아야 중국어 특기자 전형을 신청할 때 유리하다. 그래서 더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지속적인 학습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즉, 만점 300점에 270, 280, 290 점수대마다 의미가 다른 것이다. 이처럼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수능 등급이 중요한 것과 같이 HSK 점수가 특기자들에게도 이러한 등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국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다문화센터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봉사 활동, 경복궁이나 명동과 같은 한국 관광 명소에서 통역 봉사 활동, 중국어 말하기 대회, 중국어 에세이 대회, 중국어 노래 대회, 중국어 공연, 중국어 PPT 발표 대회, 중국어 모의유엔 등 각 단체에서 인정하는 활동을 하거나 참여한 각종 대회에 대한 수상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는 중국어의 단순 회화 능력이 아니라 고급 표현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기술과 순간적인 대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필요로 한다.

셋째, 한·중의 사회, 경제, 정치, 외교 문화 등에서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고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대학입시 면접에서 중국어로 된 에세이를 제출하거나 심층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특히 다양한 문제를 중국어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기술을 갖춰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한층 높은 교양 수준을 보여야 특기로 인정받

을 수 있다.

이렇게 치열하게 본인의 실력을 입증해야 하지만 중국어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대학에서는 이들을 은근히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사이에는 입시방법에 따른 눈에 보이지 않는 서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서열 순위에서는 수능으로 입학한 학생이 라인의 맨 위에 있고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로 입학한 학생이며, 그 다음은 중국어 특기자를 포함한 특기자들이며, 그 다음이 특례로 입학한 학생이다. 그리고 서열의 마지막이 외국인이다. 이러한 입학 방식의 난이도에 따라 입학생들을 경시하는 경향이 형성된다. 이에 일부 특기자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자신이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나에게 중국어 특기자 입시 지도를 받고 대학 진학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해 왔던 학생들 중에는 중국어 특기자 전형을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못지않게 노력했기 때문에 편견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중국어 특기를 살려 '중국어 연극동아리', '중국어 통역동아리' 등을 하면서 활발한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이들은 남들의 시선과 편견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특기를 꾸준히 살리면서 졸업 후에는 원어민에 가까운 중국어 실력을 갖추어 타 학생들에 비해 일자리 찾기에 더 유리한 것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 환경을 경험한 덕분에 사회생활도 잘해 나가고 있다.

한편 2015학년에 대입간소화 정책으로 인해 정부는 대학에 제공하던 특기자에 대한 지원을 끊었고 이에 각 대학들은 중국어 특기자 선발을 서서히 줄였다. 이로 인해 최근 5년 이내에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학이 급증하였다. 즉, 입시제도가 수능 위주의 정시로 회귀함에 따라 중국어 특기자 선발 학생 수가 급감하여 혼선을 겪는 이들이 속출하였다.

특기자모집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 중 한국의 변화되는 입시제도에서 생겨난 특별한 집단인 중국어 특기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지금까지 내가 그 동안 지도한 학생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며 그들의 학

습 생애에 대해 호기심이 항상 있어 왔다. 학생들은 경험에 따라 중국어의 수준과 사고의 깊이 또한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들은 중국어 특기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중국어를 접하게 된 배경은 모두 달랐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학생들의 가정환경, 학교환경, 국외생활 등과 같은 다양한 성장환경과 교육환경이 있었다. 이는 학생에게 주어진 환경이 중요하면서도 학생 스스로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였는지, 또는 주변에서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키워 나갔는가에 따라 개개인의 역량이 모두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자인 나는 이런 학생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특기자들이 횡적으로 중국어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이며, '중국어'라는 특기로 대학을 준비하는 힘든 과정 중에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이며, 이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간 후에는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알고 싶어졌다. 이에 나는 중국어 교육과 그들의 생애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했다.

특히 학생들이 어떤 배경으로 중국어를 접하게 되었고, 중국어를 어떻게 특기로 계발시켰는지, 그 특기를 더욱 신장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학습 과정을 거쳤는지, 그 과정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self-identity)을 어떻게 확립했는지, 대학 입학 후에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하며 개인의 생애를 '성장'과 '변화'의 관점에서 교육인류학적 접근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2. 연구문제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은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이어진다. 이에 대입 특별전형 중국어 특기자의 학습 생애 연구에서는 교육인류학 관점으로 조망하고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교육인류학의 눈으로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

나는 오랜 경험으로 누구보다 중국어 특기자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내가 그 동안 깊이 보지 못했던 부분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과거 가르쳤던 학생 중 네 명을 연구의 주 참여자로 선정하여 질적 연구의 대표적 방법인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현지자료조사를 수행하였다.

다음과 같이 제시되는 연구문제를 통해 대입 특별전형 중국어 특기자의 학습 생애와 그 교육인류학적 의미를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 중국어 특기자가 된 배경과 학습과정은 어떠한가?

특기로 중국어를 삼은 이유는 정말 중국어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 시절 중국에 유학을 갔다 온 경우, 중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한국으로 중도입국 한 경우, 부모님 중 한 분이 중국인인 다문화 가정의 경우 등 살면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발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남들보다 중국어를 좀 더 일찍 접했거나 중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특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에 나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떤 시기에 어떠한 결정적 계기가 있었는지, 이 시기에 중국어가 특기로 된 배경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연구하고자 했다.

중국어 특기자 특별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마다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공부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들은 중국어를 특기로 만들기 위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특별전형에 필요한 중국어 실력을 준비하게 된다. 입시에서 요구하는 공인 외국어 시험 중 HSK에서 제일 높은 급의 높은 점을 취득해야 하고, 중국어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기본 소양을 학습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중국어로 에세이 면접을 통과해야만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량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높은 성적이 나와야 한다는 압박감, 주변의 기대와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내가 할 수 있을까'하는 자신에 대한 불신,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불안 등 다양한 감정들을 겪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학습 과정에서 어떠한 성장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했다. 아울러 중국어 특기자들은 중국어 특기자 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후,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며, 특기 활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생활과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이와 함께 중국어 특기가 중국어 특기자들에게 정체성 확립과 인생의 기회 등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둘째, 중국어 특기자 학습생애의 특징은 무엇인가?

중국어 특기자 전형의 경우 중국어를 할 줄 안다고 어학특기 입시제도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특기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어 특기자들이 중국어 학습과정에서 어떤 학습생애적인 특징이 있어서 중국어 실력이 향상했는지, Ⅳ장에서는 중국어 특기자 학습생애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셋째, 중국어 특기자들의 생애와 학습은 어떤 교육인류학적 의미를 가지는가?

이 연구는 대입 특별전형 중 중국어 특기자라는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집단에서 그들의 삶과 문화와 교육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중국어 특기자가 중국어를 통해 중국어학습을 심화하고 특히 중국어 특기자 전형 준비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위 연구 문제들을 살펴보기 위해 대입 특별전형 중국어 특기자의 학습생애에 담은 내용이 다루어질 Ⅲ장은 질적 연구의 기술에 해당된다. 그리고 중국어 특기자의 학습생애 특징이 다루어질 Ⅳ장은 질적 연구의 분석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해석에 해당하는 Ⅴ장에서는 중국어 특기자의 학습 생애와 교육인류학적 의미를 논의한다.

3. 연구방법과 절차

이번 연구는 대입 특별전형을 목표로 하는 중국어 특기자들의 학습 생애를 교육인류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조용환(2020a)은 질적 연구의 계획서에 연구방법을 제시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연구자가 선택한 현장과 참여자, 현장과 참여자의 선택 과정, 현장과 참여자의 동의 확보 여부, 현장에서 취하게 될 연구자의 위치 또는 역할, 자료 수집 및 분석의 구체적인 접근 방법, 연구 기간과 잠정적인 세부 일정 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하여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실제로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 참여자

연구 집단은 현재 중국어 특기자 제도를 통해 한국 국내에서 지명도가 있는 대학교 혹은 중국의 유명 대학교에 재학한 학생들로 선정했다. 연구 참여자의 사례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연구 주 참여자를 선정한 기준는 아래와 같다.

첫째, 중국어 특기자의 배경은 조기 유학, 중도입국, 한국에 있는 다문화 가정, 한국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여 각 부류에 해당되는 네 명의 연구 주 참여자를 선정했다.

둘째, 네 명의 연구 주 참여자는 모두 중국어 특기자 전형 준비를 통해 중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되어 중급 이상 수준으로 상승했다.

셋째, 네 명의 연구 주 참여자는 지금도 중국어 특기를 통해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면서 적극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 연구를 위해 선정된 네 명 연구 주 참여자의 특징이 아래와 같다.

나는 가훈를 고등학교 3학년일 때 만났다. 가훈은 대회에서 만난 선배의 추천을 받아서 나에게 연락을 했다. 가훈은 중국 유학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중국어를 배웠다. 특기자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훈이 나에게 준 인상은 중국에서 유학을 가지 않고도 이 정도의 중국어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 가훈은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었다. 같은 고3 학생이었지만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자신의 중심을 잘 잡고 돈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냈다.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시는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대인 관계 지수인 EQ도 뛰어났다. 나는 가훈의 대학 입시가 끝나고도 가훈과 연락을 계속했다. 가훈이 대학을 다니고, 휴학하고, 대만에 가서 한 학기 대학을 다니고, 연애하고, 한국에 돌아오고, 군에 입대하고, 제대하고, 복학하는 동안에도 꾸준히 연락을 했다. 가훈은 중국어 공부를 취미와 결합하여 재미있게 했다. 특히 중국어 특기자 시험은 가훈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데 큰 동력이 되었다.

나경은 초등학교 4~6학년 때까지 중국에서 2년 정도만 살다 와서 중국어를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었다. 한국에 들어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한 후 한국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나경은 한국에 들어와서도 검정고시 시험 준비를 제외하고는 HSK 시험 대비, 전화 중국어, 중국어 회화반 등을 통해 중국어를 계속 공부 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중국어 특기자 전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HSK 시험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나경이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만났는데 그때 나경의 중국어 실력은 특별전형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나경은 결국 삼수로 예진대학교에 진학했고, 나와 4년 동안 같이 중국어 특기자 전형 입시를 준비하면서 중국어 실력은 많이 향상되었다. 특히 고3 때부터 입시 준비를 위해 중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해 보기도 하고, 실패도 많이 경험했지만, 매 준비마다 작은 성공을 느꼈고 중국어 특기의 대한 자신감도 같이 높아졌다. 그 이후 말하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6개나 넘게 받았다. 게다가 말하기 대회를 하면서 본인이 무대에서 표현하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대학교 1학년 때에는 원어연극 동아리에서 여주인공 역할을 맡아 성공적인 무대도 보여줬다. 현재 나경은 예진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다은은 중국에서 태어났으며 중국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하는 학생이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재혼으로 한국에 미리 와 있던 엄마를 따라 중

도입국 했다. 중국에서 초등학교 때 공부도 잘 했으며 특히 어문관련 낭독과 작문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였다. 선생님은 다은의 낭독 재능을 발견하고 다은을 불러서 교재 녹음도 부탁하곤 했다. 이런 경험으로 다은이 스스로가 중국어에 대해 자신감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한국에 와서도 공부는 곧 잘 따라가는 편이었다. 다은의 꿈은 한중통역사이고 제일 가고 싶은 대학은 예진대였다. 고3 때부터 중국어 특기자 준비를 시작했지만 첫 해는 실패했다. 이후 다시 1년 동안 준비했고 결국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다. 다은은 처음에 자신의 중국어 실력에 대해 자신만만해 했지만, 특기자 준비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중국어 실력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자 노력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원어연극단, 중국어 봉사활동, 모의유엔 통역 등의 활동을 했다. 현재 예진대학교 3학년이지만 2021년 3월부터 휴학을 하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

라희는 어머니는 중국 사람이고 아버지는 한국 사람인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중국어로 된 동화책 등을 읽어주고, 방학 때는 중국 친척들을 만나러 가서 중국어의 말하기와 듣기는 잘 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읽기와 쓰기 방면은 부족했다. 초, 중, 고는 일반 학교를 다녀 한국 학생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고등학생 때부터 중국어 말하기 대회나 중국 문화 탐방활동에 참여했으며 3학년부터 중국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1년 동안 준비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읽기 쓰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최종적으로 한국 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나 대학 커리큘럼에서는 기초중국어부터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만 진행하여 지금은 한국 대학에 다니면서 동시에 중국대학 유학도 준비 중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주 참여자는 네 명이다. 네 명의 연구 주 참여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아래 <표 1>에 나와 있다.

<표 1> 연구의 주참여자 소개

이름	성별	나이	학력배경	특기자 준비 전	특징

				중국 거주 기간	
가훈	남	23	한국대학 중국언어문화학과 2학년	대학 교환학생 이전에는 중국 유학 경험 없었음	국내 중국어 습득
나경	여	23	한국대학 외교통상학과 3학년	초등학교 4~6학년을 중국에서 거주	조기 유학 경험
다은	여	24	한국대학 중국언어문화학과 3학년	중국의 중국가정에서 태어남 초등학교 6 학년 때 중도입국	중도 입국자
라희	여	20	한국대학 중국학과 1학년	방학 때 가끔 중국에 가는 정도	한국 다문화 가정

<표 1>에 표기된 연구 참여자들의 이름은 임의로 붙인 것이다. 나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 의사를 밝혀 줄 것을 요청하기에 앞서 연구자로서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연구 윤리에 대해 알려 주었다. 덧붙여 연구 논문에서 그들을 호칭할 때 가명을 사용할 거라고 알려 주었다.

2) 연구 과정

연구자인 나는 2019년 3월부터 대학원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공부를 하면할수록 인류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게다가 나는 사범대 출신으로 대학에서부터 '교육'과 인연을 맺어 지금까지 20년 넘게 교육 분야에 재직하고 있어 교육인류학 전공이 나와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학기 중에는 내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많아 중도입국자, 한중 자녀 교육 등을 주제로 학기 과제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석사 연구 주제를 결정할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수많은 고민 끝에 내가 그 동안 가장 가까이서 보고 함께했던 중국어 특기자에 대해 교육인류학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로 했다.

그러다가 2020년 9월부터 과거에 가르쳤던 학생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17명 학생을 인터뷰했다. 인터뷰는 학생들이 어떻게 중국어 특기자의 길을 선택했는지, 입시 준비할 때 힘든 점이 무엇이었는지, 성취감을 느낀 적이 있었는지, 대학 입학 후 어떤 특별한 활동들이 하는지 등과 같이 학생들의 학습 생애에 대해 중국어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후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공유했다.

이 인터뷰를 통해 나는 학생들이 어떤 이유와 방법으로 중국어 특기를 향상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더욱 큰 호기심이 생겼다. 아울러 오랜 시간 함께 했기에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오히려 잘 알지 못했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이 연구의 과정별 진행 계획은 <표 2>과 같다.

<표 2> 연구과정

	2020.1-2020.9	2005.1-2021.6	2021.1-2021.3	2021.1-2021.4	2021.4-2021.6	2020.9-2021.7	2021.7-2021.12
연구주제 선정	→						
예비조사		→					
논문자격 시험 준비			→				
연구참여자 선정				→			
논문계획서 발표 준비					→		
자료 구성 및 코딩						→	
분석 및 글쓰기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입 특별전형 중국어 특기자의 학습 생애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이에 각기 다른 상황과 경험을 가진 '중국어 특기자'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기를 어떻게 종적인 의미로 수준을 끌어올렸고 그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 방법보다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생애사 접근을 선택하여 대입 특별전형 중국어 특기자의 학습 생애를 밝혀보았다.

이 연구는 특정한 방법 하나만을 택하기보다는 질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세 가지 방법(3Es), 즉 참여 관찰(Experiencing: participant observation)과 심층면담(Enquiring: in-depth interview)과 현지자료조사(Examinging: field material analysis)를 사용하였다(조용환, 2012a: 3). 나는 연구 참여자들의 허락을 받아 그들의 학원 및 학교, 생활하는 공간에 직접 가서 질적 연구의 참여 관찰, 심층면담, 현지자료조사를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 관찰은 글자 그대로 연구자가 특정 관심 집단의 일상 세계에 비교적 장기간 참여하여 그들의 삶과 문화를 관찰, 기록, 이해,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와 관찰은 서로 적절한 배합이 요구되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닌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가 구성한 자료가 의미 있는 '살아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나는 중국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일 년 중 10개월 이상을 같이 공부하는 생활을 하면서 이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왔다.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중국어 공부를 이끌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일상을 참여 관찰하면서 중국어 특기자들의 삶과 문화에 특별한 부분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예를 들어, 한국 문화는 나이를 중시하고 나이 차이로 예의를 따지고 서열을 강조하지만 중국어를 배우면 나이와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중국 문화를 더 편하게 느낀다. 그래서 이들은 동갑내기 친구뿐 아니라 나이 차이가 있어도 친구의 범위를 더 넓게 허용한다.

언어, 사유, 세계관과 문화생태계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지만 서로 영

향을 미치며, 상호작용이 상대적 독립성보다 활씬 크다는 것을 증명한다. 언어는 문화의 거울이자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그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어 특기자를 대하며 이들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고 때로는 일반 학생보다 중국어 특기자를 지도할 때가 더 수월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물론 중국어 특기자 개개인마다 특성도 다르고 이해도 다르다. 그래서 면담을 통해 개인의 고민을 들어 주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둘째, 심층면담은 역시 참여 관찰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참여 관찰의 과정에서 중국어 특기자들의 삶과 문화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들을 가지고, 관찰의 현장에서 그 의문들을 심층면담의 형태로 풀어 나가고자 했다. 그래서 매주 중국어 특기자 준비 수업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관찰했다. 특히 연구 주참여자 가훈(가명, 18년도 중국어 특기자를 통해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한 학생), 나경(가명, 19년도 중국어 특기자를 통해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한 학생), 다은(가명, 19년도 중국어 특기자를 통해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한 학생), 라희(가명, 20년도 중국어 특기자를 통해 한국 내 대학에 입학한 학생)를 별도로 주 1회 이상 심층면담을 하였다.

심층면담을 할 때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의 중국어 특기자의 학습 생애 중 중국어를 접하게 된 배경, 특별전형을 위한 학습 중 겪은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경험, 좌절하거나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중국어를 자기만의 특기로 신장시킨 과정을 깊게 살펴보았다.

셋째, 참여 관찰 및 심층면담과 함께 수행되는 현지자료조사는 수업자료, 수업일지, 자기보고서, 연구 참여자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 연구 참여자들이 제공하는 사진과 현지 사진 등 연구 참여자들의 종적인 의미로 중국어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현장의 모든 자료를 가능한 선에서 구성하였다. 또한 현지자료는 연구자인 내가 작성하는 관찰 기록지, 면담 기록지, 사진 자료 등의 모든 연관성 높은 자료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연구 참여자들한테 중국어를 여러 단계를 거쳐 학습했었을 때 그들이 공

부 했었던 중국어 공부 자료들을 보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고 연구 참여자의 SNS를 보았으며 연구 참여자한테 부탁해서 연구 참여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중국어 학습 생애 이야기를 자기 보고서로 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질적 연구는 현상에 대한 설명보다는 깊은 이해를 추구한다. 따라서 질적 글쓰기는 연구현장에서 내가 본 중국어 특기자들의 학습 생애를 나의 언어나 학술적인 언어로 섣불리 바꾸지 않고 최대한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기술함으로써 이해를 공유하고자 했다. 또한 질적 연구에서 글쓰기는 결코 마지막 작업이 아니다. 연구를 시작할 때 연구 중간 중간에, 그리고 연구를 마무리할 때 모두 글쓰기가 필요하다. 질적 연구에서의 글쓰기는 결과를 보고하는 기능 못지않게 '질문을 위한 글쓰기'를 지향하기 때문이다(조용환, 2011a).

코딩이란 자료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여 부분에서 전체에 이르는 단위별로 의미의 체계를 부여함으로써 질적 분석과 해석을 가능하게 해 주는 기초적인 작업이다(조용환, 2013). 연구자인 나는 참여 관찰과 면담을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받고 녹음한 뒤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전사하여 자료화할 것이고 참여 관찰과 면담 후에는 회상일지도 작성했다.

이렇게 구성된 자료들을 연구 참여자의 관심/ 언어/ 논리에 따른 '에믹 코드'와 연구자의 관심/ 언어/ 논리에 따른 '에틱 코드' 두 시스템으로 나누어서 코딩을 시도했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의 에믹한 언어들을 코딩한 뒤, 이를 해석할 수 있는 학술적 관점을 담은 에틱한 언어들과 함께 구조화했다. 이 과정을 통해 그 두 코드체제의 특성과 차이점을 주목하여 살펴보고, '열린 창의적인 분석'으로 수행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중국어 학습 생애에서의 다양한 그들의 성장과 변화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코딩 작업을 거친 후 현장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독자들과 가장 잘 공유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해석 작업도 함께 수행했다.

본 연구를 위해 구성한 자료에는 대입 특별 전형 중국어 특기자들의 개인적인 자료가 많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연구가 개인적 기술에 머

무른 것은 아니다. 조용환(1999)은 질적 연구에서는 수집된 개인적인 자료를 사회문화적 구조 속에 비춰서 분석과 해석을 함으로써 '상호주관적' 연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사회문화적 '상호주관성'은 결코 개인적인 것 또는 사적인 것이라 해도 그 자료가 연구 참여자가 살아 온 사회문화적 환경에 있는 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역으로 사회문화적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분석은 내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는 과정이며 해석은 내 연구의 성과를 정리한 다음 독자에게 설명해 주고 공유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의 핵심 문제인 중국어 특기자의 학습 생애를 미시적-거시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그 특수성과 일반성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어 특기자가 처한 소상황과 대상황을 '연관적 맥락' 속에서 구분하여 살펴보고 그 두 상황을 매개하는 상황을 찾아 분석했다.

4. 연구의 범위와 한계

중국어를 학습하는 사람은 많지만 입시 전형으로 중국어 특기자를 선택하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므로 연구 대상은 제한된 유형이고 그 안의 특기자 지원자들마다 다양한 편차가 있다. 어떤 학생은 중국 유학 경험이 없음에도 중국어를 잘 하여 중국어 특기자로 진학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어떤 학생은 중국에서 7~8년 동안 살았지만 중국어가 서툴고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 어떤 학생은 이중 언어 환경에서 생활했지만 중국어와 한국어에 모두 부진한 학생도 있으며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영어에도 능통한 학생도 있다. 이처럼 학생들은 경험에 따라 중국어의 수준과 사고의 깊이 또한 매우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대조 분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중국어를 접하게 된 상황별로 네 명의 연구 주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에 나는 한국 일반 입시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들이 중국어의

재능과 흥미를 찾게 되고 중국어 특기자의 길을 통해 자기효능감, 자신감을 찾아 작은 성공을 통해 삶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변화된 경우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중국어나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지 않았던 사례는 이 연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에서 다룰 현장의 범위는 주로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빈빈학원과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교이다. 학원의 경우는 참여자들 대부분이 고3 시절에 내가 있는 빈빈학원에서 수강하여 입시를 준비했었기에 현재 시점이 아닌 과거 시점으로 보았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 생활은 현재 시점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까지 중국어 특기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현장이 많이 중단되었으며 작년부터 많은 중국어 말하기 대회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다. 이에 학생들이 그동안 참여했던 중국어 전문 동아리나 발표회 같은 현장의 범위는 좁아졌다.

연구에 할애할 시간은 기본적으로 18년 동안에 걸친 긴 참여관찰이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연구 참여자와 심층면담 등을 통해서 이번 연구 주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의 허락을 받아 그들의 학원 및 학교, 생활하는 공간에 직접 가서 질적 연구의 참여 관찰을 실천하였다. 하지만 연구의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상황을 고려해서 참여 관찰도 중요하지만 심층면담과 현지자료조사의 방법으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는 제도의 영향을 받고 제도는 사람의 생애에 영향을 준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어 특기자들을 봐 왔고, 정부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으로 벌써 네 번이나 바뀌었다. 이 역사 속에서 교육 제도, 입시제도, 중국어 특기자에 관한 제도도 많이 변화했다. 아울러 수시로 바뀌는 교육 정책과 입시에 따라 특기자 준비자들이 모두 제도별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혼자 일일이 연구하기에는 여건과 역량에 따른 한계가 있었다.

이외에도 이번 연구에 있어 내가 예상하지 못한 한계가 많을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이 연구는 ‘대입 특별전형 중국어 특기자의 학습 생애 연구’이기에 대입제도, 특기자, 학습, 생애 등의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인 관련을 갖는다. 이론적 배경에서 아래에 세 가지 내용에 집중했다. 첫째, 중국어 특기자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둘째, 이 연구의 주 참여자인 ‘중국어 특기자’들이 중국어를 접하게 된 배경과 그들의 학습 경로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본 연구 내용인 ‘대입 특별전형 중국어 특기자의 학습 생애 연구’에서 선행 연구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1. 중국어 특기자 제도

‘특기자’에 대해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는 ‘어떤 분야에서 남보다 더 두드러진 특별한 재주를 지닌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남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특기자’를 누구나 나름대로 소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기본으로 삼고, 특기자를 ‘횡적인 의미의 특기자’로 보면 횡적인 의미의 특기자의 종류는 더욱 다양해진다. 반면에 사람이 어떤 분야나 영역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소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되, 그 수준의 차이만 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예컨대 피아노 연주에 소질을 가진 특기자들이 많이 있다면, 그들 사이에 수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종류의 특기자를 ‘종적인 의미의 특기자’라고 하면, 종적인 의미의 특기자는 수준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발달할수록 세분화될 수 있다(백순근, 1999). 이러한 기준을 중국어 특기자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어 특기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어를 접하게 되어 다른 분야보다 중국어에 대한 능력과 소질이 더 있는 자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중국으로 조기 유학을 다녀온 경우도 있고 중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귀화한 중도입국한 경우도 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중국 사람인 다문화 가정의 경우도 많다. 또는 국내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다 흥미를 느껴 스스로 실력을 높이거나 국내의 화교학교진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어를 습득하게 된 배경을 가진 이들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횡적인 의미의 특기자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종적인 의미의 특기자는 대표적으로 대학입시전형 중 특별전형의 '특기자 전형'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특기자 전형'은 다양한 재능, 적성을 갖춘 학생을 발굴하기 위해 2002학년도 대입제도에서부터 대학 및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는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어떤 한 분야에서 특기와 적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대학마다 어느 수준 이상의 요건을 제시하는데, 종적인 의미의 중국어 특기자는 이런 입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각 대학이 요구하는 수준을 갖춘 자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어 특기자를 '대입 특별전형'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서는 '특기자'를 "특정 과목에서 뛰어난 학생"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중요시 한 대학입시제도의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전의 입시제도에서는 한 분야에만 심취하고 다른 분야에 관심을 두지 못한 학생은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지만 특별전형이 확대되면서 모든 과목에서 뛰어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에 중국어 특기자 전형의 경우는 중국어에 재능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중국어 실력만으로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이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각 대학의 경우는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여 양성할 수 있게 하는

취지에 기인한다.

중국어 특기자 전형은 2010년 전국 77개 대학, 서울 소재 23개 대학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특기자 전형에 대한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2013년 이후 정부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의 확대를 권고하였고 대학이 이를 이행하는지에 따라 재정 지원 사업의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이에 각 대학은 특기자 선발을 서서히 줄였고, 최근 5년 이내 폐지하는 대학이 급증하였다. 2020년 9월에 발표한 각 대학 2022년도 입시요강 초안에 따르면 중국어 특기자 전형의 경우는 전국 11개, 서울 3개 대학으로 줄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로 인해 중국어 특기 하나로 대학에 들어갈 기회는 크게 줄어든 상황이 되었다.

2. 중국어 특기자의 중국어 학습 경로

중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많지만 중국어 특기자라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한 한국 사람들에게 영어 학습은 필수이지만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그 정도로 많지는 않다. 이에 중국어 특기자가 중국어를 선택한 시기는 보통 성인이 되기 전이며 개인의 의지보다 가정환경, 부모의 결정 등 타인과 환경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 이처럼 학습 생애 관점에서 중국어를 습득한 학생은 조기유학을 다녀 온 경우, 중도입국 청소년인 경우, 한국에서 외국어를 공부한 경우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지금부터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한 중국어 특기자의 중국어 학습 경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1) 조기유학을 다녀 온 경우

교육은 목적, 내용, 방법, 제도, 여건 등에 걸쳐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즉, 문화에 따라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의 상이 달라지며 어떤 교육이 좋은 교육인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조용환, 2012) 따라서 외국어를 배우기 위한 조기유학의 가장 큰 장점은 외국의 문화 배경 속에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며 동시에 두 문화를 배울 때 다문화 시각을 가지고 각 문화마다의 해석과 실천 방식이 있다는 것이다(조용환, 2020).

조기유학이란 '초·중·고등학교 단계의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입학 혹은 재학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나가 현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기유학을 사유별로 나누면 인정유학, 미인정유학, 자비유학, 파견동행, 해외 이주로 구분할 수 있다(김경준, 2015; 김홍원, 2006에서 재인용). 또한 동기별로는 자발성과 비자발성으로, 형태별로는 가족동행과 나 홀로 유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이러한 형태는 가족과 동행하면서 비자발성, 나 홀로이면서 자발성 유학, 가족과 동행하면서 자발성, 나 홀로이면서 비자발성의 총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조기유학의 동기와 형태

조기유학		가족 동행 여부 (형태)	
		O	X
자발성 여부 (동기)	O	1	2
	X	3	4

첫 번째 유형은 가족과 동행하면서 자발성 유학이다. 윤종일(2016)은 자발적인 의지와 동기를 갖고 유학을 가거나 부모가 동반하여 양육하고 보호, 지도 감독을 한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유학 전 사전 준비 정도는 좋은 공부 환경과 좋은 학교 시설에 대한 만족도, 자신에 대한 만족도, 부모와 친구, 교사와 관계 만족도, 자아개념, 유학 후의 적응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윤종희, 2006). 또한 유학 준비를 많이 할수록 유학 후 학교 적응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인숙, 2008; 이강이, 2006에서 재인용). 이처럼 자발적인 조기유학은 성공의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나 홀로이면서 자발성 유학이다. 조기유학자들은 이러한 형태는 자신 의지 체계인 가족과 분리된 채로 청소년기 발달 과정 과업 중 하나인 자아를 형성해야 하고, 낯선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하지만(송민경 외, 2011), 이 과정에서 자발적 동기를 가진 조기유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환경을 적응하려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오히려 문제 해결하는 능력과 외국어 역량을 보다 빨리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가족과 동행하면서 비자발성 유학이다. 조기유학은 부모의 직장이나 유학, 부모의 가치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학생들은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통보 받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어린 나이에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불안 상태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생들은 유학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윤종일, 2016). 이처럼 비자발적으로 유학을 온 경우는 유학에 대한 동기나 목표, 자기 의지 없이 유학을 왔기 때문에 유학의 의미를 찾기 어려웠으며 다행히 유학의 목표를 찾게 되어도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었고 심리적인 갈등도 크다(윤종일, 2016). 그러나 가족이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모국어와 모국 문화도 같이 유지할 수 있다.

네 번째 유형은 나 홀로이면서 비자발성 유학이다. 학생들은 '무관심 속에서도 도전을 통해 성공과 갈등을 겪고 나아감'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존재감 상실', '유학에 대한 준비 부족', '의욕 상실', '가치관 혼란', '지지', '호스트 가족과의 갈등' 도 함께 경험한다. 특히 가족의 불화나 이혼을 회피하기 위한 도피성인 경우 부모 양쪽에게 버림받았다는 좌절감으로 인해 일탈 행위를 하기도 한다(윤종일, 2016).

이처럼 조기 유학생들은 '도전'과 '회피' 속에서 '성취', '현실 도피', '갈등' 등을 겪기도 하며(강희숙 외, 2010), 어울림의 적응 단계에 도달하기 전 압도됨, 거리 둠, 깨달음, 그리고 다가감의 단계를

경험하기도 한다(김현주 외, 2008). 또한 나 홀로 조기 유학하는 학생들은 좌절을 느끼고 사춘기의 경우에는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여 친구들, 경험들, 삶의 방식을 잃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애도감”을 느끼기도 한다(Butcher, 2002).

이처럼 언어는 현지에 가기만 하면, 현지에서 생활만 한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외국어를 좀 더 빨리 익힐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함으로, 혹은 앞으로의 중국과의 관계가 더 유망하다는 이유로, 비싼 사교육비 대신 유학으로, 혹은 현 입시제도에 학업 성적이 낮아 도피성으로 보내진 성장기의 아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채 낯선 환경에 놓여서 심리적 혼란을 느낀다. 아울러 자기 개념이 자리 잡히지 않아 온전히 자율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워한다. 또한 스스로를 제어하는 힘이 부족하고 자신과 맞는 멘토를 찾기 힘들어 현지 집단 속에서 상호작용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언어라는 역량을 고급화시키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교사의 격려와 학습자 개인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90년대에 접어들어 대졸 출신의 학부모가 등장하면서 교육열은 더 높아졌으며 해외여행의 자율화로 인해 조기 교육 붐이 일었다(강창동, 2020). 교육통계서비스 KESS 주요 지표인 ‘연도별 학생 만 명 당 유학생 현황 2001년~2019년’에 따르면 2004년부터 급증했던 초·중·고등학생 조기유학자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풀 꺾여 지금까지 하락 추세를 이어가며 조기유학 열풍이 잦아들고 있다고 했다. 특히, 2017년 사드배치의 영향으로 중국으로 가는 학생 수가 현저히 감소했고, 유학 중인 학생들도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경제적인 이유, 국제 정서적인 이유, 진로 및 취업 등의 이유로 다시 귀국한 학생들은 대학 진학 이전과 현지 대학 졸업 이후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대학 진학 이전에 귀국한 학생들은 본인의 행동과 가치 기준이 한국적인 정서와는 맞지 않아 학교생활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틀에 박힌 정형화된 학교생활에 답답함을 느끼고

학교문화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일반학생들과 사고방식과 언행의 미묘한 차이로 함께 어울려 지내기는 하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함께 담임교사와 갈등과 의견충돌을 빚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담임교사는 유학을 다녀오는 학생의 진로에 대한 경험 부족과 과중한 업무 부담, 조기유학을 경험하고 귀국한 학생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학교 당국의 무관심으로 해당 학생이 자신의 학급에 입학을 하거나 편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다(윤종일, 2016).

이처럼 대학 진학 이전에 귀국한 학생들은 수년간의 외국 생활로 인해 한국에서의 문화적 충격뿐만 아니라 귀국 후 국내 학교에 다니면서 언어, 교육환경, 생활태도 등에 있어 큰 혼란을 겪었다. 또한 이들은 같은 인종, 종족으로 피부색도 같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문화적 충격은 축소 평가되었다(김지영, 2013).

다음으로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한 학생들은 한국 취업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유학 동안 습득된 외국식의 생활 방식은 한국의 직장생활에 방해가 되기도 했고 한국 사회 속의 제한적인 관계망도 취업이나 사회적 성공의 방해 요소가 되었다(송민경 외, 2011).

2)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2)에 따르면 중도입국청소년이란 '일반적으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온 경우와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한국으로 입국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교육부(2020)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인구의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으며, 행정안전부(2019) 조사 결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약200만 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행정안전부(2019)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국내 총 주민등록인구의 4%를 차지하였고,

그 중 다문화 학생 비율에서 중도입국 학생의 경우는 6.2%를 차지한 학생은 9,151명이라고 했다.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문화는 사람들의 온 몸과 마음에 배어들기 때문에(조용환, 2020) 그 문화의 영향을 벗어나기가 힘들다. 대표적으로 중도입국자가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에 살고,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은 아직 원래 살던 나라의 문화 속에 있다. 특히 이들은 자의보다는 타의로 한국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의 교육과 자아형성과 문화적인 방면에서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것이 언어 장벽이다. 언어의 장벽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들의 학교생활, 진로, 정서,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었다(국수연, 2019). 구체적으로 이들은 학교생활 적응 과정에서 학교생활을 돌봐 줄 사람이 없고, 한국어의 부족으로 스스로 숙제나 준비물을 챙기는 데 한계가 있음을 느껴 매우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며 사회적 편견을 스스로 인식함에 따라 소외감이나 고립감, 차별감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박늘봄, 2013). 이러한 문제는 결국 훗날 성인이 되어서의 사회 부적응과도 이어진다.

또한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2012)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면서 정체성의 변화를 겪어야 하고, 새로운 언어·문화에도 적응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곧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화정체성의 정도가 자존감, 학업 성취 및 학교생활 등 다양한 심리적 안녕 지표와 일관되게 정적 관계가 있다고 했다(이현주 외, 2010).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경우 높은 비율이 재혼가정의 동반 자녀로 파악되는데 이들의 경우 가족 해체나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새로운 가족의 구성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밖으로 겉돌기도 하며 일반 청소년들과는 다른 불리한 가정환경을 지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잦은 이동,

출신국 방문, 부모와의 소통의 어려움, 교육 공백,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과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어 배우는 것도 시급하지만 한국에 입국이 늦을수록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 한국정체성을 습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한국에서 언어 특기자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모국어였던 중국어를 잘 하는 것으로 자신감을 찾기도 한다. 즉, 특기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배우고 문화 비교, 사회 비교 등을 배운다면 두 나라를 연결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에서 중국어를 공부한 경우

국내에서 중국어 특기자를 목표로 공부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다문화가정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중국인인 경우이다. 이처럼 국내에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경우와 다문화 가정의 경우는 부모가 자녀한테 이중의 언어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기유학과 중도입국 대비 언어 환경 변화가 적은 것에 비해 자녀는 언어획득 방식과 획득과정에서 부모의 신념과 태도, 경제적 지위에 따라 언어 사용 형태의 강한 영향을 받는다(deHouwer 1999; Yamamoto 2001).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고, 사회적 계층이 노동자의 경우일수록 원문화를 상실하는 경우가 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풍부하고 정확한 언어 자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강영지, 2016).

이에 다문화 정책으로 이민자들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언어를 함께 배우도록 하는 이중 언어교육을 실시하여 쌍방향 문화교류 관점에서 이루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상당수가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중 언어 구사 능력을 배양하는 일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부모들과

완전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서 발달이나 심리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방향은 학력 신장, 자신감 고취, 창의력 발달, 이중 언어 구사 능력 배양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하에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김선정, 2010).

국내에서 중국어 특기자를 목표로 공부하는 또 다른 경우는 중국어에 대한 흥미 및 호기심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한국인이지만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경우이다. 물론 내국인이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조건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이지만 일부는 편법을 쓰면서까지 아이를 외국인 학교에 보내기도 한다. 그 중 중국어 위주의 외국인 학교는 화교학교가 특징인데 화교학교의 중·고등학교는 정식 허가를 받은 학교로 인정받지 않아 졸업 시 검정고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초등학교 때 화교 학교로 진학했다가 중도에 다시 일반 학교로 전학 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화교학교에 진학한 경우 다시 일반 학교로 전학 오면 그동안 익혔던 중국어 실력이 약해지고, 한국 학교에 대한 적응력을 필요로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3. 선행 연구 개관

‘특기자’와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면, 중국어 방면에서 ‘중국어 특기자의 학습 생애 연구’를 총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질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키워드를 ‘특기자’로 해서 관련 연구를 찾아보면 90% 이상이 체육 특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2000년도 이전에 발표된 연구에는 가끔 과학 특기자, 수학 특기자에 관한 논문이 보이는데 2005년 이후에는 거의 체육 특기자를 중심으로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기자에 대한 연구 중 특기와 제도의 연관성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연관성을 보이는지, 각 다른 분야의 특기자들의 생애사 연구와 사례연구 등을 보이는지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입 특별전형 중국어 특기자의 학습 생애”에

집중하고자 다음의 선행 연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생애사 연구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박기동(2014)은 체육 특기자를 대상으로, 김동기(2004)는 세미프로 골프지도자를 대상으로 생애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엄채윤 외(2009)는 외국어 능력 계발 과정에서 나타난 학습 전략 및 기제를 분석하는 논문과 한상만(2013)은 의사의 전문성 발달과정 대한 연구를 살펴보며 한 분야에서 전문성 발달 과정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수경(2018)의 홍콩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이후 한국으로 유학을 온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학습생애사적 관점으로 고찰했다.

다음으로 생애사보다 더 큰 범위인 질적 연구를 살펴보았다. 김영천(2005)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원의 교육과정과 수업의 특징을 연구하는 질적 연구와 정다혜(2019)는 고등학생 성취목표가 외국어 학습동기 유지전략을 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외국어 학습을 관련되 이해를 더 하였다.

다음은 대학 입시제도에 관한 연구 중 중국어 특기자 전형에 관한 논문은 2010년에 단 한 편만 있었다. 박여진(2010)은 중국어 특기자전형에 대한 전형방법 및 전형 요소의 활용,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외에 영어특기자제도 (박상복 외, 2013), 체육 특기자제도 (한승백 외, 2017)에 관한 논문과 한국의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변천과정 및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논문이 있었다. 그리고 정영수 외(2007)는 해외 대학입학제도 실태를 조사하였다. 유연규(2020)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언어 말하기 학습전략 이용 실태를 알아보았고 그들의 자아 존중감 및 사회성과는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논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박기동(2014)은 체육 특기자를 구술 생애사로 연구하였다. 과학적 방법이라 하더라도 사회 과학적인 심층 면담을 지양하고, 인류학적 방법인 인터뷰를 통하여 생애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김동기(2004)는 세미프로 골프지도자를 대상으로 생애사에 관한

연구를 했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가 골프지도자로 되기까지의 배경요인은 무엇이며, 골프지도자가 된 이후에 생활과 문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골프지도자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골프지도자의 자기 정체성 형성과정을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보고 문화 요소 간의 역동적인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해석의 시도를 하였다. 더불어 골프지도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그들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 자신의 생활과 행동을 규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내적기제 등을 살펴보고자 했다. 골프지도자들이 학습 과정을 거치면서 겪게 되는 자기 정체성 형성 과정이 현재 중국어 특기자들의 학습 생애와 비슷한 경험을 겪는 것으로 도출하였다.

엄채윤 외(2009)는 한 중학생의 외국어 능력 계발 과정에서 나타난 학습 전략 및 기제를 분석했다. 4개 국어를 구사하게 된 한 중학생의 사례를 토대로, 능력이 계발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 기여한 전략 및 기제를 발견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만 15세 중학생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중국어를 구사하게 된 학습자이다. 연구 자료는 사례연구 프로토콜에 맞추어 수집되었으며, 다수의 면담 자료와 사례가 소개되었던 신문기사 및 방송자료, 사진이 연구 자료로 활용되었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해석적 접근과 근거이론에서 제시된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적 코딩 방법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특히 연구 참여자의 능력 계발 과정에 기여한 중요한 생애 사건을 추출했다. 자료 분석 결과, 흥미 단계 - 입문 단계 - 수직적 심화 단계 - 수평적 심화 단계의 4단계 능력 계발 과정이 발견되었다. 4단계의 능력 계발 과정의 생애 사건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의 결과는 한 개인의 능력 계발 과정을 확인하는 데 있어 다양한 생애 사건을 확인하는 것이 유용하며, 능력이 계발되는 각 시점에서 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한상만(2013)은 경험학습을 통한 名醫의 전문성 발달 과정 대해 연구했으며 생애사적 관점에서 명의의 경험학습을 통한 전문성

발달과정을 분석하여 인적자원개발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명의의 전문성 발달 과정과 경험 학습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애 주요 사건을 활용하였다.

이수경(2018)은 홍콩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이후 한국으로 유학을 온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학습생애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 같은 홍콩출신 한국어 학습자의 사례를 바탕으로 그들이 경험한 한국어 학습과정의 의미를 구조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홍콩에서 유학 온 한국어 학습자의 홍콩에서의 한국어 학습경험은 어떠한가, 홍콩에서 유학 온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에서의 한국어 및 전공학습은 어떠한가, 홍콩에서 유학 온 한국어 학습자의 두 지역에서 학습경험은 생애과정에서 어떻게 의미화 되는 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또 다른 도움이 되는 질적 연구가 있다. 김영천(2005)은 한국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들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그 교육과정과 수업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나아가 네 명의 초등학생들을 선정하여 이 학생들이 일 년간에 걸쳐서 학원에서 어떤 학습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수업을 받는지를 기술하였고 학원경험이 이들에게 어떤 교육적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각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의 특징, 학생들의 개인적 배경, 학원 수업의 경험들을 설명하였고 나아가 학원에서의 교육이 이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그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생애사 분석을 통하여 한국 초등학교 네 명의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 목적에 맞게 학원을 선택하여 공부하고 있었으며 학원교육이 그들에게 교육적인 의미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외국어 학습에 관한 연구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다혜(2019)는 고등학생의 성취목표가 외국어 학습동기 유지전략을 매개하여 영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과 구조적 관계를 확인했다.

대학 입시제도 면에서 박여진(2010)은 중국어 특기자전형에 대한 전형방법 및 전형 요소의 활용, 설문조사의 결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어특기자전형의 실태를 파악한 후,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박상복 외(2013)는 대입 영어특기자제도 대해서 대입 영어 특기자 전형절차를 효과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과, 지원자 및 대학입시 정보 등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했다.

한승백 외(2017)는 체육 특기자를 특기자 제도 면에서 논의 했다. 체육 특기자 제도는 한국에서 스포츠 수행의 경험과 풍경을 만드는 주요한 사회 제도이며, 그 영향 아래 놓인 개인은 유년기부터 '제도적' 경험을 하고, 개인들의 제도적 실천은 다시 국제대회, 스포츠 참여의 양극화와 같은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논했다. 또한 이러한 경험과 현상들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기회와 제약에 의한 사회적 결과라는 점에서, 특기자 제도의 구성과 성격 파악은 한국의 스포츠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손충기(2003)는 한국의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변천과정 및 발전방향을 탐색하였다. 대학입시 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수시모집으로 합격한 학생과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이 한 교실에 혼재하게 됨으로써 고교교육의 비정상성을 초래하였으며, 고등학교 교사들의 학생 진학 및 진로 지도 업무가 폭주하게 되었다. 둘째,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내용과 추천서, 학업이수계획서 내용 등의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셋째, 특정 교과목이나 특기분야에만 치중하고 나머지 교과 혹은 소질 개발 분야를 포기하거나 소홀히 하는 학생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혜영 외(2008)는 한국의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변천과정 및 발전 방향을 탐색하였다. 그러면서 대학입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첫째, 대학은 수능 점수 등 주로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지표에 의존해 학생들을 선발해 왔다. 둘째, 내신이나 논술 등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계량화에 급급한 나머지 고차원적인 능력이나 잠재력을 찾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등을 지적하였다.

정영수 외(2007)는 해외 대학입학제도 실태를 조사하였다. 연구자는 대학입시 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등급을

점수화해 전형요소로 활용하고, 반영 비율도 여전히 높고, 수능을 지원자격화 하면 내신·논술 우수자라 하더라도 지원원서도 제출하지도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학생생활기록부, 수능, 대학별 고사(논술, 심층면접, 서류전형 등), 개인별 특기 등 여러 전형자료를 점수화하고 이를 단순히 총점 서열 순으로 선발하여 지난 수십 년간 대입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 셋째, 대학별 고사 중 하나인 논술의 비중이 확대되어 학생들이 논술고사 준비를 위한 과도한 사교육이 나타나고, 공교육의 정상화가 저해될 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유연규(2020)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언어 말하기 학습전략 이용 실태를 알아보고, 그것이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관한 신념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그들의 자아 존중감 및 사회성과는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체육 특기자들에 관한 '양적' 그리고 '질적' 연구가 많지만 언어 특기자들의 연구는 매우 미비하며 통계 수치도 정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중국어 특기자들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중국어 특기자 전형을 통한 언어 역량 향상에 관한 연구는 학교생활 적응 관련 연구의 일부 내용으로 거론되고 있을 뿐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욱이 중국어 특기자 관련한 논문으로 박여진이 2010년에 쓴 석사학위논문이 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중국어 특기자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중국어 특기자가 중국어 특기로 만든 생애를 확인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Ⅲ. 중국어 특기자의 삶과 중국어 학습

나는 연구 주 참여자들에게 '중국어는 나의...이다.'라는 이 문장을 주고 완성하게 했다. 그 결과 네 명에게서 각각 다른 답변이 나왔다. 각 인물을 중심으로 중국어 특기자의 삶과 중국어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살펴보았다.

1. 가훈: 중국어는 나의 "새로운 기회"이다.

나는 가훈이 고등학교 3학년일 때 만났다. 가훈은 특기자 입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대회에서 만난 선배의 추천을 받아 나에게 연락을 해 왔다. 가훈은 중국으로 유학을 가지 않고 국내에서 중국어를 배웠다. 가훈이 나에게 준 첫 인상은 중국으로 유학을 가지 않고도 이 정도 수준의 중국어 실력을 갖추었다는 것이 놀라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훈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었다. 다른 고3 학생들에 비해서 자신의 중심을 잘 잡고 돈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냈다.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시는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대인 관계도 좋았다.

나는 가훈의 대학 입시가 끝난 후에도 가훈과 연락을 계속했다. 가훈은 대학에 다니고, 휴학하고, 대만에서 한 학기 동안 대학에 다니고, 연애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군대를 가고, 제대하고, 복학하는 동안에 꾸준히 연락을 이어갔다. 가훈은 중국어 공부를 취미와 결합하여 재미있게 해 왔다. 중국어 특기자 시험은 가훈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데 큰 동력이 되었다.

가훈은 어렸을 때부터 가게를 운영하시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나며 중국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특히 가게를 운영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가훈은 사회성을 자연스럽게 익혔고 이

러한 환경에서 훈련된 가훈의 사회성은 이후 중국어를 학습하는 데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가훈 다음 세 가지의 중대한 사건을 통해서 중국어를 접하게 되었다.

첫 번째는 바로 가훈 부모 가게 주변에서 함께 가게를 하시던 중국 동포 분들을 통해서였다. 부모님이 항상 가게에 계셨던 이유로 가훈은 매일 가게에서 사는 것과 같은 생활을 했다. 학교를 다니던 시간에는 방과 후에 가게로 곧장 달려가 부모님들과 시간을 함께 보냈고 방학 기간에는 아침만 되면 가게로 달려가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훈의 가게 옆으로 중국 심양에서 오신 한 부부가 중국 음식점을 오픈하셨다고 부모님께 이야기했다. 이에 호기심에 가득 찼던 가훈은 중국에서 오신 부부의 가게로 달려가 그분들께 인사하였고 그분들은 가훈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 이후로, 자주 와서 놀고 이야기하는 가훈이 귀여우셨는지, 그분들은 자신들이 즐겨먹는 중국 과자, 사탕 등을 가훈에게 주면서 가훈에게 간단한 중국어와 중국식으로 숫자를 세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이를 통해 가훈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중국과 중국어를 접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로 가훈의 동네에서 개최되던 농협대학교 국제 테니스 대회이다. 가훈의 동네 국제 테니스장에서는 매년 세계 각국에서 온 여성 테니스 선수들이 참여하는 국제 여성 테니스 대회가 개최되었다. 해당 대회는 중국, 대만, 일본 선수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호기심이 많았던 가훈은 매일 밤 그 대회를 보러 갔다. 가훈은 어린아이지만 혼자 매일 경기장에 오는 것을 눈여겨보던 중국 선수들이 가훈에게 관심을 주었고, 쉬는 시간이 되면 가훈과 함께 놀아 주었다. 가훈은 중국 선수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마다 중국동포 부부가 알려준 중국어를 사용하여 이야기하며 선수들과 친하게 지냈다. 그런 가훈을 선수들도 좋아해 주었고 중국어로 인해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었다.

세 번째는 바로 부모님의 권유이다. 초등학교 시절 가훈은 야구선수가 되고자 하는 장래희망을 가지고 엘리트 체육에 참여했다. 하루를 운동으로 시작하고 운동으로 끝내는 생활은 초등학생인 가훈에게 정말 힘들었

으나, 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열심히 하는 생활을 뿌듯했던 시간이었다. 초등학교 야구선수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가훈은 경기 중 부상을 당하였다. 특히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야구선수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을 참여할 수 없었다. 이후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진로를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던 중 부모님이 중국이라는 국가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가훈에게 중국어를 배우는 것을 제안하였다. 가훈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중국어를 본격적으로 접하였다.

위의 세 가지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가훈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중국어를 접하였다. 가훈은 자기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 아직까지 중국어를 공부하는 저에게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경험은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서 아직도 자신감을 가지고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 체육이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동만 하는 것이다. 다른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도 운동을, 국어를 공부할 때도 운동을, 과학을 공부할 때도 운동을 했다. 이러한 엘리트 체육의 특성 때문에 가훈은 초등학교 때부터 일반 학생들과 다르게 초등학교 때 받아야 할 교과활동을 통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이어 초등학교 야구선수로 활발히 활동하던 중 한 번의 부상으로 선수 생활까지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위기를 맞이한 가훈은 부모님의 강한 권유 속에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어를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어의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특기로 계발시켰다.

가훈의 첫 번째 중국어 선생님은 집 근처 아파트 단지 내의 해법 중국어 선생님이었다. 지극히 주관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해법 중국어 교실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중국어 교육보다는 방과 후에 아이들이 제2외국어를 쉽고 편하게 배울 수 있는 간접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았다. 그래서인지 가훈이 당시에 함께 공부하던 다른 학생들은 중국어 공부에 그리 큰 관심을 가지진 않았다. 그러나 가훈은 이런 상황을 자기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어진 시간 안에 중국어를 공부했다.

중국어 공부를 통해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가훈은 의자에 앉아 공부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한 번도 의자에 앉아서 무언가를 한다는 상상을 해 보지 못했던 가훈이 어떤 것을 배우고 할 수 있다는 것에 재미를 느끼게 되자 진도는 더 빠르게 나갔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모국어를 하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벗어나 중국어를 통해서 외국인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 매혹되어 중국어를 자신의 특기로 계발시키게 되었다.

외국어를 특기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해당 나라에 가서 생활하며 그들의 문화를 익히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중국어를 특기로 신장시킨 학생들은 대부분 부모님의 직장 혹은 유학과 같은 이유로 중국에서 오랜 시간 거주하며 중국어를 공부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국에서 중국어를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가훈은 한국 내에서 다양한 노력과 방법을 시도했다. 가훈의 노력과 학습과정은 다음의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중국 노래를 통한 중국어 학습이다. 해법 중국어 교실에서 중국어를 처음 배웠던 가훈은 빠르게 중국어를 학습하고 중국인들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당시 부모님이 선물해 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중국인들의 인터넷 네트워크에 들어가고자 하였다. 중국어를 잘 모르던 가훈은 다양한 시도 끝에 중국의 바이두(百度)를 알게 되었고 다양한 매체들을 통하여 중국 노래들을 점차 알아가기 시작했다. 또 가사가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멜로디의 중국어 노래를 찾으면 발음을 따라하였고, 노래가 익숙해지면 모르는 단어들은 사전을 통해 찾아 가사를 이해하였다. 노래를 완전히 익힌 후, 가훈은 집에 있는 녹음 기기들을 활용하여 소위 말하는 '커버 곡'들을 제작하였고 여러 중국 친구들에게 전송하여 그들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국어 공부에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당시에 즐겨 듣던 노래는 쉬페이의 '물을 찾는 물고기'(尋水的魚), 왕펑의 '존재'(存在), 나이의 '정복'(征服) 등이었다. 핸드폰에 중국어 노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훈의 중국어 실력 또한 늘었다.

두 번째는 중국 친구 사귀기이다. 이는 한 번도 중국에 가 보지 못한 가훈이 한국에서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방법이다. 중국어 공부를 하고 중국어 노래를 듣던 가훈은 중국이란 나라에 큰 관심이 생겼고 그 관심은 자연스럽게 중국 사람들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졌다. 어떤 방법으로 중국 친구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부모님이 주말마다 경복궁, 인사동과 같이 중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에 가서 대화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다. 처음에 수많은 중국인들에 둘러싸인 가훈은 누구에게 어떠한 말로 말을 걸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그러던 중 부모님은 지나가는 중국인에게 '보디랭귀지'를 통해 "내 아들이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시간이 있으면 몇 마디 해 주시겠어요?"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였고, 가훈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훈은 다양한 중국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다. 가훈이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은 인사동 한복집에서 만난 50대 후반 정도의 중국인이다. 그 분은 중국어를 사랑하고 중국 문화를 사랑하는 가훈을 예쁘게 봐 주었다. 또 그 중국인은 중국 청두에 살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도 있어 가훈을 청두와 미국에 초대해 주었다. 그리고 아들이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였는데 매번 한국에 올 때 가훈을 미군 기지로 초대해 주는 등 가훈에게 값진 경험을 선물해 주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가훈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중국어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며 중국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중국어 대회이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훈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중국어 관련 대회에 참가했다. 가훈은 비유학파 중국어 특기자이기 때문에 다른 유학파 특기자 학생들과의 차별성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중국어 대회를 참여한 것이다. 중국어 대회를 통해서는 무엇보다도 생활화된 중국어가 아닌 공식적인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학술적인 중국어를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이외에도 중국어 대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제8회 한국 고등학생 중국어 경시대회' 대상, '제15회

금호아시아나배 고등학생 중국어 말하기 대회’ 금상, ‘경희대학교 제2회 고등학생 중국어 작문 대회’ 금상, 중국 ‘허베이대학교배 제1회 중국어 말하기 대회’ 은상, ‘경희대학교 제6회 고등학생 중국어 말하기 대회’ 은상, 북경 ‘용경협과 함께 제13회 중화연대회’ 은상 등을 받았다. 이후 이러한 중국어 대회의 좋은 성적들과 노력을 통해서 예진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림 1> 제13회 중화연대회

대학 입시 특별 전형에서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 가훈은 남들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서 가훈은 다양한 중국어 관련 대회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그 와중에 다음의 두 가지의 특별한 경험도 하게 되었다.

2017년 한중관계가 악화된 시기에 가훈은 중국 외교부에서 주최하는 여름캠프에 선발되어 참가했다. 가훈은 ‘텐센트’에서 주최하는 ‘중한 청년회’에서 학생 대표로 무대에 올라 한중 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무대에 오른 가훈은 한중 양국 간 관계의 기초는 양국의 청소년이며 이 모임을 통하여 양국의 문화를 교류한다면 개인 간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 간의 큰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가훈은 또한 일주일의 캠프 기간 중 팀장이라는 역할을 맡아 팀원들의 불만과 갈등이 발생할 시 자신만의 ‘해피바이러스’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

하기도 했다. 한 예로 캠프 셋째 날 베이징에서 광저우로 이동 시 비행기가 취소되어 공항에서 19시간 동안 노숙을 하게 되었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 중 몇몇은 음식을 먹지 못해 머리가 어지럽다고 했고 공항에서 편히 쉬지 못해 몸이 아픈 친구들이 많이 생겨났다. 가훈도 물론 힘들었지만 팀장으로서 이 친구들의 몸 상태와 캠프 분위기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선 친구들의 음식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항공사 카운터에 음식 제공을 요구하고 도시락을 받아왔다. 그러나 중국식 도시락이라 여전히 먹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큰 공항을 샅샅이 뒤져 한국인 입맛에 맞는 일본 덮밥을 찾아 친구들에게 주었다.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중국어 실력을 발휘하여 친구들에게 맛있는 밥을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가훈은 힘든 상황을 풍자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과 관심을 주었다. 특히 옆에 있던 한 중국분의 질문에 답하며 친구들에게 외국인과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지루한 시간을 달랬다. 이처럼 가훈은 팀원들 옆에서 필요한 부분을 챙겨준 것들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고 결국 팀원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캠프를 끝낼 수 있었다.

바라고 바라던 예진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에 입학한 후, 가훈은 일반 신입생과 다른 생활을 살았다. 대체적으로 한국 대학교의 신입생들은 대학 입학 후 1년은 그 동안의 입시노고에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학생 신분을 잊어버린 것과 같은 방종한 삶을 살곤 한다. 하지만 가훈은 입학 후 또 다른 학업 욕심이 생겨 학교 학점과 다른 외부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대학 입학 후의 가훈의 생활은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바로 스웨덴어 학습이다. 2년 정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특기자 준비 끝에 모든 대학교의 시험과 면접을 마칠 수 있었다. 가훈의 '꿈의 대학'이었던 예진대학 중국어 특기자 결과 발표는 다른 학교, 다른 전형보다 매우 일찍 나왔다. 합격 소식을 들은 가훈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하여 곧바로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 배낭여행을 떠났다. 2016년 여름 제12회 상해 국제 청소년 우정 캠프를 참가했을 때 세계에서 초청되어 온 친구들과 서로 간의 친목을 다지며 이야기하고 중

국에서 하나 됨을 체험하는 대외 활동시 가훈은 유럽에서 참가한 인원들과 깊은 친목을 나누었다. 그 중 덴마크에서 온 캐롤라인이라는 친구와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다. 캐롤라인은 가훈에게 한국에서 대학 입시를 끝내고 덴마크에 꼭 방문하라고 했으며, 가훈은 그것을 기억하고 덴마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덴마크, 스웨덴을 여행했던 가훈은 스웨덴에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스웨덴의 문화, 음식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제도, 공공제도 등에 감명을 받고 한국에 돌아가서 스웨덴어를 공부해서 다시 스웨덴에 와야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한국으로 돌아와 예진대학에 다니던 스웨덴어과 졸업생과 함께 스웨덴어를 공부하고 중국어를 공부할 때처럼 스웨덴 노래를 찾아 공부하고 또 부르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동아리 생활이다. '대학교의 끝은 동아리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실제 대학 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동아리들이 존재한다. 그 중 가훈은 중국어 학부에 소속된 중국문학 독서회와 전국 대학생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했다. 단순히 중국어만 잘했던 가훈은 중국언어문화학부에 학생으로서 중국어를 넘어 중국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싶어 중국문학 독서회에 가입하였다. 이전과는 다른 중국어 공부를 하였다. 이전에는 일상적인 중국어 실력을 기반으로 한 중국어 학습이 중심을 이루었다면 독서회를 통해서는 문학적이고 학술적인 중국어 공부를 하였다. 아울러 문학 속에 내재된 중국의 문화와 사상적 배경을 공부함으로 중국어에 더 심취하게 되었다. 또한 가훈의 종교적 신념을 근간으로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 대학생활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했다.

세 번째는 대만에서 보낸 한 학기의 시간이다. 가훈은 중국어 특기자 준비를 통해 다양한 외부활동에 참가했다. 외부활동에서의 좋은 성적을 통해서 중국의 다양한 도시들을 여행할 수 있었다. 여행을 통해서 가훈의 특기인 중국어 및 외향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여행업이 잘 맞을 거라고 여겼다. 이에 1학년 1학기에 여행 관련 진로를 고민했다. 이후 여행업이 발달한 대만에 관심을 가졌으며 대만에 있는 여행 관련 학과가 유명

한 학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가 그 대학의 학과장에게 가훈의 상황, 관심, 경험 등을 메일로 적어 보냈다. 학과장님은 뜻밖에도 장학금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환영의 답장을 보내 주었다. 이에 한 학기 휴학을 신청한 후 대만으로 갔다.

가훈이가 대만에서 생활한 시간을 통해 얻은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다. 가장 큰 효과는 바로 “자신감의 회복”이다. 대학에 합격한 이후에 보니 주변에 너무나 대단한 친구들이 많았다. 그러나 대만에서 생활하며 한국에서 배운 중국어를 통해 혼자서도 대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큰 자신감이 생겨, 한국에 돌아온 후에는 어떠한 역경이 와도 잘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진정한 친구들을 얻은 것이다. 가훈이가 간 대학은 다른 일반적인 대학과는 달리 기숙 고등학교와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기숙사 생활은 군대 생활과 같이 엄격하여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교정을 청소하는 활동이 있을 정도였다. 듣기에는 매우 힘든 학교일 수 있지만, 대만 대학 생활을 깊게 체험해 보고 싶던 가훈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였다. 많은 시간을 강제로 친구들과 보내게 해 준 학교 시스템 덕분에 누구보다도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으며 지금까지도 서로의 나라에 초대하고 초대 받으며 지내고 있다.

마지막은 인도네시아어 공부이다. 예진대학은 졸업 전 이중 전공이나 부전공을 선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제대 후 복학한 가훈은 어떤 이중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했다. 고민 끝에 가훈이 선택한 이중 전공은 바로 ‘말레이·인도네시아어’이다. 대만에서 거주할 때 가훈은 인도네시아 화교 룸메이트들과 함께 생활했다. 가훈의 룸메이트들은 가훈과 같이 음악을 사랑하며, 음식을 좋아하고 매우 개방적인 친구들이었다. 당시 가훈은 영어와 중국어를 사용하여 그들과 소통했다. 사실상 소통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었으나, 가훈은 항상 그들과 더 깊은 차원에 소통을 원했다. 대만에서의 생활을 끝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후, 가훈은 오직 예진대학에만 있는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를 이중 전공으로 선택하여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지금 가훈은 중국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도네시아

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중국어를 학습했던 과정과 비슷하게 인도네시아어 노래들도 즐기며 학습하고 있다.

중국어 특기자로서 대학에 입학하면 생각보다 학교에서 중국어를 공부할 기회가 비교적 많지 않다. 학교 측에서는 일반 학생과 특기자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을 다르게 지정하였기에 특기자 학생들은 지정된 중국어 수업 외 대부분 중국 역사, 중국철학, 중국문학, 중국 인문 지리 등과 같은 수업을 듣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중국어 실력은 퇴보되기에 중국어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하여 가훈은 중국어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학교에 유학 중인 중국 학생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자 했고 학기가 끝난 후에도 그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가훈은 중국어라는 특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직업을 찾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중국어를 특기로 가졌다고 하면 대기업 혹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 가서 중국과의 무역, 영업 관련 업무를 진로 방향으로 설정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안정적이며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무직에 큰 관심이 있던 가훈은 현재 중국어 특기를 사용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직 일을 모색하며 준비하고 있다. 중국어 특기를 살려 준비할 수 있는 공무직에는 크게 외사경찰직과 외무직이 있다. 외사경찰과 같은 경우에는 중한 번역, 한중 번역 그리고 체력 등이 주요 시험 내용이며 외무직의 경우는 국제법, 국제 정치, 중국어 등이 있다. 현재 가훈은 더 깊게 중국어 공부를 할 목적과 함께 외사경찰 준비를 진행 중이다.

2. 나경: 중국어는 나의 “애증”이다.

나는 나경이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처음 만났다. 그때 나경의 중국어 실력은 특별전형을 준비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나경은 나와 4년 동안 같이 중국어 특기자 전형 입시를 준비하면서 중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고 결국 삼수 끝에 예진대학교에 진학했다. 나경은

고3 때부터 입시 준비를 위해 중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했다. 실패도 많이 경험했지만 매 준비마다 작은 성공을 통해 성취감을 느꼈고 중국어 특기의 대한 자신감도 올라갔다. 그 이후 말하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6개 넘게 받았다. 게다가 말하기 대회에 참가 하면서 본인이 무대를 즐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학교 1학년 때에는 원어연극 동아리에서 여주인공 역할을 맡아 성공적인 무대를 보여주기도 했다.

나경은 아버지의 권유로 인해 중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2000년대 초 중국으로 건너가 한식당을 운영하셨는데 나경은 2살 때부터 중국에서 여름휴가를 보냈다. 그렇기에 중국은 나경에게 낯선 나라는 아니었다. 어릴 때는 '언어'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할머니 식당 앞에서 어린 중국 친구들과 어울려 딱지치기를 하며 놀았다. 나경의 부모님은 그때부터 나경이 언어적으로 재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나경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할머니가 잠시 한국에 들어왔는데 어느 날 할머니는 장난삼아 중국에 가지 않겠냐고 물어보았다. 당시 나경은 '유학'이라는 것에 심각한 고민을 할 나이가 아니었기에 '가고 싶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나경의 부모님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나경은 외동딸이었고, 당시의 중국은 개발이 진행 중인 국가였기 때문에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와 지낸다고 해도 어머니는 하나뿐인 딸을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언어 하나를 배우는 것이 나경의 장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나경을 중국에 보내자고 하였고 결국 그렇게 나경은 11살에 중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 당시 나경이 아는 중국어는 '니하오(你好)', '짜이찌엔(再見)' 밖에 없었다. 나경은 6월에 중국에 갔는데 9월에 중국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중국어 과외를 받았다. 처음에 과외 선생님을 구할 때 나경이 중국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한족(漢族)과 조선족(朝鮮族) 중에 고민했다고 한다. 그러나 주변의 경험담으로는 한국어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족에게 중국어와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 둘 다 정확하지 않게 배우게 된다고 하여 처음부터 말이 전혀 통하

지 않는 한족 선생님과 1:1 과외를 진행하였다. 아침 시간과 오후 시간으로 나누어 중간에 점심 간을 갖고 하루 종일 수업을 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전자사전으로 소통을 하며 수업을 진행했다. 중국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1학년 국어책(語文書)과 별도의 초급 교재를 사용하며 수업을 진행했고 매일 받아쓰기도 했다. 어린 아이들이 듣는 카세트테이프도 들었다.

9월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사립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반에는 생각보다 한국인 친구들이 많았고 그렇기에 중국어는 늘지 않았다. 선생님들도 시험을 볼 때 잘 모르면 옆에 친구 거를 보라는 식이었다. 중국어도 늘지 않고, 나경이 나중에 전학을 온 입장이라 한국인 친구들에게 은근히 따돌림도 당해 다시 일반 중국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전교에 한국인은 나경을 포함하여 3명이었고, 모두 다른 반이었다. 중국인 친구들에게는 나경이 신기했던 탓인지 친구들도 금방 만들 수 있었다. 특히 당시 소녀시대, 원더걸스 등 K-pop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던 터라 관심 많은 중국 친구들 덕에 중국어도 빠르게 늘게 되었다. 학교를 다니는 중에도 과외는 계속 진행하였다. 나경 기억으로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5:30이었다. 그러면 30분 동안 저녁을 먹고 6시부터 9시까지 중국어 과외를 하였다. 주말에는 중국인 수학 선생님과 수학 과외도 병행하였다.

처음에 부모님이 나경을 중국에 보냈을 때는 고등학교 졸업이 목표였다.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건강과 인간관계 등의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2년 정도 공부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한국으로 돌아와 나경의 어머니는 나경에게 HSK 시험을 준비하라고 하였는데, 당시 중국에서 힘들었던 나경은 한국까지 와서 중국어를 하고 싶지 않다는 반항심이 들었다. 그래서 학원을 열심히 다니지 않았다. HSK 5급을 190점 후반대로 합격한 뒤로 거의 중국어 공부를 하지 않았다. 이후 고등학교 1학년 때 HSK 6급을 취득하고자 세 차례 시험을 보고 190점대로 합격하였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말에 특기자 전형을 알게 되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어 공부와 특기자 전형 준비를

시작하였다.

중국에 가기 전 나경은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생활하고 돌아와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그 공백기 동안 한국의 교육과정에서 많이 뒤쳐지게 되었다. 또한 고등학교 수업을 따라가려고 과외를 시작했지만 기초를 다지기에 부족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한국에 돌아와 중국어 외에 요리에 흥미를 느끼자 나경의 어머니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경희대학교 호텔조리학과에 가라고 했다. 그러나 공부가 뒤쳐진 탓에 1학년 1학기부터 좋지 못한 성적을 받게 되었고, 나경은 그때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다.

나경은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가고 싶었다. 그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던 중 알게 된 것이 '어학 특기자 전형'이었다. 대부분 그렇듯이 사람들은 '어학 특기자 전형'을 굉장히 쉽게 생각한다. 외국어 하나를 어느 정도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경도 고등학교 1학년 말, 해당 전형을 알게 되고 '아 나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전형에 대해 알면 알수록 쉽지 않았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동안 나경의 중국어는 많이 퇴보한 상태였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스펙들(자격증 고득점, 수상기록 등)은 하나도 보유하지 않았다.

나경은 특기자를 준비하는 친구들에 비해 자기가 많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일찍 깨닫고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간 겨울방학부터 HSK 6급 고득점을 위해 강남으로 빈빈학원을 다니며 중국어 자격증 공부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안산의 다문화 센터를 찾아 중국어 봉사도 시작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경의 목표는 '예진대학교'였다. 이를 안 나경의 담임선생님은 중국어 대회 관련 공문이 오면 나경에게 전달해 주었고, 나경의 원고도 봐 주시며 도와주었다. 그러나 고2 때는 좋은 성적을 한 번도 내지 못하였다. 아무래도 대회에 대한 감과 절실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나서 나경은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를 시작하였다. 매달 HSK에 응시하며 성적을 올리고자 하였고, 대회란 대회에는 모

두 참여하였다. 한번은 어느 대회에서 나경을 제외한 학원 친구들 모두 예선을 통과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나경이 너무 속상해서 학원에서 울었다. 그 뒤에 팀으로 참가하는 대회에서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들과 팀을 맺어 대회에 참가하였고,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에게 뒤쳐지지 않으려는 마음과 절실한 마음으로 밤새 대회를 준비하고 원고를 외웠다. 이후 예선에 통과해 본선 무대를 준비하였고, 나경은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대본을 소화했다. 하지만 열심히 하지 않았던 팀원이 무대에서 실수를 해 나경의 팀은 동상을 받게 되었다. 그래도 나경은 처음으로 받은 상이었기에 매우 뿌듯함을 느꼈다. 그것을 계기로 대회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어떤 대본을 써야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감이 잡혀 여러 대회에 꾸준히 도전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모두 좋았고 그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결과 그리고 나경에게 주는 성취감과 뿌듯함이 나경의 중국어를 한 층 더 성장시켜 주었다.

이처럼 나경은 중국 유학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7년 이상 살다 온 친구들에 비해 어학 자격증 방면에서는 단기간에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나경은 자기가 중국어 대회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다른 친구들과 차별을 둘 수 있는 나만의 특기라고 생각하여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중국어 대회에 많이 참여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대회를 준비하면서 발음, 억양, 목소리 톤을 매우 신경 쓰기 때문에 면접에도 많이 도움이 되었다.

실패에 대한 경험이 지금의 나경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경은 현역 때와 재수 때 모두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지 못했다. 특기자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나 정시처럼 뚜렷한 점수 커트라인이 없다 보니 매년 의외의 결과가 있기 마련이었다. 특히 나경이 재수를 했던 2017년에는 나경을 포함한 고득점의 친구들이 예진대 서류전형에 줄줄이 불합격하여 나와 학생들 모두 놀랐던 기억이 있다. 재수가 끝났을 때 같이 재수를 준비하던 친구들은 모두 좋은 대학에 합격하였지만, 나경은 합격하지 못했다. 재수를 할 때는 전문대에 합격했지만 재수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가지 않았다. 그러나 재수 때는 삼수를 선뜻 결정할 수 없어 가

장 가기 싫어했던 전문대에 입학했다.

당시 나경은 학벌 콤플렉스가 매우 심했다. 나경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자존감이 낮아져 친구들은 '대학에 와보니 학벌은 중요하지 않다' 라고 나경을 위로했지만, 나경은 가진 자들의 위로는 기만이라고 생각했다. 그 누가 자신의 대학을 물어보는 것이 너무 싫었고, 가기 싫은 대학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 통학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싫었다. 또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 밤마다 울었다. 부모님에게는 삼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두려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아르바이트비로 학원비를 내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입시를 준비했다. 나경이 당시 다니던 전문대는 학교 특성상 시간표가 짜여 나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수업을 들어야 했다. 수업이 끝나면 바로 강남으로 가 10시까지 수업을 들었다. 그렇게 평일에는 학교-학원을 병행하였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리고 꾸준히 HSK도 준비하고 대회에 나가 상도 탔다.

나경은 원래 중국언어문화학부에 지원하려고 했지만, 지도 선생님 이었던 나는 중국외교통상학부에 넣어보자고 했다. 중국외교통상학부가 조금 더 높은 편에 속해 나경은 주저했지만 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해 보자고 했다. 그렇게 나경은 중국외교통상학부를 준비하며 자소서도 전부 다 고치고 면접 내용도 처음부터 준비했다. 2학기가 되었을 때는 대학 합격을 더욱 갈망하며 다니고 있는 학교를 혐오 수준으로 싫어했다. 그래서 학교수업을 받지 않고 학원에 가는 일도 잦아져 부모님과의 사이도 틀어지게 되었다. 아무래도 부모님은 나경이 삼수도 실패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에 열심히 다니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준비하면 할수록 예진대를 향한 나경의 마음은 커졌고, 나중에는 예진대에 떨어져서 이 학교를 계속 다니게 되면 어떻게 살지? 하는 마음에 밤마다 울면서 잠들었다. 면접도 미친 듯이 준비하였다. 면접 전날에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동생들 앞에서 울기도 하였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나경은 대학에 합격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축하를 받았다. 학교에 가는 길에 결과를 확인하였는데 지하철에서 울다가 다시 집에 갔

는데 부모님과 함께 울었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대학 생활은 나경에게 더욱 소중했다. 나경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으며, 중국어에 대한 열정도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남들 앞에서 중국어로 당당하게 연설하는 자신의 모습을 잃고 싶지 않아 대학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음에도 꾸준하게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자립심도 더욱 커지게 되었고, 현재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에 대해 나경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 그런 노력들이 모여 입시 기간에 실력이 몰라보게 좋아졌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에세이 주말반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에세이 지문도 이해를 못 했고 당연 에세이는 쓰지도 못 했다. 선생님도 한번은 나에게 '나경, 그 때 중국어 정말 못 했어'라고 하셨다. 내가 생각해도 입시를 준비하며 중국어 실력이 엄청 향상된 것 같다. 또한 대회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중국어 실력을 뽐냈던 경험이 면접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입시를 할 때처럼 중국어를 쓰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경의 중국어 실력이 향상되었던 이유 중 첫 번째는 굉장히 많은 대회에 참가했다는 것이다. 서울, 충청북도, 강원도, 경기도 지역이 어디든 가리지 않고 자격 조건만 된다면 모두 참가하였다. 그리고 좋은 상을 받기 위해 동영상을 찍고,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고, 낮이나 밤이나 원고를 외우며 자기 모습부터 목소리까지 대회에서 좋은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노력은 재수 시절에도 계속되었다. 간절함이 더해져 더욱 노력하여 대회를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

두 번째는 공인어학시험 공부이다. 나경은 중국에서 비교적 짧게 생활하고 왔기에 알고 있는 단어의 양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적다 보니 독해 부분에서 점수가 가장 나오지 않았다. 나는 독해 1부분 오답노트를 추천했고, 나경은 그걸 정말 열심히 했다. 문제를 풀 때마다 틀렸든 맞았든

어법이 어디서 잘못됐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 필기를 했고 내가 준 문제를 모두 다 풀었을 때는 다시 유형별로 문장을 정리하며 어법과 독해에 대한 감을 찾아가고자 하였다. 또 듣기 실력은 나쁜 편이 아니었지만, 자칫하면 답을 못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높이는 것에 신경을 썼다. 받아쓰기도 물론 병행했다. HSK는 고득점자가 많아짐에 따라 듣기의 말하기 속도가 점점 빨라져 그 속도에 적응하기 위해 나경은 스스로 1.25배속으로 듣기를 하며 문제를 풀었다. 배속으로 듣기로 연습을 해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듣기가 오히려 느리게 느껴졌다. 나경은 작문에서 매우 좋은 점수가 나왔는데 내가 모범 답안이라고 할 정도의 수준의 작문 실력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작문에서 성적이 낮게 나오는데, 나경은 한 번 감을 잡고 나서는 지속적으로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이후에도 감을 잃지 않기 위해 작문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마지막은 나경이 중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통역 봉사와 같은 교외활동에 꾸준히 참여한 것이다. 우선 1년 반 동안 다문화 센터에서 중국어 통역 봉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중국어 모의유엔 등이 개최되면 열심히 참여하였다. 1365 봉사 사이트를 검색해 나경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은 모두 참여하고자 하였고, Flitto 어플리케이션에서 번역을 도와주며 봉사 활동 시간을 받기도 하고, 국제적인 뷰티 콘테스트나 국제 대회에 참가해 중국어 통역을 하며 부가적인 활동 기록을 채워 나가고자 하였다. 학교에서도 선도부로 활동하며 성실하게 지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하루에 20분 정도 전화 중국어 수업을 진행했다. 특히 두 번째 선생님이 중국어 회화를 많이 봐주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며 중국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고 했다.

나경은 재수, 반수를 모두 겪고 결국에는 나경이 목표로 정한 대학교에 최종 입학했다. 그렇기에 나경은 대학 생활이 너무 소중했다. 남들은 대학교 1학년 때 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며 학점을 관리하지 않고 놀러 다녔지만, 나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경은 입학과 동시에 졸업부터 걱정하였다. 수업 시간도 매우 소중해 전공 시간에는 매번 앞자리에

앉아 수업을 들어 A+를 받았다. 3학년 1학기까지 전공 수업에서 한번도 B+이하로 받아본 적이 없다.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탓인지 1학년 때부터 전임 교수님 눈에 들게 되어 1학년 2학년이 끝나가는 시기에 학부조교 제의를 받게 되었다. 현재는 학부장님 밑에서 2년 동안 학부조교로 근무하고 있으며, 3학년 1학기부터는 학부 수석 조교를 맡았다. 1학년인 나경에게 교수님이 직접 조교를 제의하였고 교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매우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

동아리는 나경의 중국어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중국원어연극동아리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동기들과 오랜 시간동안 극을 준비하며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중국어로 연기를 한다는 것에 재미를 느꼈다. 비록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힘든 만큼 보람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나경은 중국어 연극 동아리를 택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인경 기자 =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가운데 왼쪽)가 20일 서울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제16회중화연(緣)대회' 시상식에서 '주한대사상' 수상자에게 시상하고 있다.

<그림 2 제16회 중화연대회>

예진대학에 너무 오고 싶었고, 나경이 오랜 시간 노력했던 결과물이었기에 나경은 너무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다. 하지만 나경이 대학에 입학한 뒤, 가장 아쉬운 것은 특기자 입시를 준비했던 때처럼 중국어를 많이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어의 퇴보를 방지하고자 여전히 다양한 대회에도 참가하고 있고 상도 받았다. 또한 중국어를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예진대 통역협회에서 3차의 시험을 거쳐 협회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중국어 통번역 의뢰는 많이 없는 편이지만 소속이 되어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올해는 LG다문화학교 중국어 멘토링에 지원하여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주는 활동도 하고 있다. 올해 8월에는 동아시아 온라인 역사 캠프에 통역 스태프로 활동했다.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대학에 입학한 특기자 친구들은 자신의 흥미와 특기를 더해 대외활동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

3. 다은: 중국어는 나의 “디딤돌”이다.

다은은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하는 학생이다. 가정에서는 중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환경이고 살았던 지역은 중국에서 조선족이 많이 사는 곳이라 간단한 한국어를 알아듣는 수준이었다. 한국인과 재혼한 어머니때문에 다은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한국으로 중도입국했다.

다은은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 중국 현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주로 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웠다. 국어시간을 가장 좋아했고, 특히 낭독을 몹시 좋아했다. 중국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을 감정 이입해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평소에 집에서 낭독 연습을 많이 했다. 그렇게 많이 연습하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중국어 발음이 정확하고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교재 자료

녹음하는 학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60명 중 다은과 남학생 한 명을 뽑았다. 녹음은 대본을 보면서 진행했고 참 재미있었다. 그때 다른 반 선생님이 다은 반에 와서 수업 들은 후 다은을 지목해서 문장을 낭독하게 했다. 이처럼 다은은 어렸을 때부터 낭독을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중국어 발음이 몹시 정확하다는 칭찬을 자주 듣고 있다.

다은의 어머니는 친아빠와 경제적 이유로 이혼하고 나서 몇 년 뒤 한국 사람과 재혼하여 한국에 먼저 와 생활하였다. 그 당시 다은은 어머니의 세 번째 고모(三姑)네 집에서 자랐다. 외고모 할머니는 다은이를 너무나도 잘 돌봐주었고, 다은의 성적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모두 90점 이상 넘어야 했다. 다은이 다녔던 현지 학교는 숙제를 많이 내 주는 편이었는데, 외고모 할머니와 외고모 할아버지는 숙제를 할 때마다 옆에서 도와주었다. 예를 들어, 한자 받아쓰기 숙제나 중국어 문장 읽기의 숙제가 있으면 저녁 식사 후 검사하였다. 다은은 학교에서 숙제를 열심히 하는 편이고, 한자 받아쓰기 시험을 볼 때마다 백 점을 받았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다은을 몹시 좋아했다. 어머니와는 이틀에 한 번씩 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그래서 외고모 할머니 집에서 살아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과 외고모 할머니와 외고모 할아버지가 다은에게 쏟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어머니의 경제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이후 다은은 6학년 때 어머니를 따라서 한국으로 와서 살게 되었다. 다은은 중국어를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처음에 한국으로 왔을 때 오히려 한국어가 더 어렵다고 느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에 왔을 때, 언어학교를 다니면서 한글과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부모님이 다은의 언어 실력 때문에 학업을 못 따라갈까 봐 걱정해서 한국학교의 학기에 맞춰 6학년을 다시 다니게 되었다. 처음에 학교 다닐 때 아는 친구가 없어서 많이 외로웠고, 말이 통하지 않을까 걱정하여 매일 전자사전을 들고 다녔다. 그러다가 다은의 뒷자리에 앉은 친구 두 명이 다은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알아듣긴 하지만 모르는 말이 나올 때 다은은 전자사전을 이용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그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다은의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 처음에 혼자 마트 가기도 두려웠는데 그 친구들 덕분에 햄버거 가게에서 자연스럽게 주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초등학교 때까지 한국어로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 때 가끔 영어로 대화한 적도 있었는데, 중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어났다. 이후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면서 언어 실력이 더 좋아졌다.

다은은 중학교 때 모든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항상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복습과 예습을 꾸준하게 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발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고, 모르는 질문이 있을 때 무조건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수학과 영어 성적은 항상 80점, 90점 넘게 나왔는데 국어만 점수가 낮은 편이였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때 국어 시험에서 4점 맞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다은은 포기하지 않았고, 국어책 여러 번 읽기 연습,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필기까지 꼼꼼하게 했고, 보고 또 보고 반복적으로 공부했다.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국어 성적은 70점대로 올렸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꾸준히 80점 이상 나왔다.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처음 받았던 점수보다 엄청 많이 높아졌고 다은 주변 친구들보다 점수가 높을 때도 있어서 나름 만족했다. 이후 집이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 바람에 다른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로 갔다. 다은의 부모님이 그 도시에 있는 가장 공부 잘하는 학교를 알아보았고, 그 학교에 꼭 합격하면 좋겠다고 다은에게 말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1,2학년 때보다 더 독하게 공부를 했고 결국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PPT로 발표하는 수업이 점차 늘어나면서 다은은 걱정이 많았다. 다은은 PPT를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조차 몰랐기 때문이다. 다은의 부모님도 잘 몰라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친구들이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PPT를 만드는 것은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나름 재미있었다. 하지만 발표는 다은에게 너무 어려웠다. 다은은 친구들과 대화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도 앞으로 가서 발표를 하면 버벅거리고 발표 내용도 자꾸 잊어버려서 창피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다은은 그럴수록 더 열심히 PPT를 만들었고, 발표할 내용도 열심히 외

웠다. 그리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하겠다고 하면서 보너스 점수를 받았다. 앞에서 발표를 많이 하다 보니 다은이 어떻게 해야 반 친구들이 자기의 PPT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발표해야 재미있는 발표가 될 수 있을지 터득했다.

한편 한국에 오고 나서 중국어 다양한 표현을 잊지 않기 위해 중국 드라마와 예능을 챙겨보며 새로 나온 단어를 외우고 기록하곤 했다. 중국에 있을 때부터 즐겨봤던 예능 프로그램 '쾌락대본영(快樂大本營)'와 '애정보위전 (愛情保衛戰) '도 꾸준하게 시청했다. 또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유행어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용어도 꾸준히 들을 수 있어서 다은은 중국어 듣기 실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중국 친구와 대화하면서 '666', '霧霾', '土豪' 등과 같은 신조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할 수 있었다. 그 당시에 다은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알게 된 적도 많았다.

또 다은은 중국 드라마도 많이 시청했는데, 특히 궁중 드라마를 가장 좋아했다. 다은이 어렸을 때부터 '황제의 딸(還珠格格)'를 즐겨 보았고 이 드라마는 한국에서도 많이 챙겨 보았다. 다은이 가장 좋아하는 궁중 드라마 세 가지는 '보보경심(步步惊心)', '대막요(風中奇緣)', '산허련(山河戀-美人无泪)' 이었다. 어렸을 때는 중국 궁중 드라마를 재미로 보았다면, 중학교 때는 한자 성어와 중국 숙어(歇后語)도 많이 익힐 수 있어서 더 많이 챙겨 보았다. 한자 성어는 어렸을 때 중국 현지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아 많이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궁중 드라마를 보며 많이 한자 성어와 숙어를 다시 익히고 모르는 한자 성어는 기록해 가며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다은의 상황을 알고 '특기자'라는 전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수박 먹고 대학 간다'라는 대학교 입시 준비 책을 빌려주시면서 특기자 전형 포함되어 있는 대학교와 목표대학 다섯 개 정하라고 말씀하였다. 그래서 다은은 그 책을 보면서 목표대학을 '예진대학교' 로 정했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꾸준히 정시만 준비하고,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시만 준비

하였다. 하지만 중국어 특기자는 대학교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양해서 다은은 친구들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했다. 즉, 어떤 학교는 HSK6급 점수, 대외 활동과 수상 자료를 필요로 하고 어떤 학교는 중국어 에세이와 중국어 면접만 필요로 했다.

이처럼 다은은 내신 성적과 중국어 특기자 전형까지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HSK6급을 준비했다. 중국에서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을 보았는데, 300점 만점 중에 263점을 받았다. 다은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도 263점이 높은 점수인 줄 알아서 더 이상 HSK6급 자격증을 따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어 준비 대신 내신과 교내활동을 더 열심히 하면서 바쁜 고등학교 1학년을 보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은은 또 다시 새로운 담임선생님과 진로상담을 진행했다. 담임선생님이 다은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FLEX중국어'라는 자격증도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FLEX중국어'와 관련된 문제집을 사서 집에서 하루 종일 풀어보곤 했다. 내신 성적도 같이 준비를 해야 하다 보니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고, 한 달만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갔는데, 듣기/쓰기/말하기 1500점 중에서 1314점 맞았다. 다은은 그때 점수가 잘 나온 편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다은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중국어 특기자를 준비하는 학생은 다은이 밖에 없다. 혼자였기 때문에 기준점을 잘 몰랐다. 다은은 낮은 점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2학년까지 FLEX와 HSK 모두 재시험을 보지 않았고, 다양한 교내활동과 내신 성적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은이는 또 새로운 담임선생님과 만나서 진로상담을 진행했고, 3학년 담임선생님이 중국어와 관련된 대회를 알려주었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했고 다은은 참가할 수 있는 대회를 모두 참가했다. 인상 깊었던 대회 중에 하나는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였다. 보통 중국어 말하기 대회는 중국어만 이야기하면 끝나는데,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는 중국어로 한 번, 한국어로 한 번 말해야 되는 것이다. 무대 위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집에서 거울 보면서 연습하고, 선생님과 친구들

에게 들려주면서 피드백도 받았다. 심지어 지하철 탈 때도 대본을 외웠다. 결과적으로는 동상은 받았지만 그래도 뜻 깊은 대회를 참가했다고 생각하여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3학년의 어느 날에 예진대학교 입학 사정관이 다은의 학교에 와서 입학 설명회를 하였고, 질의응답 시간에 다은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HSK점수를 263점이 받았고, 중국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더니, 입학사정관이 “이 점수로는 안 돼, 점수 더 올려야 된다. 적어도 270점 이상 맞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다은은 그 말을 듣고 ‘내가 과연 3개월 안에 270점 이상 맞을 수 있을까?’라며 좌절했다. 하지만 그동안 자기가 했던 활동과 대회를 말씀드리니 “잘했네, HSK점수만 더 올리면 될 것 같다. 파이팅”이라고 하였다. 다은이는 입학사정관의 응원을 받고, HSK6급 더 열심히 해서 반드시 270점 넘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이후로 서점에 가서 HSK자격증 책을 여러 권 구입했고, 매일 풀고, 단어를 외우고, 오답 노트까지 써 가면서 공부했다. 수시접수 전까지 계속 HSK 시험을 보았다. 8월 마지막 시험에서 드디어 275점이라는 점수가 나와서 몹시 뿌듯했고 안심할 수 있었다. 이후 9월부터는 면접 준비에 몰두했다. 특기자 전형은 학교마다 면접 보는 언어가 서로 달라서 다은은 중국어와 한국어 면접을 모두 준비해야 했다. 한국어 면접은 주로 반 친구나 선생님이 봐 주었고 중국어 면접은 어머니께 부탁했다.

3학년 때 특기자 전형을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잔인했다. 지원했던 6개 대학교에 전부 다 불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큰 충격을 받아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매일 울었다. 결국 전문 대학교에 지원했다. 차라리 빨리 졸업해서 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은이 전문대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경희대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과잠을 입고 학교 자랑을 엄청 많이 했다. 그때까지 그저 부럽다고 생각했다.

학교에 다니면서 다은은 웨딩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곳에서 무시를 당할 줄 상상도 몰랐다. 매니저님이 다은의 학력에 대해서 물어 보았고, 다은은 00전문대를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공부할 필요도 없는 학

교'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였다. 또 다른 분은 심지어 다은에게 '그 학교는 어디 있어?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학교다'라고 다은을 무시했다. 다은은 자기가 다니는 전문대에 대해서 왜 비하하는지 궁금해져서 '전문대 취업'을 검색했는데, 자기가 원했던 미래의 삶과의 거리가 멀었다. 그 순간 다은은 반수를 하기로 결심했다.

처음 반수를 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은 엄청난 반대를 하였다. 하지만 다은은 뜻을 굽히지 않고 "무조건 성공하겠다. 한 번 더 믿어 달라."며 부탁했다. 다은은 부모님을 설득하고 나서 다시 중국어 특기자를 집중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HSK6급, ITT 번역 자격증, OPic 자격증, TSC 자격증 등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했다. 다은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중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많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자격증을 많이 취득했는데 노력 없이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은은 더 열심히 중국어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다.

다은은 항상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으면서 공부를 했다. HSK와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을 몇 권 사서 반복적으로 풀고,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부했고, 어휘량을 늘리기 위해 중국 뉴스까지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국어 작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독후감이나 사회 이슈에 대한 관점을 중국어로 쓰고, 고치는 연습을 반복했다. 이렇게 하니 중국어 작문 실력도 늘었고, HSK시험 점수도 올릴 수 있었다. 또 OPIC이나 TSC와 같은 말하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중국어 말하기 연습을 많이 했다.

한국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가벼운 중국어 대화 정도는 가능하지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말하기 연습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제를 설정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기 연습을 진행했다. 그리고 스스로 평가해 보기 위해 말했던 내용을 녹음해서 다시 들으면서 수정할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말하기 연습을 했었다. 그렇게 열심히 반복 연습하다 보니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다.

ITT 번역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았는데 전문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어 외우기를 반복했다. 단어를 외우고 문장 배열 연습도 많이 했다. 중국어의 어순과 한국어의 어순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순을 많이 틀렸는데 한 문제 당 2~3번 풀어보니 어순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다. 그리고 ITT 번역은 중국어와 한국어 둘 다 번역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도 쉽지 않았다. 중국에서 쓰는 전문용어가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한국어로 풀어서 쉽게 설명하고 번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문제 유형을 많이 익히고, 끊임없이 공부하여 결국에 번역 자격증까지 합격했다.

다은은 면접 연습도 많이 했다. 고3 때 면접 때문에 떨어진 대학교 3개나 되기 때문에 면접 연습은 더 꾸준히 했다. 우선 하나의 주제 혹은 질문을 가지고 중국어와 한국어를 둘 다 말해 보는 연습을 했다. 하지만 버벅거리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중국어와 한국어로 노트에 먼저 정리하고 말하는 연습을 했다.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뉴스를 매일 시청하고, 사회 이슈를 알아보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가장 인상이 깊은 사건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쓰기도 했다. 보고, 쓰고, 듣고, 말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여 논리적이고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다. 실제로 면접 볼 때도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떨지 않았고, 공통 질문에서도 논리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로 둘 다 말할 수 있었다. 결국 다은은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은은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중국어 원어연극동아리에 들어갔다. 어렸을 때 연극에 대한 관심이 있기도 했고, 다은의 특기를 살려서 많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동아리에서 다은은 여러 가지의 역할을 담당했다. 배우, 중국어 선생님, 대본 번역팀의 팀원, 연기 지도자 등의 역할도 했다. 즉,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친구에게 중국어 발음을 가르쳐 주고, 중국어 대사를 녹음해서 보내 주고, 연기까지 봐 주었

다. 대본 팀에서는 대본 번역도 하고 마지막 대본을 번역 검토하는 역할도 맡았다. 이처럼 담당하는 역할은 많았지만 다은은 자신의 특기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몹시 뿌듯했고 좋았다.

<그림 3 예진대학교 원어연극>

이외에 다은은 중국어 멘토 활동도 했다. 이는 한-중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멘토 활동이다.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중국어를 어렸을 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지 않아,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활동하게 되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에 아이들이 수업에 대한 집중도는 낮았다.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의 집중도를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다. 그러다가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문화를 조금씩 소개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아이들이 중국 문화와 중국어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같이 수업했던 아이들의 수업 후기를 들어보면 '수업 재미있었다', '중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중국어 원어 동화책을 읽을 수 있었다'라고 했다.

다은의 꿈은 통역사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통해 중국어 봉사활동이 있

는지 일일이 다 찾아보았다. 눈에 띄는 중국어번역 봉사활동은 중국어 'UN 아동 권리조항' 번역과 관련된 활동이었다. 꿈이 통역사인 다은은 고민 없이 바로 지원했다. 그곳에서 오리엔테이션에도 참가하고 어떤 식으로 번역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다은은 자신의 중국어 실력에 대해서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더 어려운 조항을 번역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다은은 우선 짧은 조항부터 번역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짧은 두 줄을 번역하는 데 한 시간이나 걸리는지 꿈에도 몰랐다. 또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기 위해 아동 권리와 관련된 법 조항들, 그리고 각종 전문용어 뜻을 찾기 위해 중국 사이트와 한국 사이트 모두 다 찾아보았다. 그리고 단어의 뜻을 알고 나면 단어의 배열, 문장의 흐름까지 고려하면서 번역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조항 10개 정도 맡았지만, 일주일 동안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번역을 진행했다. 열심히 번역했던 결과물을 봉사활동 담당자에게 보냈는데, 바로 다음날에 '번역 수정 부탁'이라는 메일을 받았다. 파일에는 수정해야 할 부분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다. 다은이 찾고, 생각했던 전문용어도 다 틀렸고, 단어 배열도 지적당했다. 다은은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함을 느꼈다. 바로 수정 작업에 들어갔고, 틀렸던 부분,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용어들 모두 다 메모를 했고, 번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 차례 수정 작업을 진행한 결과 다은이 번역했던 조항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다.

또 다은은 통번역과 관련된 활동도 많이 찾아보았고 작년에는 예진대학교에서 열리는 '하이문 제44차 모의유엔 대회'의 한중 통역사를 지원했다. 고등학교 때도 'UN 아동권리 조항'을 번역한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토대로 면접에서 이야기했고 최종 합격하여 중국어 통역을 맡게 되었다. 이때도 유엔 조항에 대해 번역해야 했기 때문에 다은은 배경 지식과 단어 선택 모두 매우 중요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사이트 '바이두 (百度) '에서 주제와 관련된 자료와 전문 용어를 찾고, 네이버에서도 비슷한 자료를 찾아 한국 자료와 중국 자료를 비교하면서 배경지식을 공부했다. 그리고 어려운 단어를 번역하기 전에 그 단어에 해당하는 모

든 뜻을 사전에서 미리 찾아보고, 그 단어가 중국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신중하게 번역했다. 밤을 새우며 번역을 했지만 열심히 한 만큼 대회를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몹시 뿌듯함을 느꼈다.

다은은 이러한 번역 활동하면서 번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번역을 잘하려면 두 나라의 언어를 잘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다. 다은은 중국 작가 위화가 쓴 소설을 많이 읽었다. 그러다가 '중국어 버전도 읽어보고, 한국 버전과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똑같은 내용을 중국어 버전을 읽고, 한국어 버전과 비교하면서 읽어보았다. 중국어 버전에서 많은 한자 성어와 중국 속어가 나왔는데, 한국어 버전으로 다시 읽어보니 번역사가 어려운 한자 성어를 한국어로 쉽게 풀어서 번역해서 읽기가 더 편했고, 스토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소설의 두 가지 버전으로 읽으면서, 다은도 나중에 번역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번역사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다은이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듣는 말은 "중국어 되게 잘 한다", "중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잘하는 거지", "중국어 공부 아예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였다. 하지만 다은은 지금까지도 중국어와 한국어 학습을 꾸준히 하고 있다. 오히려 다은의 중국어와 한국어의 실력이 떨어질까 걱정돼서 더 열심히 보고, 듣고, 외우고 있다. 모든 일이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다은은 과거에도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4. 라희: 중국어는 나의 "도피처"이다.

라희는 어머니가 중국 사람이고 아버지는 한국 사람인 한국의 다문화가정에서 자랐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중국어로 된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방학 때는 중국에 계신 친척들을 만나러 가곤 해서 중국어의 말하기와 듣기는 잘 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읽기와 쓰기 는

부족했다. 라희는 다문화가정이지만 초, 중, 고는 한국학교를 다녀 한국 학생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라희는 중국어 특기를 살리고자 고등학생 때부터 중국어 말하기 대회나 중국 문화 탐방활동에 참여했고, 3학년부터 중국어 특기자 전형에 준비하기 시작했다. 1년 동안 준비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읽기 쓰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한국 예지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나 대학 커리큘럼에서는 기초중국어부터 들어야 하는 상황인데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만 진행하여 지금은 한국 대학에 다니면서 동시에 중국 대학 유학도 준비 중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라희는 아빠가 한국인 어머니가 중국인의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어머니를 통해 중국어를 무의식적으로 습득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주로 수동적으로 중국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라희의 언어 환경은 주로 한국어이다. 그래서 일상생활 회화는 한국어로 진행하지만 어머니와는 중국어로 대화했다. 그래서 중국어 환경에서는 간단한 문장을 알아듣고, 옳고 그름, 정반문, 선택에 대답할 수 있었다. 라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중국어는 어머니때문에 자연스럽게 습득했어요.,, 아주 어릴 때였나 유치원, 초등학교때는 제가 잠투정이 많아서 어머니가 중국어로 신데렐라랑 백설공주 읽어줬던 거 같은데 기억이 잘 안나요., 근데 그때는 자는게 목적이라 어려운 말 말고 간단한 문장만 토막토막 알아들었고, 공부하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리고 좀 커서는 어머니가 하는 말들을 좀 알아들었던 거 같은 데,, 비밀 같은 거 이야기할 때 남들이 못 알아듣게 어머니가 저한테 중국어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중국어가 자연스럽게 저한테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접하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가 없는데,,, 뭐 6개월 정도 외할머니께서 우리집에서 생활했던 게 도움이 됐다고 어머니가 말했어요. 전 6개월이나 머물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적이 있었대요.
> 처음엔 어머니가 쓰는 게 중국어인지 모르다가 (다른 집도 다 어머니랑 아빠랑 다른 언어 쓰는 줄 알았어요.) 다섯 살인가 여섯 살 즈음 외할머니 집에 가면서 어머니가 쓰는 게 중국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한테 막 질문을 했는데 다 어머니가 쓰는 말들을 하 길래 그때 중국어인줄 알았죠. 그때 사촌동생이 놀던 자동차 장난감들 보고 이게 뭐예요? 했는데 다들 쳐다만 보고 대답을 안 해주시 길래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제가 한국어로 말하는 걸 대충 눈치로 알아채셔서 중국어로 대답해주시더라고요.

사춘기인 초4에서 중1까지는 저항의 시기이다. 그래서인지 라희는 중국어로 말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고향인 중국에도 거의 가지 않았다. 라희의 어머니는 라희가 남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싫고 반쪽짜리 중국인으로서의 사는 것이 저항의 주된 원인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

중2부터 고2까지는 능동학습 시기이다. 민감한 사춘기를 지나고 나면 특히 학교 교과목 중 중국어 과목을 접하고 난 후 라희는 자신이 중국어 과목에 다른 친구 비해 우세에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 때부터 중국어를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주로 중국어 방문교육기관의 개인과외를 통해 학습을 했다. 라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중학교 올라오면서 중국어 과목이 생겼는데 그때 남들보다 잘 했던 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교과서로는 그때 처음 공부했어요!! 근데 나름 잘해서 친구들이 제 시험지랑 답을 맞추러 오고.. 그랬어요.

라희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중국어 공부를 인생 계획과 연결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또 고등학교 2학년 중국어 학습 도우미의 경험을 통해 '함께'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라희는 급우들과의 질의응답은 복습과 부족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이를 통해 타인과의 소통을 하는 가르침 또한 좋은 공부법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공자문화센터에서 주최하는 중국문화교류 멘토링 봉사를 통해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비롯해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초등학생 아

이들을 가르쳐 본 적이 없기에 개념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학교 선생님의 수업 방식을 관찰했다. 선생님은 호기심 자극을 통해 학생들의 집중력을 끌어내 학급 분위기를 형성해 수업을 진행하곤 하였다. 이를 보고 라희는 아이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그림을 이용해 학생들의 집중력을 끌어내는 맞춤형 수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직접 타인을 가르쳐 보니 라희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파악하게 되어 중국어 기초를 단단히 할 수 있었고,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해 시간과 노력을 필요한 곳에 적절히 투자할 수 있게 되어 더불어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꼈다.

라희는 주로 방송매체를 이용해 중국어 공부를 하였다. 매일 등하교 시간을 활용하여 중국어 라디오를 듣는 것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을 배울 수 있었고, 라디오를 따라 말하며 성조 연습을 하여 한 층 자연스러운 발음을 익힐 수 있었다. 또 좋은 단어, 좋은 문장들 그리고 자주 쓰이는 중국어 관용구를 따로 공책에 정리하고 암기하여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받아쓰기를 통해 쓰기 역량 또한 키울 수 있었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문장과 단어를 공책에 정리하고 암기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한 어휘는 무작정 외운 단어들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장기적으로 암기할 수 있었다. 이런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중국어 교과우수상을 받게 되었고, 실력은 열정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교내 시간 관리 프로그램 중 번역 활동은 문화 이해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 좋은 계기였다. 활동 초기에는 원문의 내용 그대로를 중국어로 정확하게 번역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각 나라의 문화의 차이로 인해 한국에는 있지만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여러 단어들이 있고, 원문의 좋은 문체를 그대로 번역할 수 없음을 알고 어휘선정의 한계에 아쉬움을 느꼈다. 기획단 단장으로서 더 나은 번역을 위해 고민한 끝에, 정확하고 좋은 번역을 위해서는 문화의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지 교육 문화에 대해 학습했고, 사자성어'自强不息'과 '冰凍三尺非一日之寒' 같이 중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과 의욕이 솟아

나도록 북돋아 주는 표현을 넣어 원문을 중국의 정서에 맞게 다듬고 수정했다. 원고의 문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없음에 여전히 아쉬움이 남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전문 지식을 쌓아 발화자의 의도 또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번역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라희가 2학년 때 자율동아리 컬쳐쇼크 활동을 통해 현재 중국에 경제에 대해 심도 있는 학습을 하게 되었다. 중국의 QR코드를 이용한 결재 방식인 핀테크를 주제로 중국의 현금 없는 사회를 발표한 적이 있다. 중국 매체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결제 방식이기에 흥미를 가지고 발표를 준비하던 중 핀테크가 중국에서 흥했던 이유가 궁금했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신문기사와 뉴스를 바탕으로 자료를 탐색하였고, 조사 끝에 중국은 신용카드를 만들고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그 당시 성행하던 위조지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테크 방식을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O4O(On-line for Off-line)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마케팅 방법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를 보고, 중국과 한국이 가진 기술을 교류한다면 상호 이익이 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에 한국과 중국의 국제적인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또 라희는 언어 및 문화 자율동아리 '브루마블' 활동을 통해 인권의식을 키워 나갔다. 코로나19 대처방안 발표 활동 중 중국의 대처방안을 맡아 팀원들과 함께 자료를 조사했다. 하지만 주제에 알맞은 기사를 찾기 어려웠고, 찾아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기사뿐이었다. 단장으로서 퀄리티 있는 자료를 찾기 위해 고민하던 중 중국 기사를 찾아 직접 번역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중국 사이트에서 기사 자료를 찾던 중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확산되면서 온라인에 중국인뿐만 아니라 아시아 혹은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글이 꾸준히 떠돌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라희는 이렇게 확인한 것을 토대로 중국의 대처 방안과 특정 집단의 책임으로 돌리는 혐오 표현이 갈등을 심화시키고,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증오를 선동하는 것으로 나아 갈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차별과 배제가 아닌 화합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라희는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중립적인 시야와 사회적 통찰력을 기를 수 있었다.

라희는 고등하교 2학년 끝날 즈음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내신 성적으로는 일반입시전형으로 입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중국어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중국어 특기자 전형을 선택해 이에 집중했다. 라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중국어는 어머니가 중국분이시라 자연스럽게 습득했다. 하지만 계속 한국에서 생활하다보니 중국어를 쓸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중국어에 관심을 갖고 대회에 참가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특기가 된 것 같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대회 나가보라고 추천해서.. 조금 하기 싫지만 꾸역꾸역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공자학당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였나?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냥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오는 줄 알고 그냥저냥 어머니 도움 받아가면서 원고 쓰고 대본 외워갔는데,,,, 막상 대회장 도착하니까 중국인분들 밖에 없는 거 에요… 그래서 그냥 아 내 대상 물건너 갔네 하고 속으로 눈물 흘렸어요. 근데 거기 다른 참가자 분들이 막 혹시 특기자 준비하세요? 하시 길래 특기자가 뭐지? 하고 찾아보다가 준비하게 되었답니다.. 특기자 준비하면서 대회 같은 거 좀 나갔는데 14회 중국어 말하기 대회인가 거기서 중국 사투리를 주제로 글 써서 대상도 받았어요!! 그리고 한어교는 코로나 관련해서 글 썼는데 기억은 잘 안나요. 그리고 특기자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중화연'에 나가서 같이 뮬란도 연기해보고 그랬어요.

라희는 특기자 준비를 시작하기 전 중국어에 나름 자신이 있었지만, 스스로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해도 현지에서 살다온 친구들은 못 이기겠구나 생각에 힘들었다. 라희가 100을 하면 살다온 친구들은 200을 하니 스스로 자괴감이 들었다. 그러나 통역이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져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다.

우수청소년 중국캠프 활동에 이어 라희는 중국에 대해 심도 있는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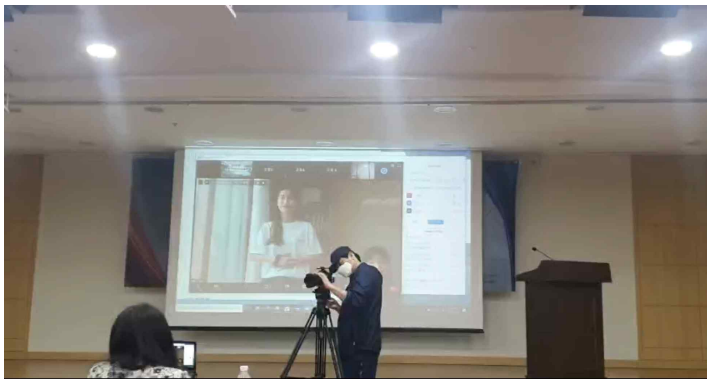
을 하고자 심근지여(尋根之旅) 라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열흘 동안 난징의 중산릉, 부자묘 등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여 중국의 역사를 공부하였고, 중국의 한의원, 방송국 등에 방문해 현재 중국의 현재의 기술을 알 수 있었다. 장쑤성 교육 방송국을 탐방하는 활동에서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쓰기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백두산 여행기를 주제로 여행하면서 있었던 일과 느낀 점을 서술하여 일등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또한 라희는 심근지여 활동에서 만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중국어로 소통하는 자신감을 북돋아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여러 국적의 친구들과 소통하다보니 중국의 문화뿐만 아닌 서양의 문화까지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이를 토대로 자연스레 중국어를 하지 못하는 한국 친구들의 통역은 라희의 몫이 되었다. 초기에는 한국 친구들의 말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한국에는 있지만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있었고, 문화 차이로 인해 친구들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 아쉬움을 느꼈다. 한국 단원 중 유일하게 중국어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라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나은 통역을 고민한 끝에 한국 친구들의 말을 중국 정서에 맞게 고쳐 통역을 하였다. 통역할 수 없는 단어는 과감히 빼고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찾아 중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에 맞게끔 전달하여 한층 자연스럽게 통역할 수 있었다.

라희는 3학년 때 중국어 말하기 실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발표 실력을 기르기 위해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가 주최한 '제 14회 중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여하여 대상이라는 만족스러운 성적을 거두었다. 처음 참가하는 말하기 대회였기에 원고의 주제 선정부터 막연하고 어려웠지만 평소 라디오와 예능을 통해 접해왔던 중국의 사투리인 동북어를 주제에 적용하여 원고를 작성하였다. 스스로 원고를 작성하여 수십 번 첨삭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지치고 힘들기도 했지만 할수록 재미도 있고 무엇보다 중국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완성한 '동북어 3급'으로 심사위원분들의 극찬을 받으며 대상을 받아 주한 중국대사관에

방문하여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대사로부터 상장과 장학금 100만 원을 수여받았다.

라희는 이 경험을 통해 중국어와 발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을 뿐더러 중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더욱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주한국대사관교육처에서 주관하는 한어교(漢語橋) 대회에 출전하였다. 한어교 대회는 원고 발표와 더불어 문화공연을 선보여야 하는 대회였기에 부담이 더욱 컸다. 퀄리티 높은 문화공연을 선보이고 싶었기에 오랜 시간 고민하다 원고의 '코로나19의 화합'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국가'를 부르며 수화를 하는 것으로 문화공연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공동체와 단결을 강조하여 은상이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어 중국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더욱 높아졌다.



<그림 4> 제 14회 중국어 말하기 대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라희는 유학 경험 없이 주로 각종 매체를 통해 중국어 공부를 하였다. 매일 등하교 시간을 활용하여 중국어 라디오를 듣는 것을 통해 중국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을 배울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중국어 말하기 시험인 OPIC에 참여하였지만 결과는 IH로 아쉬운 성적을 받게 되었다. 발음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여 라디오를 반복적으로 따라 읽어 성조를 다듬어 한 층 자연스러운 발음을 익힐 수 있었다. 이렇게 연습한 발음으로 다시 보게 된 OPIC 시험에서 최고 점수인 AL

를 받게 되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좋은 단어, 좋은 문장들 그리고 자주 쓰이는 중국어 관용구를 따로 공책에 정리하고 암기하여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받아쓰기를 통해 노트 테이킹 기술과 쓰기 역량을 키워 SNULT 1급 83점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문장과 단어를 공책에 정리하고 암기하는 습관과, 학습계획을 작성하여 '중국어 단어 100개 외우기' 나 'HSK 독해 3부분 풀기'등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라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공부한 어휘를 무작정 외운 단어들 보다 빠르고 장기적으로 암기할 수 있었다. 또한 앞서 심근지여 활동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소통할 때 중국어만 쓰이는 것이 아닌 영어도 함께 사용하게 된 적이 있어 외국인과 소통할 시 영어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었다. 이를 통해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통역과 국제회의를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어 공부도 병행하여 TOEIC 700점이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 라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저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hsk 3급 수준이었는데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니까 늘더라고요,, 맨날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했잖아요,, 특기자반 들어가서 중국어 짱 잘하는 친구들이랑 공부해서 그 영향도 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중국 예능이랑 중국어 라디오랑 보고 들으면서 듣기 실력도 늘리고,, 그리고 쌤이 하라고 하셨던 받아쓰기도 하면서 한자랑 독해실력도 늘린 거 같아요.. 덕분에 고 2때까지만 해도 알아듣기만 할 줄 알지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는데 이런 방식 덕에 빨리 실력을 올린 거 같아요. 그리고 방문 중국어 학습은 중2때부터 했어요. 5년째 과외 받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처음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시작한 중국어였는데,, 이해를 못해도 외우면 어느 샌가 이해되는 암기과목처럼,, 계속 대회도 나가보고 중국어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제가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뭘 하고 싶은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쭉 한 우물만 파오다가 운 좋게 제가 하고 싶은 걸 알게 된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게 뭐가 없는데,,, 중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 탄 거? 특별한가요? (특기자 준비한 친구들

은 하나씩 가지고 있을 텐데.. 이거 말곤 없으니깐 이거라도 쓸게요,,) 이때도 코로나 때문에 대회를 온라인으로 했는데, 집이라서 별로 안 떨었던 거 같아요. 줌으로 회의하는 거처럼 진행돼서 진짜 대회라기 보단 학교 조 모임 발표느낌..? 안 떨어서 대상 탄 거 같아요. 제가 처음에 참여했던 공자 대회는 좀 떨었거든요. 그리고 실력도 영 별로였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했던 거 같아요. 그때 질문 못 알아들어서 지금도 질문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때 이후로 중국어 공부도 좀 하고 환경적인 요인의 운이 따라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 거 같아요. 실패는 정말 많은 데,, hsk에서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온 것도 그렇고, 다른 대학 떨어진 것도 그렇고 실패의 경험은 많은 거 같아요. 다 제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겠죠..,

라희가 생각하기에 중국어 특기자의 대학생활은 확실히 다른 동기들보다 중국어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학년이지만 전공 수업 중 4학년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많고, 다시 중국어 기초를 쌓기 위해 초급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높은 성적을 받았다. 또 다른 동기들보다 중국과 관련된 활동도 많이 했기에 이해도가 높기도 하고, 라희는 이런 점을 이용해 학원에서 중국어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입학하기 전에 벌써 라희는 대학교 중국학부에서 필수과목인 중국고급정보정독과 교양과목 중 하나인 중국시사읽기 수업을 통해 중한 국제회의 통역사에게 필요한 중국 시사상식을 학습할 계획을 세웠다. 번역연습 수업을 통해 중한 번역에 대한 실제적 이해와 실용적 역량을 기르고 싶고 2학년이 된 이후에는 남경사범대학 7+1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나아가 유학 경험이 없기에 알지 못했던 중국과 관련된 지식들을 현지에서 중국어와 중국문화, 중국통상 및 중국경제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을 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싶다. 이와 같은 예지대학교의 수업을 통해 이제 초대강국으로 비상하는 중국을 배경으로 언어장벽을 허물고 세계를 이어나가는 자신의 꿈과 포부를 실현하고 싶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해와 올해 대학에 입학한 '20학번' '21학번' 신입생들은 대부분 강의실 구경 한번 하지 못했고 동아리 활동이

나 선후배 간 친교를 맺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 또한 취업을 앞둔 3, 4학년들은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원격근무 확산으로 방학 중에 변변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기회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중소기업들도 줄줄이 정기공채에서 수시채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라희 또한 나 홀로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무기력하게 생활하던 대다수 코로나 학번 중 하나이다. 코로나로 인해 대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제한되었다. 라희는 동아리도 못하고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니, 대학교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라희가 다른 연구주 참여자보다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이다.

Ⅳ. 중국어 특기자의 학습 생애 특징

중국어 특기자 전형의 경우 중국어를 할 줄 안다고 어학특기 입시제도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특기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중국어 특기자들이 중국어 학습 과정에서 중국어 실력이 크게 향상된 원인을 학습생애적인 특징에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이번 장에서는 중국어 특기자 학습생애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1절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부모, 선생님, 친구) 언어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짚어본다. 아울러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중국어 특기자가 중국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인적 지지를 받았는지 분석한다.

2절에서는 중국어 특기자들의 중국어 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의 내적 동기가 외적인 동기보다 오래 지속되고 힘이 있으며, 내적 동기가 학습 효과도 좋아 학습을 촉진하는 진정한 동력이 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3절에서는 중국어 특기자들이 중국어 학습 과정에서 만난 실패와 역경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보고 학습 중에 일어난 역경이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1. 인적 지지와 학습

언어는 소통을 위한 것 즉, 사람과 사람간의 이해를 위한 것이다.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며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언어학습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학습자들에게 주변 사람은 언어학습에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란 우리와 가장 가깝게는 가족들(특히 부

모), 언어 학습에 도움을 주는 선생님, 같은 언어 학습 과정을 함께 거치며 의지와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다.

1) 부모의 지지

가정마다 자각하든 못 하든 자신의 문화자본을 다음 세대에 전달한다. 외국어 학습에 대한 비전과 교육은 외국어 학습자 부모의 안목과 능력을 보여준다. 물론 부모가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면 조기유학을 보내거나 학원에 보내서 외국어를 공부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중국어 특기자들은 소위 말하는 부잣집 아이들은 아니다. 내가 오래 시간 강의하면서 관찰한 것은 중국어 특기자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하 출신이라는 것이다. 그 중에 이혼이나 별거 등의 문제를 가진 가정도 많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과 관계없이 부모님의 관심과 지지, 선견지명이 있으면 학생의 중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인 가훈, 나경, 다은, 라희도 중국어 학습 과정에서 부모님의 많은 도움과 지지를 받았다.

가훈은 장사하시던 부모님의 성격을 닮아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했다. 또한 부모님의 권유로 중국어를 시작했으며 부모님은 중국어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가훈을 데리고 경복궁 같은 관광지로 가기도 했다. 나경은 선견지명이 있으신 아버지의 권유로 중국에 조기유학 갔고, 교육을 중요시 생각하는 어머니의 권유로 HSK 시험을 보았다. 지금까지의 실력을 쌓게 된 것은 부모의 지지와 관련이 있다. 다은은 어머니가 한국으로 재혼을 왔지만 다은에 대한 관심은 변하지 않았다. 새 아버지도 다은에게 많은 관심을 주었고, 이러한 부모님이 다은에게 준 높은 기대감으로 다은은 동력을 얻었다. 라희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중국인이어서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웠고 중국어와 관련된 일을 인생의 진로로 택했다. 특히 중국어 말하기대회, 중국어 6급 공부를 할 때 중국인인 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부유한 환경에서 학습을 이어가지는 않았지만 부모

들은 자신들의 부유하지 않은 환경과 고됨을 학습자 즉 아이들에게 전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학습자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지지해 주어 학습자의 언어학습에 도움을 주었다.

예컨대 가훈의 열정은 가훈의 본질적인 성향과 자라 온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어릴 때부터 가게를 하시던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던 가훈은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였고, 이러한 경험은 가훈이 학교에 다니던 시기에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가훈은 이러한 관계에서 온 평안함과 행복으로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줬고 이러한 관계에서 느끼는 평안함이 가훈으로 하여금 모든 일들에 적극성을 갖게 해 주었다.

또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 밑에서 자랐던 가훈은 삶에 대한 열정과 업무에 대한 집념을 무의식 속에 보고 배웠다. 아이들의 생활 습관, 인생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훈도 부모님의 성향을 이어받아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 열심히 임하는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 이러한 환경에서 훈련된 가훈의 생활 습관은 이후 가훈이 중국어를 학습하는 과정 중 시련과 실패 앞에도 열정을 잃지 않고 성실히 임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가훈이 다녔던 아파트 단지 내의 해법 중국어 교실은 전문적인 중국어 교육이라기보다는 제2외국어를 쉽고 편하게 배울 수 있는 간접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가훈과 함께 공부하던 다른 학생들은 중국어 공부에 그리 큰 관심을 가지진 않았다. 그러나 가훈은 이런 상황을 자기의 기회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어진 시간 안에 중국어를 공부했다.

또 가훈이 인사동에서 만난 중국 사람은 중국어를 사랑하고 중국 문화를 사랑하는 가훈을 예쁘게 봐 주었으며, 중국 청두에 살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기도 해서 가훈을 청두와 미국에 초대해 주였다. 또 아들이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셔서 매번 한국에 오면 가훈을 미군 기지로 초

대해 주어서 가훈에게 값진 다양한 경험을 선물해 주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가훈의 인생 속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한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중국어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며 중국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가훈의 자기보고서에서도 “예쁘게 봐 주셨으면” 이라는 표현이 많은데 이는 가정의 영향으로 보인다. 즉, 장사하시는 부모님께서 손님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좋게 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가훈의 자기보고서에 반영된 것이다.

나경은 대화를 할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한다. 아버지가 대기업을 다녔기 때문에 나경의 대학 학비는 아버지 회사에서 모두 부담했다. 나경이 삼수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부모님의 경제력도 한 몫을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나경의 어머니는 검정고시학원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나경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모두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하고 같은 나이의 친구들보다 1년 더 빨리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삼수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았다.

다은의 어머니는 먼저 한국에 와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하면서도 다은을 방관하지는 않았다. 다은을 잘 봐 주는 외고모 할머니의 댁에 맡기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했다. 외고모 할머니는 다은의 성적을 매우 귀하게 여겼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모두 90점 이상 넘을 수 있도록 자극을 줬다. 외고모 할머니와 외고모 할아버지가 다은에게 주신 사랑과 관심, 그리고 어머니의 경제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다은은 즐거운 초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와 새아빠 또한 다은의 학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여 주어 다은의 학습에 동기가 되었다.

한·중 수교(1992.8.24)가 오래 되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한국에게 중국은 제1의 교역 대상국이고, 중국에게 한국은 제3의 교역 대상국이었다. 또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중국은 한반도 평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한편 본 연구의 참여자는 주로 2000년 전후에 출생한 아이들이다. 이 시기는 중국이 WTO 가입(2001)과 2008년 올림픽 유치(2001)로 세계 시장에

편입된 시기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아이들이 취학연령이 되었을 때는 미국발 금융위기(2008)로 인해 중국이 국제문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중국어의 중요성은 한층 강조되었다.

영어 교육에 대한 중시도 한국 부모들의 관심은 말할 것도 없고, 선견지명이 있는 부모들도 중국의 성장 잠재력을 봤다. 아이를 키우면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가훈, 나경, 라희 같은 경우는 중국어 학습의 스타트를 부모의 중국 미래 발전에 대한 선견지명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 시절 가훈은 야구선수가 되고자 하는 장래희망을 가지고 엘리트 체육에 참여했지만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야구선수를 포기해야 했다. 이후,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어떤 진로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던 중에 부모님께서 중국이란 국가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가훈에게 중국어 학습을 제안하였다. 가훈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중국어를 본격적으로 접하였다.

나경은 부모님의 사업 때문에 중국에 간 것이 아닌, 나경의 아버지의 권유로 인해 중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다. 나경의 아버지는 언어 하나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나경의 장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나경을 중국에 보내고자 하였다. 이에 나경은 11살에 중국으로 갔다. 중국에서 막 돌아왔을 때는 어머니 권유로 중국어 학원을 다니며 HSK 5급을 취득했다.

라희는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가 중국인의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다. 라희가 태어난 시기에 대부분 한국에 시집온 중국 여성이 한국 이민정책이 아직 완화되지 않은 이유로 중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으로 귀화했다. 하지만 라희의 어머니은 고학력의 중국인 결혼 이민자로 중국국적을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것이 라희의 중국어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많은 관심을 가졌다. 라희는 태어나고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어머니를 통해 중국어를 무의식적으로 습득했다. 어머니가 한국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을 중국어를 통해서만 했다.

아이가 어려움과 문제에 부닥쳤을 때 부모는 아이의 가장 좋은 도움의 대상이다. 이 시점에서 부모가 자신의 경험이나 자원, 혹은 신뢰나 용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조언해 준다면 아이는 난관을 잘 극복하고 플랫폼을 돌파하여 또 다른 고도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훈이 어떻게 중국 친구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가훈의 부모님께서는 가훈에게 주말마다 경복궁, 인사동과 같은 중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에 가서 중국인들과 대화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권유를 하였다. 또 수많은 중국인 여행객 안에 둘러싸인 가훈은 누구에게 어떠한 말로 그들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이 지나가는 중국인에게 '보디랭귀지'를 통해 "내 아들이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시간이 있으면 몇 마디 해주겠어요?"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였고, 가훈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가훈은 다양한 중국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다.

나경은 삼수 할 때 어머니가 많이 반대하여 나경과 많은 갈등이 있었다. 어머니는 나경이 삼수를 고집해도 실패를 걱정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전문대를 열심히 다니기를 원했다. 하지만 삼수를 하더라도 가정 경제에 큰 무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도 결국 나경에게 큰 지지가 되어 주었다. 부모님은 나경이 최종적으로 예진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나경의 노력에 감동을 받았다.

다은은 한국으로 온 이후로, 중국 초등학교에서 해왔던 모든 노력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고 자신감도 바닥까지 떨어졌다. 처음에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매일 게임만 하거나 중국 드라마만 시청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다은을 한국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전에 같이 교장선생님을 뵙게 되었는데, 그때 부모님이 교장선생님께 했던 말을 다은은 아직도 기억한다. "우리 딸은 공부를 되게 잘한 아이예요, 중국에 있을 때 반장도 하고, 성적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적도 우수했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잘할 거예요"라고 이야기했다.

다은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마음속으로 '나는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대

로 공부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부모님의 믿음을 깨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 뒤로 한국어 공부와 학원에서 내주었던 숙제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또한 다은은 중학생이 되어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다. 하지만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 바람에 다른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갈 수밖에 없었다. 다은의 부모는 그 도시에 있는 가장 공부 잘하는 학교를 알아보았고, 그 학교에 꼭 합격하면 좋겠다고 다은에게 말했다. 그래서 다은이 3학년 때는 1, 2 학년 때보다 더 독하게 공부를 했고, 3학년 성적은 1, 2 학년보다 더 잘 받아서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라희는 중국어를 공부할 때 모국어가 중국어인 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처음 중국어 특기자 준비를 시작했을 때는 HSK는 4급 수준이어서 HSK 6급 수업을 거의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그날 배웠던 것 중에 모르는 것들이랑 이해 안 되는 것들을 여쭤보면 어머니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라희가 이걸 자기가 풀 수 있을까? 자기가 중국에서 살다온 애들이랑 같이 수업들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 많이 들었는데 어머니랑 같이 추가적인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 어느 순간 감이 잡히기 시작하고, 어떻게 푸는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중국어를 공부한 것이 라희에게는 도움이 많이 됐다.

2) 선생님의 지도

언어라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배우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언어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교수자와 학생 간의 유대감, 신뢰감, 이해와 관심의 작용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정서적 의존도가 높다. 특히 외국어라는 낯설고 어려운 난관 앞에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교수 방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는 교육학은 관계학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교육의 시작은 먼저 친밀한 사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새 학기마다 학생의 이름을 빨리 외우고, 면담을 통해 학생의 학습 배경, 학습의 어려운 점을 파악해야 한다. 만약 학생이 선생님인 내가 학생을 잘 아는 선생님이라고 느낀다면, 수업 분

위기는 더욱 좋아질 것이다. 또 교사는 한 반의 전체 학생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과 일대일 관계를 맺어야 한다. 모든 학생은 “30분의 1”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 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이다.

가훈, 나경, 다은, 라희는 중국어 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들 중에는 학교 교육 시스템 안에 있는 선생님도 있고 사교육에서 만난 선생님도 있다. 간혹 맞지 않는 선생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특히 가훈, 나경, 다은, 라희의 중국어 학습을 도와주신 선생님들은 모두 이 학생들과 관계를 잘 유지했다.

<논어>에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 그 중에는 반드시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그중 선한 자를 보면 그에 따르고 불선한 자를 보면 나의 잘못을 고친다.”(三人行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라는 말이 있다. 가훈은 공자의 이 말씀을 생활 중에 잘 실천하고 있다. 가훈에게는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많다. 가훈 부모 가게 주변에서 함께 가게를 하시던 중국 동포 분들, 가훈의 동네에서 개최되던 농협대학교 국제 테니스 대회 참가하는 중국 선수들, 집 근처 아파트 단지 내의 해법 중국어 선생님, 중국 노래, 경복궁과 인사동거리에서 만난 중국인 관광객 등 모두가 가훈의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다.

나경이 다녔던 고등학교는 2학년 때 제 2외국어로 중국어를 배웠다. 그 중국어 선생님은 임용고시가 없을 시절에 선생님이 되었던 분이었는데 고지식하고 중국어를 잘 가르치지도 못 했다. 수업 방식은 매우 구식이어서 수업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은 중국어 시간마다 다른 과목을 공부하기 바빴다. 또 그 선생님은 폭언도 많이 했는데 퇴임이라 학교의 다른 선생님들도 그 선생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 선생님에게 무언가 부탁하러 갈 때마다 막말을 들으며 혼나고 왔던 나경은 그 때 학교에서 처음 울었다. 나경은 절대 그런 선생님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때 나경의 꿈은 도덕적이고, 중국어를 정말 재미있게 가르치는 중국어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진정한 교육은 일대일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 교육은 지식과 사람 간의 일도 아니고, 시험지와 사람 간의 일이 아닌,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다.

나경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하루에 20분정도 전화 중국어 수업을 진행했다. 처음 전화 중국어를 신청했을 때, 선생님께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HSK를 같이 공부하고 싶은지 나경한테 물어봤다. HSK 공부를 택하였는데 선생님이 직접 교재를 구매해 한국으로 배송해 주었다. 전화 중국어 수업을 하기 전까지 선생님이 내 준 숙제를 미리 해 오고, 전화 수업 당일에 정답을 체크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 같이 책을 보며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나경은 전화로 하루에 10~20분씩 HSK를 공부하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작문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오직 독해를 함께 공부했었는데, 모르는 것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보거나 세세한 설명을 듣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배운 것이 많이 없기도 하였고, 전화 수업 시간에 쫓기면서 배우다 보니 자격증 공부에 대한 흥미를 더 잃게 되었다.

이후 두 번째 선생님과는 일상적인 내용 위주로 대화를 진행했다. 나경의 진로, 선생님의 직업, 나경의 학교생활 등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대면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굉장히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었다며 나경에게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였고, 당시 선생님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며 나경은 중국의 문화적인 부분도 짧게 배울 수 있었다. 친밀감을 만들고 나서 공부를 더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 나경은 전화 중국어 수업을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했다. 당시 여러 대회를 준비하면서 선생님과 전화 수업을 할 때마다 대회 원고 피드백, 발음, 감정연기 등을 전화 통화를 통해 들려주며 피드백을 받았었다. 나경이 대회에서 상을 받아 선생님께 사진으로 보여 주기도 하며 많은 부분들에 있어 친밀한 교류를 이어 나갔다. 이처럼 전화 중국어는 나경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또한 첫 번째 선생님과 두 번째 선생님을 대조해 보면 선생님과 학생이 유대감과 신뢰감 형성하고 난 후 교수 학습 시 훨씬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진정한 교육은 일대일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 중국어의 퇴보

를 막고자 시작했던 전화 중국어 수업은 나경의 중국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물론 나경은 전화 중국어 수업은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 불편한 점도 있었다. 그러나 나경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중국어로 배워 나가는 수업은 공간적인 제약이 없어 덜 스트레스를 받으며 공부했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가훈은 내가(연구자) 가훈에게 중국어 학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선생님이라고 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연구자인 나의 학생에게 공감해 주는 공감력 때문이라고 했다. 가훈은 내가 수업에서만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학생들의 고민 상담 선생님 되어주었다고 했다. 매시간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 그리고 각 학생에게 일어난 일 등 다양한 이슈들을 학생과 함께 공감해 주었다는 것이다. 가훈은 교육이란 교육을 행사하는 선생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퍼포먼스에 대한 반응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한유는 『사설(師說)』에서 스승은 “전도(傳道)·수업(授業)·해혹(解惑)”이라고 했다. 즉 선생님은 자신의 전공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의 길을 막막해 하는 학생들을 안내하고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수하며, 의문을 풀어주는 사람이다. 중국어 공부, 특히 중국어 특기자들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대학입시를 앞두고 관련 분야에 전문적이고 학생들을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끌어 주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훈은 이전까지 거주하고 있던 동네에서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다양한 학습법으로 또 다양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1학년 겨울에 참가했던 금호 아시아나 전국 중국어 대회에서 만난 선배들로부터 나를 알게 되었다. 가훈은 먼저 메일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과 목표를 설명하였고 중국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려는 첫 번째 시간부터 나와 늘 함께 했다. 아래 자기보고서에서 가훈이 이렇게 말 했다.

> 중국어 학습 과정에서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선생님은 당시 강남 빈빈학원 소속에 ‘손예초’ 선생님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제가 발견한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학생의 자신감을 끌어올려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과 학생에 성향을 잘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중국어 특기자를 준비하려는 당시의 저는 일반적으로 특기자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매우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여 그들과는 다른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예초 선생님은 그러한 저를 다른 학생들과 달리 대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하시며 수업 전후에 시간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손예초 선생님은 어떠한 선생님보다 각 학생의 특성과 성향을 잘 파악하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의 성향과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은 학생에 알맞은 방법과 길을 제시한다는 것 입니다. 중국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던 저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중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손예초 선생님께 사실 중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며 만약 한국에서 대학을 가야 한다면 예진대학교 이외에는 큰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손예초 선생님은 자신이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부분과 제가 원하던 성향의 적당한 선을 잡아 저의 대학입시를 도와주셨습니다.

나경은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나와 만났다. 원래는 중국언어문화학부에 지원하려고 했지만, 나는 중국외교통상학부에 넣어보자고 했다. 원래 중국외교통상학부가 조금 더 높은 편에 속해 나경은 주저했지만, 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꼭 도전해보자고 했다. 그렇게 나경은 중국외교통상학부를 준비하며 자소서도 전부 다 고치고 면접 내용도 다시 처음부터 준비하게 되었다. 결국 2년 동안 중국언어문화학부 1차에서 떨어졌지만 3년째에는 더욱 어려운 중국외교통상학부에 최종 합격했다. 나경은 대학을 다니며 생각해 보니 현재의 과가 나경과 더 잘 맞았다. 나경도 “선생님의 말씀대로 하길 잘한 것 같다”며 만족했다.

다은은 중국어 특기자 준비하는 초기에 학교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오히려 전문성 떨어지고 시간과 노력을 많이 낭비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다은의 상황을 알고 ‘특기자’라는 전형도 있다는 것을 알

려주었다. ‘수박 먹고 대학 간다’라는 대학교 입시 준비 책을 빌려주면서 특기자 전형 포함되어 있는 대학교와 목표대학 다섯 개 정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다은은 그 책을 보면서 목표대학을 ‘예진대학교’로 정했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꾸준히 정시만 준비하고,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시만 준비하였다. 하지만 중국어 특기자는 대학교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양해서 다은은 친구들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했다. 또 다은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HSK6급을 준비했다. 중국에서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을 보았는데, 300점 만점 중에 263점을 받았다. 다은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도 263점이 높은 점수인 줄 알아서 더 이상 HSK6급 자격증을 따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어 준비 대신 내신과 교내활동을 더 열심히 하면서 바쁜 고등학교 1학년을 보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은은 또 다시 새로운 담임 선생님과 진로상담을 진행했다. 담임 선생님이 다은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FLEX중국어’라는 자격증도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FLEX중국어’와 관련된 문제집을 사서 집에서 하루 종일 풀어보곤 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새로운 담임 선생님과 만나서 진로상담을 진행했고,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중국어와 관련된 대회를 알려주었다. 다은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했고 참가할 수 있는 대회를 모두 참가했다.

하고자 하는 일 중에 선택과 집중해야하지만 다은의 중국어 특기자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전문적이지 않은 선생님의 정보 때문에 선택에 집중하지 못 했다. 특기자를 준비하려면 중국어 관련 공인어학성적, 중국어 관련한 활동, 중국어 실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학교 내신 성적 수능 등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서 결국 다은은 고3 때 대학 입시 실패했다.

라희의 중국어 선생님은 바로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라희에게 중국어를 깨우치게 해 주었다. 하지만 라희가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어머니께서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정체성 혼란을 겪었다. 이후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중국인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많은 중국어 관련 대

회를 참가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노력 외에도 중국어 학습에 심도 깊은 지도가 필요해 1대 1 과외도 하고 중국어 학원도 함께 병행한다.

라희는 확실히 어머니한테 배우는 것과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은 많이 다르다고 느꼈다. 라희 어머니도 중국 사람이니까 가르치거나 설명 부분에서는 막힘이 없었는데, 가끔 라희가 모르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실 때가 있었다. 라희는 들어서는 알지만 한자로 보면 모르는 것들이 많았다. 반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알아듣는데 왜 읽지를 못 하냐며 이해를 못 할 때가 많았다고 한다. 이런 문제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발생하는 일인데 듣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읽기가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을 흔히 겪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충하려고 1대1 과외 수업을 받기도 하고 학원을 다니기도 했는데, 확실히 어머니와 할 때는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선생님들은 하나하나 잡아 주어 도움이 많이 됐다.

3) 친구의 격려

아이들이 속한 집단은 그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아이의 학업에 대한 태도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의해 좌우된다. 만약 아이가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며 환경 또한 주변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성적이 더 우수할 가능성이 높다. 아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어떤 친구를 사귈지 선택하는 범위가 넓어져 동년배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다.

중국 고대부터 전해지는 말이 있다. '혼자 배우고 벗이 없으면 외롭고 견문이 좁다(獨學而无友, 則孤陋而寡聞)'이다. 가훈, 나경, 다은, 라희 역시 중국어 학습 과정에서 이들을 도와주고 격려하는 친구들과의 상호관계는 중국어 학습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특히 외국어를 접근할 때 주변의 환경이 중요하며 또래 친구가 있으면 더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다. 한 번도 중국에 가보지 못한 가훈이 한국에서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성장 시킬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중국 친구 사귀기였다. 중국어 공부를 하고, 중국어 노래를 듣던 가훈은 중국이란 나라에 더 큰 관심이 생겼고 그 관심은 자연스럽게 중국 사람

들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졌다. 부모님의 권유로 가훈이 중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에 가서 중국인들과 대화하고 중국 친구를 사귀었다. 가훈은 '커버곡'들을 제작하였고 여러 중국 친구들에게 전송하여 그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국어 공부에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나경은 조기유학 시절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나경이 중국 유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중국어 학습도 흥미롭게 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이다. 나경은 처음에 중국의 사립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였는데 반에는 한국인 친구들이 많았고, 그렇기에 중국어는 늘지 않았다. 나경이 나중에 전학을 온 입장이라 한국인 친구들에게 은유적인 따돌림도 당해 이후 일반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전교에 한국인은 나경을 포함하여 3명이었고, 모두 다른 반이었다. 중국인 친구들에게는 나경이 신기했던 탓인지 친구들도 금방 만들 수 있었다. 특히 당시 소녀시대, 원더걸스 등 K-pop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던 터라 관심 많은 중국 친구들 덕에 중국어도 빠르게 늘게 되었다. 이 중 중국인 친구 한 명과 매우 친해져서 그 친구 집에 가보기도 하고 그 친구의 부모님과도 친하게 지냈다.

다은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에 전학 왔다. 처음에 학교 다닐 때 아는 친구도 없어서 많이 외로웠고, 말을 통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매일 전자사전을 들고 다녔다. 다은 뒷자리에 앉은 친구 두 명이 다은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알아듣긴 하지만 모르는 말이 나올 때 다은은 전자사전을 이용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그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다은의 한국어 실력을 많이 늘었다. 처음에 혼자 마트 가기도 두려웠는데 그 친구들 덕분에 햄버거 가게에서 자연스럽게 주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일반 중도입국청소년은 한국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기 쉽지 않고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면담 시 대학 진학에 대한 의지를 강렬하게 갖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은 거의 주변에 더 높은 목표감, 가치감을 줄 수 있는 친구나 조력자가 있었다.

다은이 그 중 한 명이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다은의 주변에는 친구가 많았다.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친구, 수학을 잘 알려 주는 친구, 취미가 같은 친구 등이 있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같이 좋은 대학을 꿈꾸는 친구가 있었다는 점이다. 나는 다은과 면담 시 나눴던 대화가 기억에 남는다. 다은은 자신의 고등학교 친구들이 좋은 대학에 많이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는 그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라고 말해줬다. 그래서 자기도 꼭 예진대에 가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고 했다. 다은은 첫 해에 예진대 진학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후 전문대에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경희대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과 잠바를 입고, 다은에게 학교 자랑을 많이 했다고 한다. 이것은 다은이 원하는 대학에 다시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희는 처음에는 자기보다 중국어 수준이 훨씬 높은 학생들과 수업을 들었는데, 중국어 실력의 도움이 되기보다는 마음가짐에 변화가 생긴다. 라희는 처음에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과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하여 자신감이 없었는데 어차피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서 자기가 다른 학생들처럼 이 문제를 알아듣고야 말겠다는 오기가 생겼다. 그런 마음가짐이 중국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됐다.

앞서 언급된 학생들의 사례를 통해서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찾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하다. 아이의 어린 시절에 부모는 아이가 동반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능력이 있다. 환경과 동반자인 부모가 아이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즉 잘 알고 있는 '맹모삼천(孟母三遷)' 이 가장 대표적이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다들 비슷한 인생단계를 거치면서 서로 다른 스트레스를 받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응원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일부를 분담하고, 결국 서로를 부축하며 큰 걸음을 내딛는다. 그런 친구 사이에 진실과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쉽다. 혹독한 시험을 앞두고 전우와 같은 정을 쌓는다. 공통의 문제에 대해 서로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처럼 진실하고 깊은 감정적 유대는 한 사람이 자아실현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네 명 연구 주참여자 모두 중국어 학습하는 과정 중 가장 어렵고 중요한 시기가 바로 중국어 특기자전형을 준비하는 시기였다고 했다. 이 때 같이 위로하며 함께 이 시기를 지내온 친구는 전우와 같은 정을 쌓는다.

가훈의 중국어 학습 과정에 의미 있는 친구는 중국어 특기자 입시를 준비하며 함께 공부했던 김호이다. 가훈과 김호는 처음 빈빈학원에서 만났다. 당시 특기자를 준비하던 대부분의 학우들이 여학생이었기에 가훈은 김호와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다. 중국어를 공부하며 가훈이 김호와 함께 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바로 수업 후에 실시한 온라인 복습 활동이었다. 당시 가훈은 고양시에서 강남으로, 김호는 대전에서 강남으로 통학을 했다.

열정이 넘쳤던 가훈은 대학이란 목표를 위해 수업 시간 이외에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김호에게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 휴식 시간을 좀 취한 후에 화상 통화를 통해서 그날 배운 내용과 사회 이슈를 가지고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 면접 연습을 진행해 보자고 제안했다.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던 김호도 가훈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했으며 둘은 매일 밤 목표를 위해 매진했다.

이 외에도 가훈과 김호는 한국어 대신 중국어를 사용하여 대화하였으며 서울에 중국인들이 많이 있는 대림동과 같은 동네에 가서 중국어와 가까워지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중국인 어머니와 같이 생활하는 김호의 우수한 중국어 실력으로 인하여 가훈은 큰 도움을 받았으며 이러한 노력과 우정을 통해 2018년도 예진대학교 중국어 특기자 전형으로 가훈와 김호 모두 동일한 중국언어문화학 전공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나경은 삼수를 할 때 공감을 잘해 주며 의지할 수 있는 친한 언니를 만났다. 나경은 혼자였다면 못 버텼을 거라고 했다. 이 언니는 나경이 반수 시절을 회상하면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다. 이 언니는 에세이를 매우

잘 썼다. 그런데 매번 예린대 1차 에세이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했었다. 언니 또한 나경과 마찬가지로 목표하던 대학에 가지 못 했다는 아쉬움과 학벌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다. 언니와 나경은 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언니, 우리 꼭 예진대, 예린대에 합격해서 같이 자퇴하자.”라고 매일 말하며 의지를 다졌다.

나경은 에세이에 있어 고급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부족했다. 고급 표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도, 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스킬이 부족했었다. 그래서 언니의 에세이를 많이 읽어 보았다. 언니에게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물어보기도 하고, 피드백을 받기도 하였다. 또 반수 시절 입시에 대해 나경과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도 언니에게 털어놓으며 많은 공감을 얻고 의지를 했다. 항상 언니와 함께 울고 웃었다. 나경이 죽도록 벗어나고 싶은 학교에서 의지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었다. 둘 다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의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언니와 나경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마지막 입시를 준비했는데, 다행히도 둘 다 원하는 학교에 붙어 함께 자퇴 절차를 밟았다. 2018년 나경의 기억은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도입국하는 학생의 경우 언어의 장벽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들의 학교생활, 진로, 정서,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준다(국수연, 2019). 특히 중도입국자학생들이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상처 받은 경험을 스스로 밝히기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으로는 나 자신이 이 화제를 먼저 꺼내기가 매우 조심스러워 기피하게 되면서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다소 힘들었다. 하지만 비슷한 처지의 중도입국자 학생들끼리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비슷한 삶의 배경으로 공감을 얻기 때문이다.

다은이 한국에 오고 나서 만났던 친구 중에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친구는 린린이다. 린린은 다은이 가장 힘들었을 때, 다은 곁에서 위로해 주고 조언해 주던 친구이다. 다은은 린린을 빈빈학원에 다녔을 때 알게 되었고, 다은이와 비슷한 점도 많아 대학교 특기자 전형도 같이 준비했다. 린

린도 다은처럼 중국에서 살다 한국으로 입국한 케이스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중국에서 살았던 지역 이야기부터 일상생활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린린은 다은의 다른 친구와 달리, 서로 중국어로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중국어로 이야기를 나누니 친근하고 좋았다.

린린은 다은에게 특기자 전형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했고, 다은은 자기가 아는 정보를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그 뒤로, 둘은 같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면서 서로 가고 싶은 대학교를 위해 서로 응원하고 열심히 노력했다. 스터디 그룹도 만들고, 스터디 그룹에서 사회 이슈에 대해 토론도 진행했다. 그리고 서로 면접도 봐 주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던 중 다은에게 슬럼프가 찾아왔다. 그때는 수시 지원하고 나서 1차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다은은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고, 또다시 실패를 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했다. 그럴 때마다 다은의 자신의 고민들을 린린에게 털어놨고, 린린은 항상 다은을 위로해 주고 할 수 있다고 응원도 해 주었다. 린린이 있어서 반수할 때 마음이 든든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린린의 위로가 없었다면 다은은 슬럼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계속 우울해 했을지도 모른다. 결국은 둘 다 원했던 대학에 붙었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만나서 서로 축하를 했다.

라희는 정정이라는 친구와 유학을 같이 준비했다. 처음에는 막막했다. 중국어 이외에 수학과 영어도 해야 되고, 면접도 준비해야 되서 포기할까 고민도 많이 했다. 집도 학원이랑 멀어서 몸도 마음이 많이 지쳤을 때 정정이 큰 도움이 됐다. 같이 남아서 함께 공부하고, 서로 면접도 봐주고,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었다. 특히 힘든 일들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친구가 있다는 게 무엇보다 가장 큰 도움이 됐다.

2. 동기와 학습

달걀은 밖에서 깨뜨리면 음식이 되고 안에서부터 깨고 나오면 생명이

된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깨지는 것은 스트레스이고 안에서부터 깨고 나오면 성장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습 동기(learning motivation)는 직접 학습 활동을 촉진하는 내부 동력을 말한다. 즉, 학습 동기란 학습을 일으키고 학습을 유지하며 학습을 일정한 학습목표로 유도하는 내부 심리상태이다. 학습의 외적 동기는 학습자가 외부 유인에 의해 학습하게 되는 동기다. 작용하는 시간이 비교적 짧고 불안하며 효과가 비교적 약하다. 반면 학습의 내재적 동기는 호기심 등 내재적 심리적 요인에 의한 학습의 동기이다. 학습 임무나 학습 활동 자체에서 비롯되는 학습 동기다. 학습의 내적 동기는 외적인 동기보다 오래 지속되고 힘이 있으며 학습 효과도 좋아 학습을 촉진하는 진정한 동력이 된다.

아이들에게 사실 학습 동력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은 호기심이다. 공부는 호기심에서 시작된다. 퀴리 부인은 "호기심은 공부의 제1의 미덕"이라고 했다. 호기심 때문에 공부가 능동적이고 호기심 때문에 공부가 능률적이며 호기심 때문에 공부가 즐겁다. 공부는 호기심에서 시작되면 더 자주적이고 자기 주도적이며 자각적으로 이루어진다.

세계경제포럼(WEF)보고서 '교육의 새로운 비전'은 언어와 수리, 과학, 디지털 정보처리 능력, 다양한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아우르는 기본적 문해력과 함께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소통과 협업 능력을 미래 인재의 역량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호기심과 자기 주도적 태도, 인내심과 적응력, 리더십과 사회의식 등의 자질을 함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부분은 중국에 안 가고 중국어를 잘 배우는 가훈의 중국어 학습 경험에서 볼 수 있다.

가훈의 자기보고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호기심'이다. 가훈이 처음에 중국인과 교류도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가훈의 가게 옆으로 중국 심양에서 온 한 부부가 중국 음식점을 오픈하였고 부모님께 이야기했다. 이에 호기심에 가득 찼던 가훈은 중국에서 온 부부의 가게로 달려가 그분들께 인사하였고 그분들은 가훈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 이후로, 자주 와서 놀고 이야기하는 가훈이 귀여웠는지, 그분들은 자신들이 즐겨먹는 중국 과자, 사탕 등을 가훈에게 주면서 가훈에게 간단한 중

국어와 중국식으로 숫자를 세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이를 통해 가훈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중국과 중국어를 접할 수 있었다.

또 가훈의 동네 국제 테니스장에서는 매년 세계 각국에서 온 여성 테니스 선수들이 참여하는 국제 여성 테니스 대회가 개최되었다. 해당 대회는 중국, 대만, 일본 선수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호기심이 많았던 가훈은 매일 밤 그 대회를 보러 갔다. 가훈은 어린아이지만 혼자 매일 경기장에 오는 것을 눈여겨보던 중국 선수들이 가훈에게 관심을 주었고, 쉬는 시간이 되면 가훈과 함께 놀아 주었다. 가훈은 중국 선수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마다 중국동포 부부가 알려준 중국어를 사용하여 이야기하며 선수들과 친하게 지냈다. 그런 가훈을 선수들도 좋아해 주었고 중국어로 인해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었다.

이처럼 중국 친구 사귀게 된 것은 바로 가훈의 교류 욕구 때문이었다. 이것 또한 한 번도 중국에 가보지 못한 가훈이 한국에서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방법이다. 또한 자연스럽게 모국어를 통해 하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벗어나 이제는 외국 사람들과도 중국어를 통해서 교류하고 싶다는 것도 중국어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중국어 공부를 하고, 중국어 노래를 듣던 가훈은 중국이란 나라에 더 큰 관심이 생겼고 그 관심은 자연스럽게 중국 사람들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졌다.

어떤 방법으로 중국 친구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부모님께서 가훈에게 주말마다 경복궁, 인사동과 같은 중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에 가서 중국인들과 대화를 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권유에 가훈은 용감하게 도전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훈은 다양한 중국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다. 가훈이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은 인사동 한복집에서 만난 50대 후반정도의 중국인이다. 그분은 중국어를 사랑하고 중국 문화를 사랑하는 가훈을 예쁘게 보고 가훈에게 값진 다양한 경험을 선물해 주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가훈의 인생 속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한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중국어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며 중국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또한 가훈은 매년 방학이 찾아오면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중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여하였다. 예를 들어, '제15회 금호아시아나 고등학생 중국어 말하기 대회', '북경 용경협과 함께 제13회 중화연 대회' 등과 같은 각지에서 열리는 중국어 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를 통해 북경, 상해, 항주, 소주, 광주와 같은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 시절의 경험으로 가훈은 더 많은 자신감을 얻고 중국어 학습을 이어 갈 수 있었다.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형성된 가훈의 자신감은 곧 긍정적인 성격을 만들어 주었고 이런 경험을 통해 가훈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

다은은 한국에 와서 친구 사귀면서 한국어를 더 빨리 배웠다. 한국에 올 때는 인사말 정도밖에 몰랐지만 호기심 많은 적극적인 친구들을 만나 어울리면서 빠르게 한국어를 습득했다. 나경은 유학 시절당시 소녀시대, 원더걸스 등 K-pop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던 터라 관심 많은 중국친구들 덕에 중국어로 소통하며 중국어도 금방 늘게 되었다. 라희는 심근지여 활동에서 만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중국어로 소통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당시의 발전된 중국 인터넷 결제 시스템은 자주 기사화 되었던 결제방식이기에 흥미를 가지고 발표를 준비하던 중 핀테크가 중국에서 성공했던 이유가 궁금했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신문기사와 뉴스를 바탕으로 자료를 탐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어 실력은 더욱 높아졌다.

이처럼 호기심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특히 열정은 사람의 호기심을 더욱 증가시켜 긍정적인 학습 피드백 사이클을 형성한다. 그 호기심은 놀이, 학습 등의 형태로 표현되는데 네덜란드의 사회학자 하위징아는 다른 학자들 주장하는 인간과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으로 '지성을 가졌다'는 것과 '도구를 제작한다는 것'과 달리 인간의 종적 특성을 '놀이'에서 찾았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놀이하는 동물이라는 것이다. 하위징아에 따르면 인류의 문명 자체가 놀이로서, 놀이 속에서 자라 나왔다고 한다.

외국어 공부는 당연히 어려운 일이다. 많은 이해, 훈련, 기억을 필요하기 때문에 취미가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는 말이 있다. 언어 학습이 취미와 결합하면 주도성이 올라가고 지루함도 떨어질 수 있다. 이처럼 외국어 공부는 방법을 찾아서 재미와 쓰임새를 발견하고 진보를 느끼며 오래 지속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훈은 중국어 공부를 재미있게 해 왔다. 이는 중국어 특기자 시험은 최종의 목표가 아니라 가훈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데 큰 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어를 특기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해당 나라에 가서 생활하며 그들의 문화를 익히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중국어를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가훈은 중국어를 특기로 신장시키기 위해 한국 내에서 다양한 노력과 방법을 시도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 노래를 통한 중국어 학습이었다. 가훈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하여 중국 노래들을 알아갔다. 가사가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멜로디의 중국어 노래를 찾으면 발음을 따라하였고, 노래가 익숙해지면 모르는 단어들은 사전을 통해 찾아 가사를 이해하였다. 노래를 완전히 익힌 후, 가훈은 집에 있는 녹음 기기들을 활용하여 소위 말하는 '커버곡'들을 제작하였고 여러 중국 친구들에게 전송하여 그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발음의 부족 등의 피드백을 통해 중국어 공부에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핸드폰에 중국어 노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훈의 중국어 실력도 늘었다.

나중에 가훈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언어를 배웠다. 예진대학 스웨덴어과 졸업생과 함께 스웨덴어를 공부하고 중국어를 공부할 때처럼 스웨덴 노래를 찾아 공부하고 불렀다. 인도네시아어를 배울 때도 역시 노래를 통해서 발음을 연습, 암기하고 인도네시아의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했다. 지금 가훈은 중국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어 노래로 즐겁게 학습을 이어나가고 있다.

나경은 말하기 대회를 많이 참가해 봤기 때문에 무대 경험이 많아 예진대 1학년에 입학하자마자 중국원어연극동아리에 들어갔다. 동기들과

오랜 시간동안 극을 준비하며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중국어로 연기를 한다는 것에 기쁨을 느꼈다. 비록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힘든 만큼 보람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나경은 중국어 연극 동아리를 택할 것이라고 했다.

다은은 중국에서 살 때 국어시간을 가장 좋아했고, 중국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을 감정 이입해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평소에 집에서 낭독 연습을 많이 했다. 그렇게 많이 연습하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중국어 발음이 정확하고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교재 자료 녹음하는 학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60명 중 다은과 남학생 한 명을 뽑았다. 녹음은 대본을 보면서 진행했고 재미있었다. 그때 다른 반 선생님이 다은 반에 와서 수업 들은 후 다은을 지목해서 문장을 낭독하게 했다. 이처럼 다은은 어렸을 때부터 낭독을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중국어 발음이 몹시 정확하다는 칭찬을 자주 듣고 있다. 다은은 이 경험을 통해 재미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한국에 오고 나서 다은이 중국어 다양한 표현을 잊지 않기 위해 중국 드라마와 예능을 챙겨보며 새로 나온 단어를 외우고 기록하곤 했다. 특히 궁중 드라마를 가장 좋아했다. 어렸을 때는 중국 궁중 드라마를 재미로 보았다면, 중학교 때는 한자 성어와 중국 숙어(歇后語)도 많이 익힐 수 있어서 더 많이 챙겨 보았다.

라희는 주로 방송매체를 이용해 중국어 공부를 하였다. 매일 등하교 시간을 활용하여 중국어 라디오를 듣는 것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을 배울 수 있었고, 라디오를 따라 말하며 성조 연습을 하여 한 층 자연스러운 발음을 익힐 수 있었다. 또 좋은 단어, 좋은 문장들 그리고 자주 쓰이는 중국어 관용구를 따로 공책에 정리하고 암기하여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받아쓰기를 통해 쓰기 역량 또한 키울 수 있었다.

라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문장과 단어를 공책에 정리하고 암기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한 어휘는 무작정 외운 단어들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장기적으로 암기할 수 있었다. 이런 자

신만의 학습 방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중국어 교과우수상을 받게 되었고, 실력은 열정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평소 라디오와 예능을 통해 접해왔던 중국의 사투리인 동북어를 주제에 적용하여 원고를 작성하였다. 라희가 스스로 원고를 작성하여 수십 번 첨삭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지치고 힘들기도 했지만 할수록 재미도 있고 무엇보다 중국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완성한 '동북어 3급'으로 심사위원분들의 극찬을 받으며 대상을 받아 주한 중국대사관에 방문하여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대사로부터 상장과 장학금 100만 원을 수여받았다. 이 경험을 통해 중국어와 발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을 뿐 더러 중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더욱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중국어 특기자는 중국어를 배울 때 더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중국어 학습자, 혹은 자신이 그 목표를 세우지 않은 이전보다 더 역동적인 태도를 보인다. 목표가 없으면 항해에 나침반이 없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우기 전에 자신의 학습 목표가 명확한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목표가 있으면 학습의 범위도 확정할 수 있다. 학습 목표와 학습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원하는 중국어 능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번역 등) 향상에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목표가 중국어 학습 계획의 각 항목별 학습 횟수, 학습 강도, 학습 질 요구 등을 결정한다.

가훈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동력은 바로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고 싶은 마음이다. 가훈은 중국유학 없이 국내에서 중국어를 배웠다. 중국에서 유학을 가지 않고도 이 정도 중국어 실력을 갖춘 것에 놀랐다. 가훈이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 지 잘 알고 있었다. 다른 학생들 비해서 자신의 중심을 잘 잡고 돈을 많이 쓰지 않아 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훈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중국어 관련 대회를 참가했다. 중국어 대회를 통해서는 무엇보다도 생활중국어가 아닌 공식적인 장소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학술적인 중국어를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러한 중국어 대회의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중국

어 학습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다.

또한 가훈은 중국어 관련 대회를 많이 참가해 뜻이 통하는 친구도 많이 사귀었다. '제15회 금호아시아나배 고등학생 중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가훈은 2016년 여름 제12회 상해 국제 청소년 우정 캠프를 참가했다. 세계에서 초청되어 온 친구들과 서로 간의 친목을 다지며 자국을 이야기하고 중국에서 하나 됨을 체험하는 흥미로운 대외활동이었다. 가훈은 유럽에서 참가한 인원들과 깊은 친목을 나누었다. 그 중 덴마크에서 온 캐롤라인이라는 친구와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다. 캐롤라인은 가훈에게 한국에서 대학 입시를 끝내고 덴마크에 꼭 방문하라고 했으며, 가훈은 그것을 기억하고 덴마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덴마크, 스웨덴을 여행했던 가훈은 스웨덴에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스웨덴의 문화, 음식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제도, 공공제도 등에 감명을 받고 한국에 돌아가서 스웨덴어를 공부해서 다시 스웨덴에 와야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한국에 돌아와, 예진대학 스웨덴어과 졸업생과 함께 스웨덴어를 공부하고 스웨덴 노래를 불렀다.

나경의 부모님은 처음에 나경을 중국에 보낼 때는 고등학교 졸업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건강과 인간관계 등의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2년 정도 공부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한국으로 돌아와 나경의 어머니는 나경이 HSK 6급을 취득하길 원했지만, 당시의 나경은 중국에서 힘들기도 했고, 자격증에 별다른 욕심이 없어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 번이나 떨어졌다.

나경이 고등학교 1학년 말, 중국어 특기자 전형을 알게 되고 '아 나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였다. 나경은 조기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후, 고등학교를 지나 재수, 삼수를 어렵게 겪고 난 후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도 학업의 동기가 명확해지고 간절함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나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고등학교 1학년 때 HSK 6급을 취득하고자 세 차례 시험을 보아 190점대로 합격을 하였고, 고등학교 1학년 말에 특기자 전형을 알게

되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어 공부와 특기자 전형 준비를 시작하였다.
2학년 때부터 내 목표는 '예진대학교'였다. 그걸 안 나의 담임 선생님은 중국어 대회 관련 공문이 날라 오면 나에게 전달해 주었고, 내 원고도 봐주시며 도와주셨다. 그러나 고2 때는 좋은 성적을 한 번도 내지 못하였다. 아무래도 대회에 대한 감과 엄청나게 절실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
이 노력은 재수 시절에도 계속되었다. 간절함이 더해져 더 노력하여 대회를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어가 정말 많이 늘었다.
그러나 준비하면 할수록 예진대를 향한 내 마음은 더 커졌고, 나중에는 예진대에 떨어져서 이 학교를 계속 다니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지? 하는 마음에 밤마다 울면서 잠들게 되었다. 면접도 정말 미친 듯이 준비하였다, 면접 전 날에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동생들 앞에서 울기도 하였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나는 대학에 합격하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았다. 학교에 가는 길에 결과를 확인하였는데, 지하철에서 울다가 다시 집에 가고 부모님도 울었었다.
나는 재수, 반수를 모두 겪고 결국에는 내 목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난 이 대학 생활이 너무 간절했고, 소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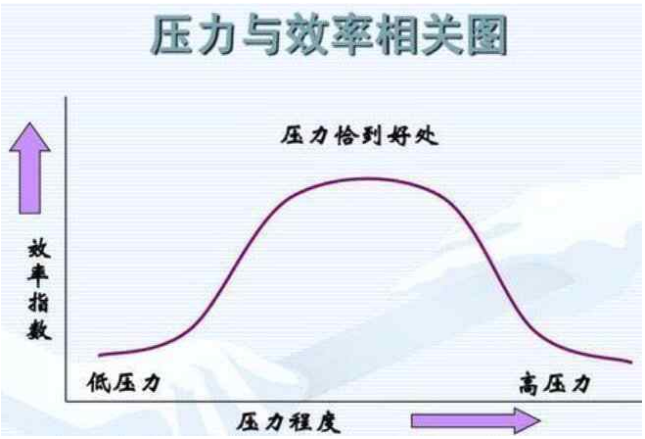
목표를 가지고 학습하면 대학 입학 후에도 꾸준히 노력하게 된다. 남들은 대학교 1학년 때 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학점은 생각하지 않고 놀러 다니지만, 나경은 그렇지 않았다. 나경은 입학과 동시에 졸업부터 걱정하였다.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대학에 입학한 특기자 친구들은 자신의 흥미와 특기를 더해 대외활동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는 편이다. 또한 라희는 통역사라는 목표가 생기면서 중국어 공부를 지탱하는 힘이 생겼다. 라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처음엔 중국어가 나의 도피처였다. 하고 싶은 게 없고 꿈도 없다면 중국어라도 해야 겠다 마음먹었는데, ... 특기자를 시작하기 전 중국어에 나름 자신이 있었지만, 내가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해도 현지에서 살다온 친구들은 못 이기겠구나 생각이 들었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 내가 100을 하면 살다온 친구들의 200을

하니까 자괴감이 들었었다. 근데 통역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잘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아졌다. 그래서 지금도 내 목표를 향해 쭉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다.

3. 역경, 성공, 실패와 학습

역 U라인은 여러모로 적용되는데 스트레스와 효율의 상관관계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즉, 스트레스가 없을 때는 업무 효율이 매우 낮고, 외부 압력이 존재한다면 효율이 현저히 높아진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붕괴' 상태는 스트레스의 과잉을 보여주는 것이다. 역 U이론은 우리에게 사람이 비효율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며 역경과 실패는 일종의 스트레스라는 것을 제시한다. 만약 적절하다면 빠르게 역 U곡선 꼭대기로 되돌아와 높은 효율을 경험할 수 있다. 물론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옳은 선택은 아니다. 하지만 역경이 오래 지속될수록 개인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빨리 손을 떼야 한다.



<그림 5 스트레스와 효율의 역U라인 상관관계도>

작은 성공부터 이루다 보면 큰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훈은 원래 운동만 하는 아이였다. 하지만 해법 중국어 선생님과의 공부를 하면서 의자에 앉아 공부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특히 가훈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재미를 느끼게 되자 학습의 진도는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

자신이 어려운 일에 직면한 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자신감을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훈이 대만에서 생활한 시간을 통해 얻은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효과는 바로 "자신감의 회복"이다. 가훈은 대학에 합격한 이후 주변에 너무나 대단한 친구들이 많아서 자신감이 떨어졌다. 그러나 대만에서 생활하며 한국에서 배운 중국어를 통해 혼자서도 대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자신감을 느꼈다. 이에 한국에 돌아온 후에는 어떠한 역경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도 잘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얻은 자신감은 그 사람에게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은이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은 단지 한순간의 노력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이다. 어렸을 때, 다은의 좌우명은 "世上无難事, 只怕有心人"이었다. 이는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세상에 어려운 일은 없다."라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다은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기보다 도전하기를 선택했다. 다은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반장이 되고 싶어서 노력한 끝에 반장이 되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三好學生"라는 모범생만 받을 수 있는 상장도 꾸준히 받았다.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열린 한어 경시대회에서도 반에서 1등을 하고 상장을 받았다.

또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과목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보자'라는 생각해서 수학과 영어를 아주 열심히 공부했다. 왜냐하면 중국 학교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은은 3개월 동안 학원에서 내주었던 모든 수학과 영어 숙제를 열심히 했고, 기말고사에서 영어는 90점 이상, 수

학은 80점 이상을 받았다. 그때부터 '열심히 배우면, 중국에 있을 때처럼 공부를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 뒤로 다은의 좌우명처럼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다짐했고, 꾸준히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 노력했다. 많은 노력으로 초등학교를 이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고 싶었던 학교에 붙을 수 있었다. 다은은 만약에 자기가 꾸준하게 노력하지 않았고, 한순간이라도 포기를 했다면 '지금처럼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목표를 이루면서 생기는 자존감은 개인이 스스로의 평가에 기초해 생겨나고 형성되는 자중·자애·자존중을 받으며 타인과 집단·사회로부터 존중을 요구하는 감정적 체험이다. 자존감이 너무 강하면 허영심이 생기고 너무 약하면 열등감이 된다. 하지만 적당한 자존감은 역경 속에서 투지를 발휘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나경은 자존심이 강해서 지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중국어 학습에 열중했다. 처음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중국에서 2년 살다 한국에 돌아왔는데 중국에 갈 때는 중국에서 대학까지 입학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한국 학교에 복학하기 불편해서 검정고시로 초·중등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어학특기자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다. 이러한 친구들은 '중국어를 잘 하는 친구'와 '중국어를 못 하는 친구' 로 나뉘었다. 사람들은 중국어를 못하는데 좋은 대학에 가고자 하는 친구에게 "쟤는 HSK도 낮은데…외대를 쓴다고?", "재 중국어 못하는데 특기자 왜 해?" 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나경은 유학 기간이 짧기 때문에 혼자만의 자격지심이 있어 친구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매일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발음을 틀리지 않게 노력하고, 대회에서 더 좋은 상을 많이 타기 위해 노력했다.

> 사실 아무도 나를 욕하지 않았다. 나는 발음도 좋은 편이고 학원도 성실하게 다녀서 다들 오히려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나는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자격지심이 친구들에게 비교되고 뒤쳐지기 싫어 몰래 노력했던 것 같다.

타인의 무심코 던진 사소한 한마디가 한 사람의 내재적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은이는 처음에 예진대 입학 실패해서 2년제 대학교 입학했다. 학교에 다니면서 다은은 웨딩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곳에서 무시를 당할 줄 상상도 몰랐다. 매니저는 다은의 학력에 대해서 물어 보았고, 다은은 00전문대를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공부할 필요도 없는 학교'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였다. 또 다른 분은 심지어 다은에게 '그 학교는 어디 있어?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학교다'라고 다은을 무시했다. 다은은 자기가 다니는 전문대에 대해서 왜 비하하는지 궁금해져서 '전문대 취업'을 검색했는데, 자기가 원했던 미래의 삶과의 거리가 멀었다. 그 순간 다은은 반수를 하기로 결심했다. 다음은 다은의 이야기이다.

> 반수를 하겠다고 부모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엄청 반대하셨다. 나는 무조건 성공하겠다, 한 번 더 믿어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비온 후 땅이 굳어지듯 실패의 경험이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 예를 들어, 나경은 대회란 대회에는 모두 참여하였다. 한 번은 어느 대회에서 나경이 빼고 학원 친구들은 예선을 통과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나경이 너무 속상해서 학원에서 울었던 기억이 있다. 그 다음에 팀으로 참가하는 대회에서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들과 팀을 맺어 대회에 참가하였고,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에게 뒤쳐지지 않으려는 마음과 절실한 마음으로 밤새 대회를 준비하고 원고를 외웠다. 이후 예선에 통과해 본선 무대를 준비하였고, 나경은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대본을 소화했다. 하지만 열심히 하지 않았던 팀원이 무대에서 실수를 해 나경의 팀은 동상을 받게 되었다. 그래도 나경은 처음으로 받은 상이었기에 매우 뿌듯함을 느꼈다. 그것을 계기로 대회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어떤 대본을 써야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감이 잡혀 여러 대회에 꾸준히 도전하기 시작했다.

나경은 현역 때와 재수 때 모두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지 못했다. 재

수가 끝났을 때 같이 재수를 준비하던 친구들은 모두 좋은 대학에 합격하였지만, 나경은 합격하지 못했다. 재수를 할 때는 전문대에 합격했지만 재수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가지 않았다. 그러나 재수 때는 삼수를 선뜻 결정할 수 없어 가장 가기 싫어했던 대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나경은 학벌 콤플렉스가 매우 심했다. 나경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자존감이 낮아져 친구들은 '대학에 와보니 학벌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나경을 위로했지만, 나경은 가진 자들의 위로는 기만이라고 생각했다. 그 누가 자신의 대학을 물어보는 것이 너무 싫었고, 가기 싫은 대학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 통학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싫었다. 또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 밤마다 울었다. 부모님께는 삼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두려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아르바이트비로 학원비를 내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입시를 준비했다. 나경이 당시 다니던 전문대는 학교 특성상 시간표가 짜여 나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수업을 들어야 했다. 수업이 끝나면 바로 강남으로 가 10시까지 수업을 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나경이 더욱 단단해졌으며, 중국어에 대한 열정도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후 남들 앞에서 중국어로 당당하게 연설하는 자신의 모습을 잃고 싶지 않아 대학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음에도 꾸준하게 대회에 참가하였다. 자립심도 더욱 커지게 되었고, 현재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 지나치게 많으면 무기력의 느낌을 느낄 수 있고 이런 시기에는 포기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어 학습하는 과정에 특히 중국어 특기자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과 정보가 많은 고수들을 만나면 중국에 유학 경험을 없는 학생들은 많이 힘들 수 있다. 것을 깨닫고 열심히 해도 현지에서 살다온 친구들은 못 이기겠구나 생각이 들어 힘들어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라희는 100을 하면 살다온 친구들은 200을 하니 스스로 자괴감이 들었다. 라희는 이런 무능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다. 라희는 이렇게 말했다.

> 너무 많아요.. 대학 하향 하나만 붙은 것도 그렇고… HSK 높게 안 나온 것도 그렇고.. 중국 대학 입시 실패한 것도 그렇고.. 뭐 계속하니까 조금 조금씩 성적이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제가 해놨던 목표에 도달을 한게 하나도 없어서…. 좀 우울하긴 한데 뭐 어쩌겠어 하고 넘겨요.. 여기서 뭐 성장할게 있냐고 물어보시면 그냥 제 멘탈이.. 튼튼해졌나?

가훈이는 중국유학을 하지 않았지만 중국어를 유창하게 잘 하는 편이다. 하지만 중국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과 비교하면 부족한 점도 많다. 특히 같이 시사 내용을 토론할 때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 가훈은 극복하기보다는 포기를 선택하여 자신의 맨탈을 잘 잡은 예시이다. 가훈은 강남 빈빈학원에서 중국어 특기자 전형 준비반 수업을 들으며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는 다양한 학생들을 만났다. 가훈이 비유학파로 중국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만은 않았다. 학원에서 함께 수업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었고, 심지어는 중국인들도 특기자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어 특기자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중국어 실력 이외에도 중국어와 관련된 수상 기록, 활동 증서 등과 같은 외부 활동들이 중요했다. 이에 가훈은 다양한 정보, 소위 말하는 스펙들을 만들기 위하여 온 힘을 다했다. 그 중 가훈이 친하게 지내며 알던 선배가 중국어를 사용한 '모의유엔(UN)'을 참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훈도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모의유엔(UN)'은 이름과 같이 언어별로 참가자를 모아 해당 언어를 사용하여 실제 유엔(UN)과 같은 방식으로 안건을 해결하는 활동인데, 가훈에게 모의 유엔은 충격 그 자체였다.

충격의 근원은 바로 자존심과 관련이 있다. 당시 강남 빈빈학원에서 다양한 중국어 특기자 준비생들과 함께 공부할 때는 스스로 누구보다 중국어를 잘한다고 평가했으며 성적이나 수업에서의 표현도 현저하게 좋아서 "실력은 자신감을, 자신감은 결과를"이라는 자신의 표어도 만들었다. 하지만 고3 시기에 참여했던 '모의유엔(UN)' 에서 가훈의 자신감은 붕괴

했다. 모의유엔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은 중국어를 정말 중국인처럼 구사하였으며, 나아가 일반 중국인이 아니며 중국 아나운서와 같은 발음과 표현을 통해 자유자재로 중국어를 구사했던 것이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가훈은 화장실로 나와 어머니께 포기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으며, 어머니는 바로 포기하고 집에 와서 쉬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모의유엔에서 자신이 너무 좌절감을 느끼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다음을 위해서 포기했다.

이처럼 포기할 때 포기할 수 있어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몇몇 이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극복하는 정신만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상황에 따라, 자신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V. 해석 및 논의

Ⅲ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생애 맥락 안에서 그들의 중국어 학습 과정의 양상에 대해 질적으로 기술하였다. Ⅳ장에서는 중국어 학습의 경험 속에서 영향을 주는 원인이 무엇인지 고찰해 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중국어 학습생애를 바탕으로 문화의 눈으로 본 중국어 학습은 무엇인지, 교육의 눈으로 본 중국어 학습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1. 문화의 눈으로 본 중국어 학습생애

문화는 환경에 적응하는 가운데 인간이 자연을 길들여서 얻어낸 지식, 기술, 가치를 말한다. 즉, 문화는 생존과 실존을 위해 각 집단이 창출, 전승해 온 나름대로 최적의 생활방식이다. 문화가 다르면 사람, 사물, 사태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르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조용환, 2011). 또한 문화는 가족과 사회를 이루며 더불어 사는 데 필수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즉 '의미를 구성하고 공유하는(making sense & sense making)' 방법이다(조용환 2020: 11).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어를 배우기 위한 조기유학의 가장 큰 장점은 외국의 문화 배경 속에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며 동시에 두 문화를 배울 때 다문화 시각을 가지고 각 문화마다 가진 해석과 실천 방식을 이해한다는 것이다(조용환, 2020).

한편 언어, 사유, 세계관과 문화생태계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지만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이 상대적 독립성보다 훨씬 크다. 즉, 언어는 사유를 편리하게 하고 사상 교류의 수단이 되며 사상을 전달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그 구조와 기능이 사상을 반영한다. 또한 언어는 문화의 운반체이자 용기이기에, 인간의 지식과 경험은 모두 언어로 묘사되고 저장된다. 따라서 언어는 문화의 거울이자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그에 상응한다.

역사, 환경, 지리, 언어, 풍속과 종교 등 범주에 따라 다양한 민족이 그들만의 문화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예로부터 한중 양국은 밀접히 교류해 오며 한자문화와 유교문화를 공유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대륙, 한국은 반도 국가로서 서로 다른 지리적 환경이 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를 형성케 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 '빨리, 빨리'라는 말을 자주 한 반면 중국 사람들은 '천천히 먹어' '천천히 가'라는 말을 자 주 했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급한 것은 농경 사회의 계절풍의 영향 때문이라고 한다. 파종과 수확을 빠르게 하지 않으면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은 길을 걸을 때도, 운전을 할 때도, 경제 발전도, 위기를 맞이하는 것도, 위기 후 회복도 모두 빠르다. 반면 중국은 대륙 국가로 땅이 넓고 물자가 풍부하며 인구가 많다. 이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느긋한' 마음을 갖는다. 이 외에도 한국 사람들은 '뭉치는 것'을 좋아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지만, 중국학교 식당에만 가도 혼자 밥을 먹는 학생을 어디서든 볼 수 있다.

중국어 학습은 단순히 언어 능력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중국어를 사용해서 교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어를 학습하여 활용한다는 것은 언어의 기호적인 속성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와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문화 간의 충격과 적응, 편해지는 과정 속에서 학습이 심화될 수 있다.

1) 타문화의 체험

앞서 Ⅱ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기 유학생들은 '도전'과 '회피' 속에서 '성취', '현실 도피', '갈등' 등을 겪기도 하며(강희숙 외, 2010), 어울림의 적응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압도됨, 거리 둠, 깨달음, 다가감의 단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주 외, 2008). 예를 들어, 나경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국에 '나홀로 조기유학'을 했다. 나경의 중국유학에 대한 기억에는 부정적인 것이 많다. 타문화에 대한 부적응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는 반항심 때문에 중국어 공부를 중단하기도 했다. 오히려 중국어 특기자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고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야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한중 학생의 충돌에 이해가 생기기도 했다.

이처럼 언어는 그냥 현지에 가기만 하면, 현지에서 생활만 하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외국어를 좀 더 빨리 익힐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함으로, 혹은 앞으로의 중국과의 관계가 더 유망하다는 이유로, 비싼 사교육비 대신 유학으로, 혹은 현 입시제도에 학업성적이 부족하여 도피성으로 보내진 성장기의 아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채 보내졌기에 심리적 혼란을 느낀다. 또한 자기 개념이 자리 잡히지 않아 온전히 자율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렵고 스스로를 제어하는 힘이 부족하고 자신과 맞는 멘토가 부족하여 현지 집단 속에서 언어라는 역량을 고급화시키기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교사의 격려와 학습자 개인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세계화로 인해 지역 간의 문화는 더 이상 서로 동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또한 각 민족의 문화가 글로벌 문화에 흡수되는 이러한 큰 틀에서 문화의 발전은 개별 민족의 문화가 발전했던 고유의 자취와 규칙을 따름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글로벌 문화의 영향과 충격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세계화 시대에서 어떻게 자민족의 문화와 타민족의 문화를 다루어야 하는가는 우리가 깊이 고려해 볼 만한 문제이다. 우리는 자문화중심주의의 태도로 자국 문화의 정통성과 우월성만을 강조하며 자신의 시각에서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미국을 위시한 서양의 정치, 경제, 문화의 강점 때문에 그들의 문화패권주의에 좌지우지 되어서도 안 된다.

문화의 다양성은 인류 문화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며, 세계의 모든 문화는 우열과 높고 낮음이 없다. 우선, 우리는 타민족 문화에 대해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 하며 평등하게 교류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모든 문화는 장시간 형성된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족 혹은 부락마다 모두 자기만의 논리와 사회적 사상, 세계관과 도덕관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문화의 각도에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 할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집단 자체의 각도에서 그들의 행위를 바라 봐야 한다.

다음으로는 자민족의 전통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마음으로 각국의 문화적 장점을 흡수해 자국의 전통 문화에 편입시키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자국 민족 문화의 완전성과 전통성을 보호함과 동시에 다른 문화와의 교류에 힘쓰고 있다. 세계화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문화의 상호작용성과 교류성이다. 세계화 체계에 편입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타민족 문화에 개방적이고 평화로운 마음이 중요하다. 다른 문화로부터 배운다면 이견(异見)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기 문화의 우월함을 새로이 인식할 수 있다.

인도의 국부인 간디는 “각 지역 문화의 바람이 우리의 터전에 마음껏 불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우리의 뿌리를 뽑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세계화 속에서 각 민족의 문화가 다른 민족 문화와 교류하면서 그 정수를 받아들여 자민족 문화를 발전시키고,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 한 인간의 정체성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고 해석되고 발현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문화나 타 문화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반성되고 변화된다. 문화의 진화와 발전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타 문화에 대해서 선택하여 하고 창조적 대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더 나은 문화를 선택하여 공유하고 전승하는 일이 교육의 과제라고 할 때 다문화교육은 가히 교육의 본질적인 과제라고도 말할 수 있다. (조용환, 2020: 6)

타자와 타문화는 나와 나의 문화를 비춰보는 거울이다(조용환, 2011). 연구 참여자들이 타문화로서 체험한 것이 중국어 학습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 물론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생활하다 보면 문화적 충돌, 학습

과 생활의 부적응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현지 뉴스를 많이 읽고 해외 사이트를 많이 찾아보는 등 유학 국가의 사회문화를 일찍부터 이해하려 노력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현지 학교에 재학 중에는 학교에서 마련한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각 나라의 친구들과 자주 교류하는 것도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컨대 나경은 자발적이면서 나홀로 조기 유학을 했다. 나경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같이 중국에 살고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았다. 조기유학자들은 자신의 지지 체계인 가족과 분리된 채로 청소년기 발달 과정 과업 중 하나인 자아를 형성해야 하고, 낯선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송민경 외, 2011).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발적 동기를 가진 조기유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환경을 적응하려 하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외국어 역량을 보다 빨리 향상시킬 수 있다.

초등학생인 나경이 중국 유학 기간에 많은 문화 충돌을 겪었다. 나이가 어려서 현지 문화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는 마인드도 부족했고 중국 현지에서도 다양성에 대한 포용성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문화 충돌이 발생했다. 그 중 나경은 포용성이 부족한 현지 국립 학교의 급식에 적응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다. 나경의 할머니가 담임 선생님께 반찬을 싸 가도 되는지 물었는데, 냄새가 나서 아이들이 싫어하니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다. 결국 나경은 매일 입맛에 맞지 않는 반찬을 먹어야 했고, 한번은 체를 심하게 해 조퇴를 하고 토를 여러 번 했다. 그리고 중국에서 따뜻한 차,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일반적인 것도 나경은 매우 불편했다. 나경은 찬 물, 찬 음료를 좋아했는데 중국에서는 학교 정수기와 식당에서 찬 물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여름에 체조를 하고 난 뒤 너무 더워 정수기에 가도 뜨거운 물만 받아 마실 수 있는 게 나경에게는 충격이었다. 그래서 나경은 항상 얼음물을 챙겨 다녔다. 더운 여름에도 따뜻한 물을 마시는 중국 친구들을 보며 '안 덥나?'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

음식뿐만 아니라 중국학교는 단체 활동도 많아서 한국학교의 개인주의

적인 교육방식에 길들여진 나경이 적응하기엔 힘이 들었다. 나경은 2교시와 6교시가 끝나면 운동장에 모여 체조를 하는 것이 정말 싫었다. 또한 나경의 애국심과 학교생활이 충돌한 적이 있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애국가를 그렇게 많이 안 불렀던 것 같다. 월요일 아침 조례시간에 그저 큰 텔레비전을 보고 애국가를 불렀던 게 다였던 것 같다. 그런데 중국은 아니었다. 매주 월요일 단정한 교복을 입고 붉은 네커치프(紅領巾)를 매고 중국 국기를 향해 경례를 하며 국가를 부르고 국기를 게양하는 모습을 운동장에 모두 모여 지켜봤다.

당시 나경은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국기 게양도 평범하게 하지 않고, 학생들이 국기를 들어 각을 맞추어 걸어 운동장을 반 바퀴 돌며, 북과 나팔이 연주되었다. 어린 시절의 나경에게는 이런 것이 매우 유난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왜 중국 국기에 경례를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어 경례 손동작을 대충했다가 지적을 당한 적도 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한국과 중국은 국가의 운영체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린 시절의 나경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경이 택했던 방법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었다. 악기단에 들어가 작은북을 연주했고, 이후 조금은 아침 조례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나경은 지금에 와서 중국 문화를 생각해 보면, 조기 유학 당시의 상황 모든 것이 중국의 전통이고 문화였는데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별로 궁금하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에서는 설날(春節)이 되면 여기저기서 폭죽이 터졌는데, 나경이 처음에는 '예쁘다'라고만 생각했고 중국인들이 왜 명절에 폭죽을 터트리는지 알고자 하지 않았다. 한번은 밤새 폭죽을 터트려 잠을 못 자 매우 짜증이 났던 적도 있었다. 현재 중국어 전공자로서 중국문화에 대해 중국인의 생활을 배우면서 그 상황들이 전부 중국의 명절 문화이며 설화와 관련되어 폭죽을 터뜨리는 풍습이 생겼고 그 풍습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국에 직접 가면 좋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가지 못 하면 간접 체험을 통해 타문화 대해 경험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다. 가훈은 중국 유학

을 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 가능한 중국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국인 친구 사귀기'와 '중국어 대회'라는 공부 방법은 가훈의 정체성 확립에 영향을 미쳤다. 가훈은 부모님의 지원 속에서 평일에 외국어를 연습하고 주말에 경복궁, 인사동, 명동 등 서울에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에 가서 외국인들에게 말을 걸며 외국어를 연습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가훈의 특기인 외국어 실력을 길렀다. 지금 생각해 보자면 다시는 시도하기 어려울 법한 훈련이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그에 힘입어 가훈은 누구보다도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을 소유하게 되었다. 한 예로 가훈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몇몇 유명한 중국 현지식 중국음식점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가훈은 중국을 공부하고 중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과자를 먹고, 그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들을 마셔가며 중국어 공부에 열정을 가지고 중국어를 공부했다. 가훈이는 비록 유학을 가 본적은 없지만 중국어를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매우 갸륵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자기의 문화와 많이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호기심이 발동하고 중국어, 중국문화라는 깊은 숲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처럼 가훈은 중국유학을 가지 않고도 중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었고, 중국 친구와 교류를 통해 한중 문화의 차이를 느꼈다. 가훈은 한국과 중국의 대중목욕탕 문화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중국친구와의 경험을 통해 알았다. 한국 사람들은 칸막이가 없는 샤워장이나 목욕탕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목욕하는 것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은 애초에 가림막이 없고 모르는 사람과 함께 목욕하는 환경이 별로 없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매우 잘 보장되는 목욕 문화를 가졌다. 2019년도 겨울, 가훈의 중국친구가 한국에 방문하였다. 한국에서는 겨울날 하는 온천욕이 인기가 많다. 그래서 가훈은 중국 친구와 함께 용산역 근처에 있는 사우나에 방문했다. 들어가자마자, 중국인 친구는 중국에서 볼 수 없는 대중목욕 문화에 매우 당황했으나 가훈이 한국의 대중목욕 문화에 대해 잘 설명한 끝에 중국인 친구는 사우나를 즐길 수 있었다.

2) 모국어 vs 모국문화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문화는 사람들의 온 몸과 마음에 배어들기 때문에(조용환, 2020) 그 문화의 영향을 벗어나기가 힘들다. 나는 중국어 특기자들이 가르치는 동안 많은 중도입국자들 만났다. 그 학생들은 성년이 되기 전에 한국에 중도입국을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중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중국 문화는 온 몸에 배어들어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중도입국자들 열심히 한국어 발음을 연습하고 한국 아이들처럼 차려입음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에 배어든 것은 쉽게 지워내지 못한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중도입국자임을 밝히지 않아서 몰랐다. 그런데 어느 날 나와 그 학생이 같이 정수기 앞에서 물을 받았는데 그 학생이 자연스럽게 뜨거운 물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학생이 중도입국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한편 중국은 백여 년 동안 여러 차례 혁명을 거치며 많은 전통문화를 전복시켰고, 서양의 개인주의를 더 잘 수용했다. 반면 한국은 전통 '집단주의 문화'의 면을 그대로 간직한 편이다. 다은은 한국에 와서 이러한 차이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다은은 한국의 학교 생활이 중국의 학교생활과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다. 첫 번째,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의 등교시간은 중국보다 늦은 편이다. 다은은 중국 초등학교 다닐 때, 당번(值周生)이면 적어도 7시 반까지 학교로 가야 했지만, 한국 초등학교의 경우 9시까지 가면 되었다. 두 번째, 중국에서 2교시 끝나면 학생들이 모두 음악에 맞춰서 눈 체조를 하고 나서 운동장에 가서도 음악을 맞춰서 몸 체조를 했다. 그런데 한국 초등학교에서 체조 시간은 따로 없지만 우유를 마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세 번째, 한국 학교에서 실내화를 따로 신는다는 것도 새로웠다. 네 번째, 한국학교에서는 봉사 활동을 몹시 중요시한다. 중국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몇 시간 이내로 꼭 해야 한다는 게 없었는데, 한국 학교에는 봉사활동 시간은 몇 시간까지 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었다. 다섯 번째, 한국은 선후배 관계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이다. 다은이 고등학교 다닐 때, 선배와 후배의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짝 선배, 짝 후배'라는 활동도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교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선후배의 친목도 다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반면에 다은이 다녔던 중국 학교에서는 그런 활동은 없어서 선배와 후배가 친해질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이 밖에도 다은이 중국의 집단주의 교육과 한국의 개인주의의 교육에 대해 느낀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다은이 중국에서 다녔던 초등학교에서는 교복을 필수적으로 입어야 했고, 목에 홍링진(紅領巾)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했다. 심지어 두발자유도 없었다. 여학생들이 무조건 머리를 묶어야 했고, 남학생들은 파마와 염색을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짧은 머리로 학교를 다녀야 했다. 즉, 중국에서는 학생들 간의 통일감을 요구하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두발 자유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은 교복을 입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다은은 중국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를 대표하여 다른 학교와 단체대회에 많이 참가했다. 학생들이 원하지 않아도 한 반에서 스무 명의 학생을 차출해서 반 대표로 대회에 참여해야 했다. 그리고 한 달 이상의 시간을 걸쳐서 연습하고, 학교를 대표로 대회를 나간 적이 있는데 대회에서 가장 잘하는 학교에게 상장을 부여했다. 하지만 한국의 학교생활은 비교적으로 자유로웠다. 방과 후 수업도 하고 싶은 학생의 지원을 받고, 하고 싶은 수업 또는 활동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다.

다은이는 중국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를 고루 즐겨 봤다. 한국 드라마는 '미남이시네요', '웃어라 동해야' 등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를 통해서도 몇 가지 차이점을 느꼈다. 우선, 드라마 제작과 관련되어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 자막은 따로 없고, 배우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화면과 함께 동시에 녹음되어 내 보낸다. 반면에 중국 드라마를 보면, 화면 밑에 자막이 달려있고, 성우들이 따로 드라마 대사를 녹음하여 방영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는 중국에서 지역마다 쓰는 언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막은 필수적이다. 또한 정확한 보통화(普通話) 발음을 내지 못하는 배우가 있기 때문에 중국 보통화 발음이 정확한 성우들의 목소리를 써서

드라마를 만든다. 다은이는 이후 한국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자막이 없는 한국 드라마보다는 자막 사용이 많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더 애청했다고 했다.

라희도 중국의 가족들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한중 문화의 차이를 느꼈다.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중국과 한국 모두 채팅앱을 통한 교류가 많아졌는데 중국인들은 중국의 대표적인 채팅앱 위챗(微信)을 통해 교류를 한다. 하지만 한국과 다른 점은 대부분 음성메시지로 소통한다는 것이다. 라희도 외가 친척분들과 위챗을 할 때는 음성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소통했다. 라희는 한국에서는 한글이 쓰기 쉬워 메시지를 보내기 어렵지 않지만 중국어는 수많은 한자 중에 본인이 원하는 한자를 찾기 위해 알파벳으로 된 병음(拼音)을 입력하여 한자를 찾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려움 때문에 음성 메시지를 많이 한다고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다.

3) 대학 진학 후의 삶과 연계

나경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중국인과 한국인은 사고방식과 문화가 매우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한 단계 더 높아졌다. 2019년 말, 한창 홍콩 사태로 세계가 시끄러웠을 때 나경이 있는 예진대학교 곳곳에는 홍콩을 지지한다는 대자보가 붙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 대자보들은 모두 중국인 학생들에 의해 훼손되고, 그 위에는 '하나의 중국(一个中國)'이라는 대자보가 붙어 있었다. 그러다가 학교 내에서도 갈등이 과열되어 한동안 대자보 붙이는 것 자체를 금지했다.

그때 나경은 중국언어문화학부의 수업을 듣고 있었고, 해당 수업의 교수님은 화교 출신이었다. 교수님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에 왔으면 자유주의가 뭔지, 다른 사람의 의견은 어떻게 존중하는지도 배워야한다"라고 말씀하였지만,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인들은 남의 나라 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라고 화를 냈다. 그 모습을 보고 나경은 안타까웠다. 국가를 향한 정서가 다르고,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이 달랐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 지점부터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해결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사건으로 한국에서는 '혐중' 정서가 심해졌지만, 중국의 역사부터 이해하면 아예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니라고 느꼈다.

나경이 생각하는 한중 매체를 통해 본 문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객관화" 여부인 것 같다. 현재 한국과 중국의 문화 분쟁을 살펴보면서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인들은 객관적으로 자국을 바라보는 것이 조금 어렵다는 것이다. 이 원인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매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달라서이다. 한국은 국가, 정부, 정치적 인물에 대한 자유로운 평가가 모두 가능하다. 주관적인 평가 아래 또 다른 의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과의 분쟁은 생길 수 있겠지만, 누가 현재 대통령을 욕한다고 해서 SNS 계정이 삭제되거나 정지를 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업로드하는 게시글에 대한 단어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전에 나경이 중국인 친구들을 만났을 때, 한 친구는 중국 정부의 매체 감시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웨이보에서 시진핑의 '習'이라도 사용하게 되면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은 그 게시글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게시글의 문장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學習英文'이라는 문장을 적었을 때, 시진핑 주석의 한자가 들어가므로 서로 팔로우를 한 상태여야만 그 글자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 매체에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없어 객관적인 사고가 어려운 것 같다. 나경도 2021년 8월 초, 위챗으로 LINE에 대한 사진을 보냈다가 계정의 여러 기능들이 10년 정지를 당하여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다. 대학교 동기는 위챗 시스템에 자동으로 금지어를 인식하는 기능들이 있어 타자를 칠 때 조심해야 된다고 했고, 이에 중국인 친구는 "나는 여러 번 민주주의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지(我已經多次說了關于民主主義的事情, 怎么辦)?"하며 걱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모두 빼앗아 간다며 매체를 통해 비판했지만, 사실 중국인들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인지도 모른다.

현재 나경이 생활에서 느끼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는 위챗페이와 신용카드에 대한 것이다. 중국에서 위챗페이가 발달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길거리 노점상들도 사용할 정도로 발달한 것은 몰랐다. 그래서 나경이 2018년 중국에 놀러갔을 때, 자전거로 이동하며 탕후루를 파는 아저씨가 위챗페이 QR코드를 부착해 놓은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한국도 카카오페이 결제 시스템이 존재하긴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고, QR코드 결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아직까지 보편화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았다.

문화가 충돌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자란 환경과 교육에 따라 가치관, 사고방식, 행동규범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국가와 민족 간의 문화를 교류하는 사람들도 상대국의 문화에 끊임없이 적응하면서 문화적 적응을 하게 된다. 이처럼 다언어 이상으로 다문화 능력이 필요하다. 다른 문화의 미세한 점을 살피려면 다른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의 충돌에 있어 심리적 충격은 매우 크다.

역사학자 윌리엄 맥니어(William Hardy McNeill)는 역사의 중대한 변화는 낯선 사람들과 접촉할 때 발생한다고 했다. 다른 사람의 신기한 기술, 더 아름다운 사물, 더 고급스러운 삶을 볼 때, 우리는 강렬한 학습과 모방의 동력을 갖게 된다. 반대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외래문화의 충격은 우리의 자존심에 영향을 미친다. 어느 민족도 자신의 전통과 문화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 전통과 문화, 우리의 풍습과 체제가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쌓여 왔기 때문이다.

이를 본 연구와 관련 짓는다면, 중국어 학습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 적응의 가장 좋은 길 또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많은 교류를 통해 자신의 문화와 다른 점을 발견하고 그에 적응하는 것이다. 두 나라 간의 문화차이를 몸소 체험하고, 대화를 통해 이해하면서 중국과 한국은 같으면서도 매우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알고 적응하게 된다.

> 다양한 문화를 풍부하게 접촉하는 것이 다문화교육에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후기현대사회의 생활세계 자체가 다문화 상황임을 인식하고 생존과 실존의 방식을 그에 맞게 재구성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중략) 그리고 다문화의 이해와 포용은 머리로 하는 인식론의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는 존재론의 것이어야 한다. (조용환, 2011)

다른 문화에 대한 포용성이 강하면 외국어 학습할 때 더 유리하다. 외국어의 음성, 어휘, 문법, 심지어 문화 배경은 학습자에게 있어 거의 새롭고 낯설다. 외국어의 이러한 모국어와의 차별성 때문에 학습자가 항상 높은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학습자의 초조도가 높아지고 자신감이 약해지며 동기 수준이 낮아져 학습의 효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

포용성이 높다는 것은 외국어 학습자가 이민족과 교류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과 대화를 통한 이해와 공감대가 더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어 학습자가 습득한 언어 지식이 언어 능력으로 내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언어 능력은 음성, 어휘, 문법 등의 지식에 대한 기억과 이해뿐만 아니라 이를 다루는 어용 능력으로도 나타난다.

의식적으로 포용성을 높이면 외국어 학습을 더욱 즐겁게 경험할 수 있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훈은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체육을 하며 일반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개방적으로 살아왔다. 중국어를 배우며 한국과 중국 간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나경은 2년의 중국 유학 생활을 했고 그 당시에 많은 힘든 일과 문화 간 부적응이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이문화 받아들이는 포용성을 습득했다. 다은은 중도입국자로서 한 문화 속에서 다른 문화 속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문화에 대한 포용성을 형성했다. 라희는 태어날 때부터 다문화가정에서 자라고 두 문화에 대한 포용성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어 특기자로서 대학에 입학하면 생각보다 학교에서 중국어를 공부할 기회가 비교적 많지 않다. 학교 측에서는 일반 학생과 특기자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을 다르게 지정하였기에 특기자 학생들은 지정된

중국어 수업 이외 대부분 중국 역사, 중국 철학, 중국 문학, 중국 인문 지리 등과 같은 수업을 듣는다. 나경은 대학에 입학한 뒤, 가장 아쉬웠던 것이 특기자 입시준비를 할 때만큼 중국어를 많이 쓰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나경은 이렇게 말한다.

> 그런 노력들이 모여 입시 기간에 실력이 몰라보게 좋아졌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에세이 주말반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에세이 지문도 이해를 못 했고 당연 에세이는 쓰지도 못 했다. 선생님도 한번은 나에게 '나경, 그 때 중국어 정말 못 했어'라고 하셨다. 내가 생각해도 입시를 준비하며 중국어 실력이 엄청 향상된 것 같다. 또한 대회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중국어 실력을 뽐냈던 경험이 면접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입시를 할 때처럼 중국어를 쓰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중국어 실력은 퇴보되기에 중국어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2. 교육의 눈으로 본 중국어 학습생애

> 교육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더 나은 인간과 사회를 지향하는 변증법적 해석 실천의 과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음'은 선험적인 진리의 잣대가 아니다. 추상적이거나 탈 맥락적인 선언도 아니다. 구체적인 교육현장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참여자들이 함께 방향을 찾아가는 진행형의 지향이다. (조용환, 2011)

> 인간은 누구나 향상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여건 때문에 향상을 포기하거나 미룰 때조차도 그 의지는 내면 깊은 곳에 살아 있다. 교육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더 나은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활동이다. 인간은 인-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교육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만이 아니라, 함께 더 나아

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조용환, 2021)

1) 중국어 학습을 통해 자기의 스토리텔링

조기 유학,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등의 이유로 한국의 일반 학습 과정을 배우지 못한 학생들은 좌절을 느낀다. 특히 사춘기가 되면 심리적 문제가 심해져 친구들, 경험들, 삶의 방식을 잃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애도감”을 느끼기도 한다. 사람은 이야기하는 동물이다. 스토리텔링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낀다. 일반적인 한국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은 자신이 중국어 학습 경험에서도 의미감, 존재감을 찾을 수 있다.

중국어 특기자들이 대학 생활을 할 때 생활 전반에 특기자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특기자는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특기가 있기 때문에 대학 입학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특기자들은 자기들의 위치가 아래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로 인해 자기부정이 생기고, ‘나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많은 기회를 놓칠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서사를 하고, 자기 평가를 하는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내면의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반응 때문에 내가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그 자기 서술이다. 그래서 자기 서술의 방식이 달라지만 그 사람의 가능성 또한 달라진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성인이 될 때까지의 20여 년간 길고 긴 과정이다. 이들을 키우는 사람의 최종 목표는 아이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자신만의 이야기 형성을 통한 자존감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가훈, 나경, 다은, 라희가 학교에 있는 시간은 자기의 특기 개발에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가훈은 운동선수의 꿈을 꿀 때도 거의 하루 종일 훈련만 했다. 다치고 나서 다른 길을 찾다가 중국어를 시작했다. 중국어 공부도 집 근처의 중국어 교습소 등 학교 외의 기관에 의뢰했다. 나경은 원래 조기유학을 가면 중국 대학교까지 가는 것이 계획이었지만 부득이

한 상황 때문에 2년 만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학교의 학기가 맞지 않아 검정고시로 초등학교, 중학교 시험을 치뤄야 했다. 나경이는 중국에 가기 전,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중국에서 생활하고 돌아와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그 공백기 동안 한국의 교육과정에서 많이 뒤쳐지게 되었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따라가려고 과외를 시작했지만 기초를 다지기에도 부족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중국어 특기자의 길을 선택했다. 나경은 자기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 가정 사정으로 인해 2년 정도의 시간을 중국에서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다시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었지만, 당당하게 유학을 간다고 자퇴했는데 다시 가기가 조금 창피했던 것 같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선택했고,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보며 중학교 입학 시기까지 놓쳐 중학교도 자연스럽게 검정고시 시험을 보았다. 중국에 가기 전, 나는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생활하고 돌아와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그 공백기 동안 한국의 교육과정에서 많이 뒤쳐지게 되었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따라가려고 과외를 시작했지만 기초를 다지기에도 부족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었다. 한국에 돌아와 중국어 외에 요리에 흥미를 느껴 어머니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경희대학교 호텔조리학과에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공부가 뒤쳐지는 탓에 1학년 1학기 내신부터 좋지 못한 성적을 받게 되었고, 나는 그때부터 내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다. 내신 성적도 같이 준비를 해야 하다 보니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형에 대해 알면 알수록 쉽지 않았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동안 내 중국어는 많이 퇴보한 상태였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스펙들(자격증 고득점, 수상기록 등)은 하나도 보유하지도 않았었다.

내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만약 학생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으면 힘든 일을 더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중 가훈은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던 학생 중 하나이다. 가훈은 스스로 학습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외국어를 배

울 때 즐겁게 학습했다. 바라던 예진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에 입학 후, 가훈은 일반 신입생과 다른 삶을 살았다.

대체적으로 한국 대학교의 신입생들은 대학 입학 후 1년은 그 동안의 입시 노고에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학생 신분을 잊어버린 것과 같은 방종한 삶을 살곤 한다. 하지만 가훈은 입학 후 또 다른 학업 욕심이 생겨 학교 학점과 다른 외부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훈이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앙심 역시 자신의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스토리텔링중 하나이다. 학습자가 자신의 서사를 잘 알고 있다면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동력도 생기게 된다. 교육으로서 중국어 학습은 다른 언어로 학습자 자신의 서사를 이야기 할 수 있게 하면서 학습자들의 또 다른 인생의 방향을 찾아 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2)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

언어라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배우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언어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교수자와 학생 간의 유대감, 신뢰감, 이해와 관심의 작용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의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정서적 의존도가 높다. 또 외국어라는 낯설고 어려운 난관 앞에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교수 방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년 가까이 근무한 강사로서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왔다. 교육학은 관계학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교육의 시작은 먼저 친밀한 사제관계를 맺는 것이다. 새 학기마다 학생의 이름을 빨리 외우고, 면담을 통해 학생의 학습배경, 학습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만약 학생이 이 선생님이 학생을 잘 아는 선생님이라고 느낀다면, 다음 수업이 더 좋아질 것이다. 또 교사는 한 반의 전체 학생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과 일대일 관계를 맺어야 한다. 모든 학생은 “30분의 1”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 하나의 개체이다. 사실 진정한 교육은 일대일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 어떤 과목을 전공한 선생님을 먼저 좋아한 뒤 거꾸로 그 분야에 관심을 갖는 학생이 많다. 교육은 지

식과 사람 간의 일도 아니고 시험지와 사람 간의 일이 아닌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다.

나경은 특기자 학원을 다니긴 하였지만, 학원에서는 다소 어렵고 무거운 주제에 대해 좋든 싫든 지식을 쌓기 위해 토론을 진행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전화 중국어는 나경이 좋아하는 수업방식으로 나경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고 생각했다. 학원에서 발표를 진행하는 날이면, 학원가는 길에 전화 중국어 선생님과 나경이 작성한 발표문을 살펴보며 틀린 어법이나, 단어 표현에 대한 것들을 교정해 주었다.

나는 나름대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지도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경과 인터뷰하고 나경의 자기보고서를 읽고 깨달은 것은 나경의 중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한 것은 나한테서만 배운 것이 아니고 전화 중국어 선생님의 공도 크다는 것이다. 내가 학생들과 많이 상담하고 관심을 주더라도 학생한테 준 관심과 안정감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 이 부분은 내가 계속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나는 나름 수업을 잘 한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또한 학생에게 관심을 최대한 주고자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관심이 학생들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는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었는데 이는 마치 학생들이 많아질수록 내가 주는 관심의 모습이 분수에서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작아지는 기이한 형상처럼 된다.

3) 정체성 문제의 교육적 해석

한국 수능과 같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교육은 아이들을 문제 푸는 기계로 만든다. 또한 수능을 목표로 한 교육은 문제풀이와 문제풀이 방식을 직접 적용해 시간적 효율적 이점을 얻지만 학습 절차 중 가장 중요한 사고, 논증, 시행착오는 간소화한다. 높은 점수 속성의 이면에는 학습능력과 사고력을 파괴하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과 잠재력이 희생된다.

이와 함께 교내에서 학교 밖까지 장시간 책상에 앉게 하는 것도 아이들의 몸을 해치고 자연과 사회에 접근할 시간과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다. 장시간의 읽기·쓰기 훈련, 과도한 입시 스트레스는 심지어 적지 않은

아이들의 정신 상태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간다.

옛날에 '당겼다 늦추었다 하는 것이 문무의 이치다(一張一弛文武之道)' 라는 말이 있다. 사업과 생활에 있어서 긴장된 활동과 느슨한 휴식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은 시험지 한 장에서 뿐 아니라 생활 곳곳에서 존재한다. 하지만 아이의 주말과 여름방학을 모두 학원에 바칠 때, 학생들은 공부로 숨이 막힐 지경이 된다. 일반적인 한국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자아 정체성 확립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어를 특기로 각자 자신의 언어특기를 신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가훈은 자신의 성격에 알맞은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은 학업의 길에서뿐만 아니라 인생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중국어를 통해서, 중국어를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긍정적이며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어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은 자신의 특기를 찾으면 자신감도 확립되고 삶을 더욱 잘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주입식 교육은 일등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공통적인 시험을 통해 등급이 낮은 학생은 실패자가 되어 버린다. 예를 들어, 가훈은 조기유학은 가지 않았지만 한국의 정규 교육시스템을 따르지도 않았다. 운동선수의 길이 막히고 중학교에 진학 하여서는 그 동안 관심만 있었던 중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다.

나경은 삼수를 통해 대학에 입학했고 이루고 싶은 꿈도 대학 입학과정에서 바꿨다. 대학에 와서 세상을 보니 정말 많은 직업이 있기에 더 많은 것을 도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시 시절에는 '대학 합격'이라는 목표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꿈이 없어도 꿈이 있다고 지어내야 하고, 싫은 것도 좋다고 말해야 했다. 그렇기에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나경은 입시 때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이 지금의 나경이가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경의 자기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입시 시절에는 '대학 합격'이라는 목표만 보고 달려오기 때문에 꿈이 없어도 꿈이 있다고 지어내야 하고, 싫은 것도 좋다고 말해야 된다. 그렇기에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나는 입시 때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이 지금의 내가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계절학기 과목으로 '중국사회 갈등구조의 이해'를 듣고 있다. 수업에서 위화의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를 보았는데, 책을 보면 중국인들을 이해할 수 있다. 중국 인민들은 중국의 급격한 경제 발전 속도에 발맞추기 어려워하는 것이고, 국가의 강력한 통제 속에서 스스로 사고하는 법을 잊어갔을 뿐인 것이다.

다은은 중국어가 자신의 성공 발판이라고 했다. 한국에서 생활 초반에 학교 다른 반 친구들이 다은이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신기해했고, 다은의 반에 와서 말도 안 되는 몇 마디의 중국어로 다은에게 말을 걸었다. 또는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다은을 비웃을 때도 있었다. 그때 다은은 한국에서 태어났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자신이 너무 싫었다. 다은은 중도입국자로서 한국학교 생활에 잘 적응한 편이었다. 하지만 정규 교과수업으로 한국학생과 경쟁하여 대학 입학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중국어특기자로 대학 입학이 다은에게 더 나은 선택이었다. 지금 다은이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살다 왔다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은을 부러워했다. 두 나라의 언어를 다 알아듣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은은 더 많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두 나라의 언어를 더 잘 알고, 말하기 위해서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나는 주변 사람들과 일상적 대화할 때 한국어 더 편했고, 좀 더 깊은 대회나 발표할 때 중국어 더 편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듣는 말은 '너 중국어 되게 잘 한다' '중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잘하는 거지' '너 중국어 공부 아예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였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도 중국어와 한국어 학습을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고, 오히려 나의 중국어와 한국어의 실력이 떨어질까 걱정돼서 더 열심히 보고, 듣고, 외우고 있다. 모든 일이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과거에도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라희에게 중국어는 도피처였다. 하고 싶은 것도, 꿈도 없다면 중국어라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재미있어지고 통역에 관심을 가져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 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희는 실패의 경험이 너무 많았다. 하향 지원한 대학 하나만 붙은 것도 그렇고, HSK 점수가 낮게 나온 것도 그렇고, 중국 대학 입시 실패한 것도 계속하니까 조금 조금씩 성적이 올라가긴 한다. 근데 라희가 해 놓은 목표에 도달한 게 하나도 없어서 우울하기도 했다. 라희는 이렇게 말했다.

뭐 어쩌겠어 하고 넘겨요.. 여기서 뭐 성장할게 있냐고 물어보시면 그냥 제 멘탈이.. 튼튼해졌나?...

라희는 자신감의 근원은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열심히 노력했다면 자신감이 있을 거고, 노력을 안했으면 자신감도 없는 것이다. 지금껏 자신이 노력하면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실패하면 더 노력하면 되겠다고 생각한다.

버트(Burt, 1982)는 <구조적 틈새: 경쟁의 사회 구조>에서 구조적 틈새 이론(structural holes)을 제기했다. 이는 두 무리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 부족하면 제3자를 통해 연락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동하는 제3자는 관계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구조적 틈새를 차지한다. 인간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구조적 틈새는 위치의 조직, 개인의 정보, 기타 자원의 우위를 가져올 수 있다.

개인이 미시적 개념이라면 사회는 거시적인 개념이고 네트워크는 중간 개념이다. 이에 사회 네트워크는 사회와 개인을 연결시킨다. 사회의 진보는 개인, 네트워크, 사회 세 가지 차원이 상호작용하는 결과다. 사회는 개인적인 행동을 위해 배경을 제공하고, 개인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킨다. 세계가 급속히 가까워지고 다문화 되는 한국 사회에

서 가훈, 나경, 다은, 라희 학생과 같은 중국어 특기자들이야말로 한국과 세계, 한국과 다문화를 연결시키는 네트워크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가훈, 나경, 다은, 라희 학생을 비롯한 2개 이상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한 중국어 특기자들은 네트워크가 역할로 '구조적 틈새'가 되어 이 시대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키스톤이 되어 다문화 사회를 떠받치는 중요한 인재로서 키우기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습득할 때 사용가치, 교환가치, 상징가치를 보는 것은 실용적 차원에서 묻는 경향이 없을 수 없지만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 개방적, 다원적 시야와 다문화 사고방식을 키우면 두 문화와 사람 간의 교류가 더 깊어지는 것은 실용적 차원을 넘어선다.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나온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아이가 어린 시절에 많은 지식을 주입하는 것보다 큰 그릇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큰 그릇은 바로 아이의 성격과 인품이다.

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입시 양상과 특기자들을 위한 정규 수업의 부재로 입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어 특기자들과 20년 가까이 함께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지도한 학생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며 그들의 학습 생애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학생들을 관찰하며 다양한 경험에 따라 중국어의 수준과 사고의 깊이 또한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중국어 특기자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중국어를 접하게 된 배경은 모두 달랐다. 이에 횡적으로 중국어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중국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중국어'라는 특기로 대학을 준비하는 힘든 과정 중에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이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간 후에는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입시 준비하던 때와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이들을 대상으로 중국어교육과 그들의 생애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국어를 자신의 특기로 만드는 과정에 대한 지도와 방법이 아닌 중국어 특기자들이 입시 제도가 인정하는 특기 수준에 맞춰 특기개발을 위한 학습 과정과 생애에 집중되어 있다. 즉, 그들만이 경험했던 순간들을 구조화하여 문화와 교육 그리고 삶이 융합된 하나의 성장 이야기를 교육인류학적 개념으로 새로운 해석을 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기한 연구 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였다. 첫째, 중국어 특기자가 된 배경과 학습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중국어 특기자 학습생애의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중국어 특기자들의 생애와 학습은 어떤 교육인류학적 의미를 가지는가? 나는 이 연구 문제를

알아보기 위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대입 특별전형 중국어 특기자의 학습 생애를 밝혀 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중국어 특기자 전형을 지원하는 학습자의 관점에서 중국어 학습 생애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학습과 성장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 문제별로 나타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Ⅲ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생애의 맥락 안에서 그들의 중국어 학습 과정 양상에 대해 질적으로 기술하였다. 특기가 중국어로 된 이유는 정말 중국어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린 시절 중국에 유학을 갔다 온 경우, 중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한국으로 중도입국 한 경우, 부모님 중 한 명이 중국인인 다문화 가정의 경우 등 살면서 자기 의지로 결정하기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계발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남들보다 중국어를 좀 더 일찍 접했거나 중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다는 것이 특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나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떤 시기에 어떠한 결정적 계기가 있었는지, 이 시기에 중국어가 특기로 된 배경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연구했다.

중국어 특기자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마다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공부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들은 중국어를 특기로 만들기 위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특별전형에 필요한 중국어 실력을 준비하게 된다. 입시에서 요구하는 공인 외국어 시험 중 HSK에서 제일 높은 급의 높은 점을 취득해야 하고, 중국어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기본소양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어로 에세이, 면접을 통과 해야만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량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높은 성적이 나와야 한다는 압박감, 주변의 기대와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에 대한 불신,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불안 등 다양한 감정들을 겪게 되는데 이들이 학습 과정에서 어떠한 성장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중국어 특기자들은 중국어 특기자 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후,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며, 특기 활용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학교생활과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중국어 특기가 특기자들에게 정체성 확립과 인생의 기회 등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았다.

둘째, Ⅳ장에서는 중국어 학습의 경험 속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무엇인지 고찰해 보았다. 중국어 특기자들이 중국어 학습 과정에서 어떤 학습생애 특징 있어 중국어 실력이 향상했는지를 알기위해 중국어 특기자 학습생애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1절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부모, 선생님, 친구) 언어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짚어보고, 좀 더 좋은 학습 과정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중국어 특기자가 중국어를 공부하는 과정에 어떠한 인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는지 분석했다. 2절에서는 중국어 특기자들의 중국어 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의 내적 동기가 외적인 동기보다 오래 지속되고 힘이 있으며 학습 효과도 좋아져 학습을 촉진하는 동력이라는 것을 분석했다. 3절에서는 중국어 특기자들이 중국어 학습 과정에 만난 실패와 역경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통해 학습 중에 역경이 학습에 어떤 영향과 효과가 있는지 분석했다.

셋째, 중국어 학습생애를 바탕으로 Ⅴ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문화의 눈으로 본 중국어 학습은 무엇인지, 교육의 눈으로 본 중국어 학습은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특히 대입 특별전형 중 중국어 특기자라는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집단에서 그들의 삶과 문화와 교육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중국어 특기자가 중국어를 통해 중국어학습을 심화하고 특히 중국어 특기자전형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변화는 무엇인지 해석해 보았다.

문화의 눈으로 본 중국어 학습은 다언어 이상으로 다문화를 포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다른 문화의 미세한 점을 살피려면 다른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의 충돌에 있어 심리적 충격은 매우 크다. 역사학자 윌리엄 맥니어는 역사의 중대한 변화는 낯선 사람들과 접촉할 때 발생한다고 했다. 다른 사람의 신기한 기술, 더 아름다운 사물, 더 고급스러운 삶을 볼 때, 우리는 강렬한 학습과 모방의 동

력을 갖게 되는 반면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외래문화의 충격은 우리의 자존심에 영향을 미친다. 어느 민족도 자신의 전통과 문화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 전통과 문화, 우리의 풍습과 체제가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쌓여 왔기 때문이다. 이런 전통과 풍습은 우리에게 정체성과 안정감을 준다.

중국어를 학습하는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 적응의 가장 좋은 길 또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많은 교류를 통해 자신의 문화와 다른 점을 발견하고 그에 적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나라간의 문화차이를 몸소 체험하고, 대화를 통해 이해하면서 중국과 한국은 같으면서도 매우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의 눈으로 본 중국어 학습은 어떠한가? 학습자가 자신의 서사를 잘 알고 있다면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동력도 생기게 된다. 교육으로서의 중국어 학습은 다른 언어로 학습자 자신의 서사를 이야기할 수 있게 하면서 학습자들의 또 다른 인생 방향을 찾아 주는 것이라고 본다. 또 언어라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배우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언어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교수자와 학생간의 유대감, 신뢰감, 이해와 관심의 작용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의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정서적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 외국어라는 낯설고 어려운 난관 앞에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교수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결론

본 논문을 통해서는 연구자로서 중국어 특기자들이 어떻게 중국어를 학습하고 특기로 만들었는지에 대해 접근했다. 입시 현장에서 일하면서 21세기 초기 한국 역사 속에서 교육제도, 입시제도, 중국어 특기자에 관한 제도도 많이 변화를 목격해 왔다. 중국어 특기자 전형이 시작되면서 많은 대학교들이 중국어 특기자 정원을 개설, 확대를 거쳐 현재는 축소,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다. 올해는 그 동안 보지 못했던 중국어 특기자

준비생들의 '배경'을 돌아보았다. 이번 석사논문은 내가 온 몸으로 중국어 특기자들과 함께 걸어온 길의 마침표가 아닐까 싶다.

이번 논문작업을 통해 디테일하게 네 명의 중국어 특기자들의 중국어 학습 생애를 살펴보았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떻게 한 분야에서 횡적 특기를 형성하고 종적으로 자신의 한 가지 특기를 신장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물론 주관적으로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지만 공통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본 논문을 쓰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의문 한 가지는 '좋은 대학교에 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였다. 우리는 대학의 서열화에 반대하지만 소위 '좋은 대학'을 목표에 두고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올리기 위해 노력한다. 나경은 제수할 때 원하는 대학 떨어지고 전문대 다니면서 삼수를 했다. 그 때 나경은 학벌 콤플렉스가 매우 심했다. 나경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자존감이 낮아졌다. 친구들은 '대학에 와 보니 학벌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나경을 위로했지만, 나경은 가진 자들의 위로는 기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누가 자신의 대학을 물어보는 것이 너무 싫었고, 나경이 가기 싫은 대학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 통학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싫어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 밤마다 울었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새로운 대학 생활은 나경에게 정말 소중했다. 나경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으며 중국어에 대한 열정도 더욱 커지게 되었다. 입학 후에도 나경은 남들 앞에서 중국어로 당당하게 연설하는 자신의 모습을 잃고 싶지 않아 대학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음에도 꾸준하게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자립심도 더욱 커지게 되었고, 현재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약 나경이 일 년 늦게 태어났다면 예진대 중국어 특기자 전형이 폐지되어 특기자 전형에 지원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경은 학벌 콤플렉스에 얽매여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살게 되었을까? 높은 목표가 없었다면 중국어 실력을 지금의 실력만큼 향상시킬 수 있었을까? 나경은

자신의 중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지금처럼 높을 수 있었을까? 중국어 특기자 전형이 폐지된다면 어릴 때부터 중국어 특기자 전형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능력을 키우고 자신감을 형성하고 자신만의 스토리텔링 만들던 학생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물론 내재적인 동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 통해서 나는 내적 원동력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한 번 더 느꼈다. 특히 나경의 삼수, 다은의 재수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신의 간절함이 공부의 동력이 됨을 확인하였다. 즉, 내재적인 요인은 외부의 강요보다는 몇 백배는 더 효과적인 것이다. 나는 나의 자녀들 교육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아이들에게 영어공부를 시킬 때 아이들이 공부하기를 힘들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였다. 하지만 이번 논문연구를 통해 아이들 자신이 왜 영어를 배워야하는지 모르고 내재적 동력 없이 무조건 공부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나는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에서 내가 했던 수업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경은 특기자 학원을 다니긴 하였지만, 학원에서는 다소 어렵고 무거운 주제에 대해 좋든 싫든 지식을 쌓기 위해 토론을 진행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 전화 중국어는 나경이 좋아하는 수업 방식으로 나경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고 생각한다. 학원에서 발표를 진행하는 날이면, 학원가는 길에 전화 중국어 선생님과 나경이 작성한 발표문을 살펴보며 틀린 어법이나, 단어 표현에 대한 것들을 교정하기도 하였다.

나는 내 나름대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지도한다고 생각하지만 나경과 인터뷰를 하고 나경의 자기보고서를 읽고 깨달은 것은 나경의 중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은 나에게 배운 것뿐만 아니라 전화 중국어 선생님의 공이 크다는 것이었다. 내가 학생들과 많이 상담하고 관심을 갖더라도 학생에게 준 수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에는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 이 부분은 내가 계속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나는 나름 수업을 잘 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학생에게 관심을 최대한 갖고자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관심이 학생들에게는 미

치지 못하였는지 두려움이 들 때도 있다.

이번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던 면도 발견했다. 학습은 질적 과정이기 때문에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내가 자주 쓴 단어는 '향상', '성공' 등이라는 것이다. 아무래도 사교육 기관에서 오랫동안 일해 와서 결과가 주는 부담감의 영향이 없지 않았나 싶다. 이어서 나 자신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외면의 나를 중시한 반면 내면의 나를 많이 소홀했음을 반성하게 되었다.

올해부터 중국어 특기자 전형 입학정원은 대거 축소되었다. 덕분에 나는 논문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올해 나는 여러 방면에서 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내가 태어나던 시기의 중국은 개혁과 개방을 부르짖던 변혁의 시기였다, 그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교육을 통해서 익혔다. 그래서 나는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 이제부터 나는 내재적인 나에 대해서도 인지하고자 한다. 쉽지 않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바꾸려고 한다. 또한 나의 자녀들이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 이 연구는 끝이 났지만 중국어 특기자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나의 유튜브 채널에서 중국어 특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어 학습과 생애를 탐색하고 공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강대중 (2009). 평생학습 연구 방법으로 학습생애사의 의의와 가능성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15(1), 201-223

강영지 (2016). 초등학교 다문화 아동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 사례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창동 (2020). **한국의 대학입시문화사.** 박영스토리

강희숙·김동선·문영주 (2010). 나홀로 조기유학생의 유학적응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2(3), 19-14.

공기인 (2019). 북한이탈주민의 생애사 연구를 통한 평양시 노동자들의 직업정체성 변화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공정욱 (2017). 미래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초등교육과정 재구성과 학교 민주화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국수연 (2019). 중도입국청소년의 언어장벽이 우울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준 (2015). 외국어 고등학교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진 (2010). 역량의 개념과 교육적 함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동기 (2004). 골프 지도자(세미프로)의 생애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동기 (2018). 대학 운동부 특기자 학생들의 일상 경험.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2), 359-369.

김민수 (2019).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정책 발전 방안. **문화와 융합**, 41(3), 1025-1054.

김상우 (2018). 체육특기자 신입생의 대학생활에 관한 사회문화적 경험 및 의미 탐색.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선정 (2010). 다문화가정 자녀 실태 및 다문화교육의 추진 방향. **외국어교육연구**, 24(1). 21-26.

김은혜 (2011). 미래 체육과 교육과정 방향 탐색: 핵심역량 개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천 (2005). 한국 초등학교 아동들의 학원학습에 대한 생애사적 사례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결과보고**, B00516.
김정아 (2007). 방송사 PD 전문성의 계발과정 및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지영 (2013). 해외 귀국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사례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주 (2007). 미국 조기유학 청소년의 적응과정 연구: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홍원 (2006). 조기유학 실태와 개선방안. **교육마당**, 21, 288, 58-62.
박기동 (2014). 체육특기자 두 학생의 구술생애사: 노새 혹은 쇄빙선. **한국체육사학회지**, 19(2), 15-25.
박여진 (2010). 중국어특기자전형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늘봄 (2013). 중도입국 학령기 아동이 초기 한국 문화적응 과정에서 겪는 다차원적 경험과 언어능력 발달 양상.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상복·권서경 (2013). 대입 영어특기자 전형 단순화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창완·임용석·이승훈 (2009). 체육 특기자 교육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스포츠문화 과학연구지**, 16, 63-75.
백순근 (1999). 특기 적성교육의 평가 방안. **진로교육연구**, 10, 114-132.
손충기 (2003). 한국의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변천과정 및 발정방향 탐색. **교육연구**, 22:17-42.
송민경·윤철경·이현주·김고은 (2011). 조기유학종료자의 대학 졸업 이후 생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분석 연구. **청소년학연구**, 18(12), 275-402.
안윤지 (2012). 국제재혼가정 이주청소년들의 언어 문화적응교육에 대한 실태 탐색.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수진 (2015). 2015학년도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의 효과성과 타당성

평가 연구. 중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은아 (2010). 삶과 학습의 선순환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인문학습경험에 대한 생애사적 분석. **열린교육연구**, 18(2), 143-172.
양지승 (2005). 우리나라의 외국어 교육정책과 일본어 교육의 방향.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엄채윤·문용린 (2009). 한 중학생의 외국어 능력 계발 과정에서 나타난 학습 전략 및 기제 분석. **인간발달연구** 16(2), 67-85.
우자혜 (2012). 중국과 한국의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연규 (2020). 한·중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사회성, 외국어 학습신념이 영어말하기 학습전략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종일 (2016). 조기 유학을 경험하고 귀국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경애 (2015). 여성결혼 이민자의 학습양식과 한국어 학습전략 본석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경희, 박성희 (2006).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생애사연구: 사례재구성을 통한 중년여성의 학습개념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2(3), 73-95.
이근무 (2004). 알콜중독자의 재발경험에 대한 현상학적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정 (2007). 영어마을 체험학습이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용수 외 (2012). **인류학 민족지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일조각.
이용희 (2009). 영어마을의 시장지향성과 관계지향성이 학부모참여자만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완기 (1996). 초등영어교육론. **서울: 문진당**.
이수경 (2018). 홍콩인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경험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민수 (2011). 조기 유학의 참여 경험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종호 (2004). 교육환경 요인이 중 고 체육특기자의 정규수업 및 보충수업 참여에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혜영 외 (2008). 입학사정관제도로 얻을 수 있는 것. **교육마당**, 21:10-13.

이현주 (2010).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정체감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현주·강현아 (2011).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정체감과 문화적응유형 및 심리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32, 147-166.

임다솜 (2018). 미국대학을 졸업한 조기유학 종결자들의 가족관계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인숙 (2008). 중국 조기유학생의 유학생활 실태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보호요인 탐색.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영수 외 (2007). 해외 대학입학제도 실태조사 연구. 서울: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용준 (2007). 영어마을 실태와 인식 조사 및 운영 개선 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다혜 (2019). 고등학교 영어학습자들의 성취목표, 외국어학습동기유지전략, 영어학업성취도 사이의 관계성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지혜 (2009). 아츠 프로펠을 적용한 초등음악 창작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용환 (1999). 질적 기술, 분석, 해석. **교육인류학연구**, 2(2), 27-63

조용환 (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파주: 교육과학사.

조요환 (2004). 질적 연구오 질적 교육. **교육인류학연구**, 7(2), 57-77.

조용환 (2006). 더나은 실존을 추구하는 과정으로서 교육. **문화와 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조용환 (2011a). **질적 연구논문의 작성과 평가.** 서울: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조용환 (2012b). 교육인류학과 질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5(2), 1-21.

조용환 (2013). 좋은 질적 연구자가 되기 위한 지기 점검. 2013년도 한국교육인류학회 하계워크샵 지료집.

조용환 (2020a). 질적 연구의 계획과 예비조사. 질적 연구의 계획과 설계(pp. 1-16). 2020 한국교육인류학외 하계워크숍 자료집.

조용환 (2021). 삶의 틀을 규정하는 과정으로서 문화. **문화와 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조재은 (2014). 한국 내 화교 중・고등학교 현황에 대한 교육 주체 인식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상만 (2013). 경험학습을 통한 名醫의 전문성 발달과정.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승백·탁민혁 (2017). 1972년 이전 체육특기자제도의 궤적: 입시제도 안에 구축된 스카우트 관행.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0(3), 19-45.

최영신 (1999). 질적 자료 수집: 생애사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2(2), 1-22

Guoyifei (2018). 한중 대학입시제도의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utcher, A. (2002). A Grief Observed: Grief Experiences of East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Returning to their Countries of Origin.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6(4), 354-368.

Collins, H., & Evans, R. (2007). *Rethinking expertis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Dreyfus, H. L., & Dreyfus, S. E. (1986). *Mind over machine: The power of human intuition and expertise in the era of the computer.* New York: Free Press.

Ericsson, K. A. (2006a). *An introduction to Cambridge handbook of expertise and expert performance: Its development, organization, and content.* In K. A. Ericsson., N. Charness., P. J. Feltovich & R. R. Hoffman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expertise and expert performance (pp. 3-19). New York:

Cambridge

Ericsson, K. A., Krampe, R. T., & Tesch-Romer, C. (1993). *The role of deliberate practice in the acquisition of expert performance.* Psychological Review, 100(3), 363-406.

Fook, J., Ryan, Martine., & Hawkins, L. (2000). *Professional expertise: Practice, theory and education for working in uncertainty.* London: Whiting & Birch Ltd.

Gardner, R., & Lambert, W. (1972). *Atitudes and motiva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Rowley. MA: Newbury House.

Howatson-Jones, I. L. (2001). *Using an auto/ biographical approach to investigate nurses' learing.* Nurse Resercher, 19(1), 38-42.

Michelson, E. (2011). *Autobiography and selfhood in the practice of adult learning.* Adult Education Quarterly, 61(1), 3-21.

OECD (2005).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Rossiter, M. (1999). *A narrative approach to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adult education.* Adult Education Quarterly, 50(1), 56-71.

Spencer, L.& Spencer, S.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work.* New York: John Wily and Sons.

Weinert F. E. (2001). *Concept of Competence: A conceptual clarification.* in D. S. Rychen, & L. H. Salganik(Eds).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Hogrefe & Huber Publishers: Seattle, Toronto, Bern.

Yamamoto, Masayo (2001). *Language Use in Interlingual Families: A Japanese-English Socialinguistic study.* lecedon.England/ Buffalo, N.Y.: Multilingual Matters

Abstract

A Study on the Learning Lifetime of Special Chinese Language Specialists for University Admission

Sun, Rui chao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 qualitative study about the learning life of Chinese talents specializing in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new interpretation and practice of the learning process, which occupies an important weight in the education, life and culture of Chinese experts. I explored how Chinese experts in Korea improved their Chinese skills vertically, specifically, what is the background factor for the study participants to become a Chinese Specialist, the learning and culture after becoming a Chinese Specialist, and the meaning they give to the Chinese Specialist's life were examined. In the meantime, a new interpretation was attempted by viewing the process of self-identity formation of Chinese talent as a social and cultural phenomenon. In addition, the way of understanding themselves from the perspectives and positions of Chinese writers, and the internal mechanisms that define and give meaning to their lives and actions were examin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process of self-identity formation experienced by Chinese talents through the learning process is

similar to the learning life of current Chinese talent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it is important for education to increase confidence by forming one's own narrative, establishing identity, and developing special skills at each point in time when Chinese language skills are developed.

The three research questions raised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background and learning process of becoming a Chinese expert? Secon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arning life of a Chinese expert? Third, what kind of educational anthropological significance does the life and learning of Chinese experts have? I choose the life history approach, which is on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s a method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and revealed the learning life of Chinese specialties in the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their learning and growth by focusing on the life of Chinese learning from the perspective of learners who support the selection of Chinese talents. The following is the content of the study.

First, Chapter III qualitatively described the aspects of the study participants' Chinese learning process within the context of their lives. The reason why their special skill became Chinese and that there were cases where they really liked Chinese, but there were also cases where they developed it out of necessity rather than making their own decision. Being exposed to Chinese earlier than others or having lived in China did not lead to her specialty. Therefore, I researched what was the kind and time of the decisive moment the study participants, and what was the background of their specialization in Chinese during this period.

In order to apply for the Mandarin Specialist Examination, you must study according to the level required by each university. In this process,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physical and mental difficulties along with the burden of learning. In particular, they experience a variety of emotions, such as pressure to achieve high grades within a set time period, stress from

high expectations and competition, distrust in themselves, identity confusion and psychological anxiety. To take a closer look at these, I investigated how satisfied they were with school life after entering university through the Chinese language talent selection process, how special skills are utilized, and what life is like in and out of school. In addition, I investigated how Chinese specialties affected the establishment of identities and opportunities in life.

Second, in Chapter IV, we examined the causes that affect the experience of learning Chinese. A phenomenological analysis was attempted on the learning lifespans of those with special abilities in Chinese to find out what characteristics of the learning lifecycles of the Chinese learners improved their Chinese proficiency. I also examined the importance of the intrinsic motivation for learning through the Chinese language, the learning process and any support for the Chinese language learning process. Additionally, I examined how Chinese experts deal with failures and adversity encountered in the course of learning Chinese, I analyzed the effects and effects of adversity on learning during learning.

Third, based on my Chinese learning life, in Chapter V, I explored what Chinese learning as a researcher looked like through the eyes of culture and Chinese learning through the eyes of education. In this study I examined how the interaction between life, culture, and education takes place in a group that has so far not been well-received among the special admissions process of special Chinese talents, and the process of Chinese talents deepening their Chinese learning through Chinese and especially preparing for the selection of Chinese talents. The change that appeared through the study was interpreted from an educational anthropological perspective.

Key words: Specialist in Chinese, learning, life, qualitative research

Student Number: 2019-23246